서울 중구 12경,
살아있는 전통을 만나다

서울 중구 12경,
살아있는 전통을 만나다

중구향토사자료 제14집

서울 중구문화원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사자료집 목록

제01집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 - 중구 관련 논문 모음집
제02집 중구사화(史話) - 중구의 문화유적에 얽힌 이야기
제0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
제04집 서울 중구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
제05집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제06집 중구의 구전설화
제07집 명동 번천사
제08집 중구의 축제
제09집 영화의 메카 충무로
제10집 중구의 세시와 풍속
제11집 정동, 역사의 뒤안길
제12집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제13집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제14집 서울 중구 12경, 살아있는 전통을 만나다

발간사

먼저 중구향토사 제14집 『서울 중구 12경, 살아있는 전통을 만나다』의 발간을 중구문화 가족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구향토사 14집은 국가 발전과 문화 융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생활문화에 대한 역사의식으로 향토사랑을 전승시키기 위하여 지난 2년여 동안의 조사 · 연구 작업을 거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조선시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래 6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맥을 함께 한 유서 깊은 지역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이면서 항일운동과 관련된 순국열사의 동상과 기념비, 탑 등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민족 정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 제1호 숭례문과 한양도성, 도심 속에서 전통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남산골한옥마을, 덕수궁과 근대문화유산 1번지인 정동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녹색 휴식 공간인 남산과 도심 생태 복원으로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청계천, 글로벌 쇼핑 · 관광지인 명동과 남대문시장, 동대문디자인프라자와 첨단 패션타운 등 관광 · 쇼핑 명소가 많이 있어 현대 도시로서는 드물게 역사와 문화, 관광 · 쇼핑이 함께 어우러지는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중구민과 우리구를 찾는 분들에게 서울시 중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구향토사 제14집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문동석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평소 중구문화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 12

서울중구문화원장 김장환

「도성도(都城圖)」, 1788년경,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남산(목멱산)이 그려져 있는 화면 하단이 남쪽이다. 오른편에 광희문과 흥인지문이, 왼편에 숭례문과 돈의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의 청계천은 서에서 동으로 한양을 관통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 관내도

종로구
서울시청
덕수궁
청계광장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
관광특구
숭례문(남대문)
남대문시장
명동
명동성당
서울역
중구청
소나무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한국의집
남산골한옥마을
남산봉수대
남산공원
타임캡슐광장
국립극장
퇴계로
다산로
반포로
500M
1KM
1.5KM
2KM

발간사 | 서울 중구문화원장 김장환 · 5

들어가는 글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중구의 명승을 찾아서 · 16

서론 : 역사 속의 서울, 그리고 중구 20
- 서울의 첫출발 • 한양의 행정 체제와 남촌 • 일제강점기의 서울과 중구
- 해방 이후의 서울과 중구

제1장 국보 제1호 숭례문과 남대문시장

1. 한양의 공간 구성과 숭례문 28
- 한성의 입지와 풍수사상 • 한성의 공간 구성 • 성곽과 성문

2. 숭례문의 역사와 변천 34
- 국보 1호 숭례문 • 숭례문에 깃든 풍수사상 • 숭례문 현판
- 숭례문 화재와 복구

3.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 44
- 남대문시장의 출발 • 대동법과 칠패시장 • 근대 이후의 남대문시장

4. 숭례문 주변의 볼거리들 52
- 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 • 남대문 갈치조림골목

제2장 남산, 서울 600년 역사를 굽어보다

1. 한양의 공간 구성과 남산 60
- 서울의 안산(案山)인 남산 • 목멱산이라는 명칭
- 한양 천도와 남산 • 백성들이 즐겨 찾다

2. 일제강점기의 남산 65
- 남산의 수난과 일제 • 경성신사 터
- 일제를 견제하기 위해 세운 와룡묘 • 조선신궁 터

3. 서울 전체를 조망하는 남산의 볼거리들 72
- N서울타워 • 남산 봉수대 • 백성들의 활터 석호정 • 국사당 터
- 안중근 의사 기념관 • 백범광장

제3장 청계천, 역사와 함께 흐르다

1. 한양의 공간 구성과 청계천 82
- 서울을 관통하는 명당수 • 북촌과 남촌을 가르다
- 청계천 주변에 살았던 중인

2. 조선시대 청계천 일대의 사회경제사 87
- 관영 수공업장의 설치 • 민영 수공업의 발달 • 시전행랑의 설치

3. 근대 이후 청계천 일대의 변화 91
- 금융의 중심가 남대문로 • 일제강점기의 청계천 일대
- 청계천 복개와 도심 개발의 시대

4. 청계천 복원과 친환경 도시 개발 98
- 청계천 복원 사업의 경과 • 청계천의 옛 다리들

5. 청계천 주변의 볼거리들 104
-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지 • 환구단 터와 황궁우
-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 • 명보아트홀
- 도심 속의 문화 사랑방, 중구문화원

제4장 덕수궁과 근대문화유산 1번지 정동

1. 덕수궁과 정동의 역사 116
- 정릉동 행궁으로 출발한 덕수궁 • 개항 직후의 정동
- 서양 세력과 근대 문물의 유입 • 고종의 경운궁 환궁 • 경운궁의 수난

2. 덕수궁의 공간 구조 127
- 대한문(대안문)과 금천교 • 중화문과 중화전
- 중명전(수옥헌) • 석조전 • 함녕전과 덕홍전

3. 정동의 근대문화유산과 볼거리들 137
•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 러시아 공사관 터 • 손탁호텔 터 • 정동제일교회
• 이화학당(이화여고 심슨기념관) •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제5장 약현성당과 서소문역사공원 한국 천주교회의 살아있는 역사

1. 약현성당과 한국 천주교회 146
•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교회 • 한국 천주교회의 출발과 서학
• 천진암 주어사 강학회와 이벽 • 천주교 박해와 한국 천주교회

2. 약현성당의 건립과 성장 152
• 약현 본당의 건축 • 약현성당 건축의 특징 • 부대시설과 기관

3. 서소문역사공원 159
• 서소문공원에서 서소문역사공원으로

4.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외 162
•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손기정 • 손기정기념관
• 손기정체육공원과 손기정문화체육센터 •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제6장 수도 서울의 관문 서울역

1. 근대 교통혁명과 서울역 172
• 조선시대의 교통수단 • 철도를 따라 들어온 근대 문명
•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전차 • 철도의 부설과 민중의 저항

2. 한국 철도사와 서울역 179
• 제국 팽창의 관문이었던 경성역
• 이상과 박태원이 본 1930년대 경성역 • 해방 이후의 서울역

3. '문화역서울 284'의 탄생
• 복합문화 공간이 된 서울역사 186

4. 주변 유적과 볼거리 189
• 강우규 의사 동상 • 서울역 파발마

제7장 글로벌 쇼핑거리 명동

1. 조선시대의 명동 194
• 명례방에서 명동으로 • 명례방 공동체와 한국 천주교회

2. 한국 천주교회와 명동성당 198
• 명동성당의 건축 • 명동성당의 건축사적 의미

3. 일제강점기의 명동과 충무로 203
• 일제가 차지한 명동과 충무로 • 조선의 파리가 된 본정과 명치정

4. 해방 이후의 명동
• 전쟁의 상흔과 명동의 부상 •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가 된 명동
• 청년문화의 산실에서 민주화의 성지로 209

5. 명동의 볼거리들 213
• 명동관광특구 • 한국 최초의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 본점
• 명동예술극장 •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

제8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DDP 역사를 품은 디자인 광장

1. 조선시대 동대문과 그 주변 222
• '홍인지문'이란 이름 •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터전
• 배오개시장에서 동대문시장으로

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29
•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대문운동장 • 동대문역사관
• 동대문운동장기념관 • 동대문유구전시장

3.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35
• 창의적 디자인의 발신지 DDP • '환유의 풍경' • DDP의 내부 구성

4. 주변 유적과 볼거리들 238
• 동대문 패션타운 • 청계천 헌책방거리 • 평화시장
• 훈련원공원 • 중앙아시아촌

제9장 충무아트홀과 황학동 풍물거리

1. 고품격 공연예술의 허브 충무아트홀 246
-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홀 •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앙상블 시나위 •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 충무예술아카데미
-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 • 중구 청소년 문화캠프 • 사회공헌 협력사업

2.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256
- 시설 규모 및 현황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 서울중앙시장과 신당동 떡볶이타운 258
-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시장
- 신당동 떡볶이타운 • 신당창작아케이드

4. 황학동 풍물거리 263
-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서울풍물시장으로 • 황학동 가구거리

제10장 광희문 지나 한양도성 따라 걷다

1. 광희문에 깃든 역사 268
- 한양도성과 광희문 • 수구문과 시구문이란 별칭
- 하도감과 군대 해산 • 광희문의 수난과 복원

2. 남산 자락을 굽어도는 광희문 도성길 276
- 수구문길 • 성당길 • 성곽길 따라 걷는 낭만의 산책길

3. 주변 유적 및 볼거리 280
- 각자(刻字) 성돌에 새겨진 선인들의 숨결

제11장 장충단, 역사의 아픔을 아로새기다

1. 한국 근대사와 장충단 284
- 장충단공원이 품은 슬픈 역사 • 고종 황제가 세운 장충단
- 일제가 세운 박문사 • 해방 이후의 장충단 • 장충단 추모제와 사당 복원 운동

2. 장충단 주변의 역사 유적 292
- 남소문 터 • 숭정전 • 동악시단 터

3. 장충단공원 주변의 새로운 명소들 296
- 국립극장 • 한국현대문학관 • 이해랑예술극장
- 장충동 족발골목 • 종이나라박물관

제12장 남산이 품은 명당, 남산골 한옥마을

1. 남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 306
- 청학이 노니는 마을 청학동 • 전통정원과 한옥마을

2. 일제강점기의 남산골 312
- 조선헌병대사령부 터 • 한국통감부 터 • 조선사편찬위원회 터 • 통감관저 터

3. 남산골 주변의 볼거리들 318
- 서울남산국악당 • 한국의 집 • 주자소 터

주(註) · 324

참고문헌 ·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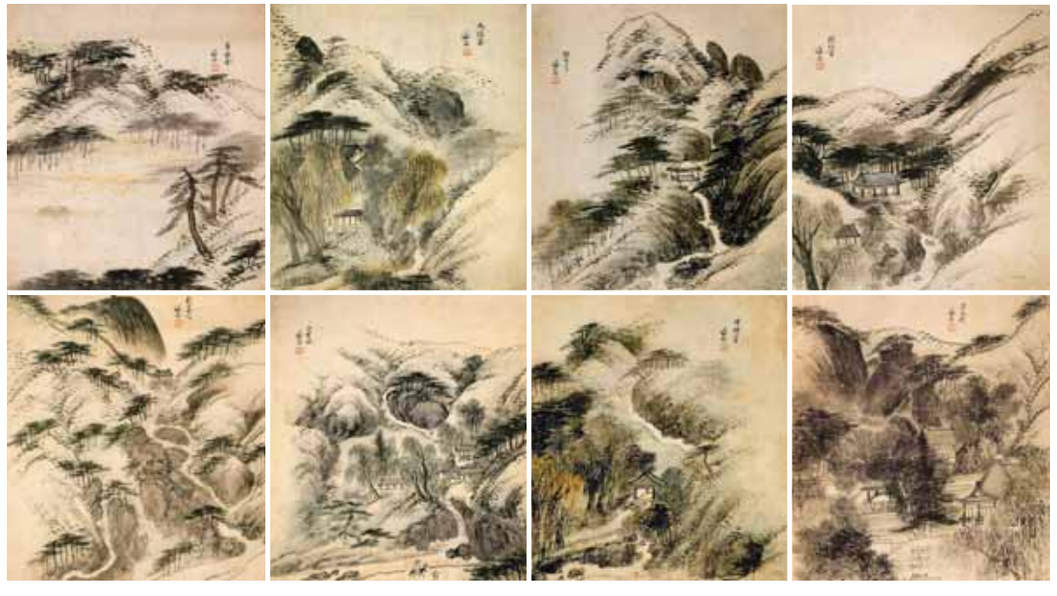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중구의 명승을 찾아서

동양에서 아름다운 경치와 경관을 상찬하고 즐기는 문화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읍지(邑誌), 군지(郡誌), 문집 등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나 자연지세의 특이한 형상, 흥미로운 생활 모습 등을 8경, 10경, 12경으로 소개한 예를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대개 사언절구(四言絶句)의 시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산수화의 전통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그 직접적인 연원은 중국 북송시대(11세기)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1)]

소상팔경은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 연안 영릉(零陵) 부근, 즉 소수(瀟水)와 상수(湘水)가 합류하는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재로 하여 팔경을 읊거나 그린 것을 말한다.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진 소상팔경은 전문 화원은 물론이거니와 선비들의 문인화, 서민층의 민화 등에서도 빈번하게 다루어진 소재이다.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고 할 이러한 문화는 고려 말 송도팔경(松都八景)을 비롯한 각종 팔경도(八景圖)로 이어져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송도팔경은 개성의 아름다운 경승을 찬미한 것으로 자동심승(紫洞尋僧, 자하동에서 중을 찾음), 청교송객(靑郊送客, 청교에서 손님을 배웅함), 북산연우(北山煙雨, 북산을 싸고도는 비와 연기), 백악청운(白岳晴雲, 백악의 갠 하늘과 구름), 강서풍설(江西風雪, 서강의 바람과 눈), 황교만조(黃橋晩照, 황교의 저녁노을), 장단석벽(長湍石壁, 장단의 깎아지른 돌벽), 박연폭포(朴淵瀑布)를 이른다.[2)]

한편 조선 초기에는 한양팔영(漢陽八詠), 한양십경, 남산팔경 등이 만들어져 찬



『장동팔경첩』, 정선,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왼쪽부터 「취미대」, 「대은암」, 「독락정」, 「청송당」, 「창의문」, 「백운동」, 「청휘각」, 「청풍계」.

미되기도 하였다.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 권우(權遇), 정이오(鄭以吾) 등이 조선 왕조의 개국을 찬양함과 함께 새 도읍지인 한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노래한 시를 지어 임금에게 바쳤던 것이다. 또한 동해안 지역의 명승을 가린 관동팔경(關東八景), 평안도 지방의 경승 여덟 곳을 가린 관서팔경(關西八景), 단양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가린 단양팔경(丹陽八景) 등도 있는데, 조선 선조 때 송강(松江) 정철(鄭澈)은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되어 원주에 부임한 후 3개월에 걸쳐 내외 해금강과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그 여정과 산수, 풍경, 고사(故事), 풍속 등을 읊은 가사 문학을 남기기도 하였다.[3)]

한편 조선 후기 진경산수(眞景山水)의 대가인 겸재(謙齋) 정선(鄭敾)은 백악산 계곡에서부터 인왕산 남쪽 기슭에 이르는 오늘날의 통의동, 효자동, 청운동의 여덟 가지 경승을 화폭에 담은 『장동팔경첩(壯洞八景帖)』과 한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을 남겨 이제는 영영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옛 서울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과 흥미로운 생활 풍속을 찬미하고 즐기는 문화는 조선시

중구 전경.

대 양반 문화의 확고한 전통의 하나로 자리 잡아 한국인의 문화적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조선 팔도 어디를 가든 산천경개가 아름다운 곳이면 어디든 이를 즐기기 위한 운치 있는 정자와 누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그 감상을 담은 시와 그림, 산문 작품을 누구나 하나쯤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비근한 예로 학창 시절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소풍이나 수학여행, 백일장 대회는 물론, 봄과 가을에 가까운 친구든 동네 주민 단위든 관광버스를 나누어 타고 방방곡곡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 떠나는 것도 그 뿌리는 모두 동일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중구향토사자료 제14집은 우리 조상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잇고 오늘날 제기되는 새로운 문화적 요구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 중구의 자연, 역사, 문화 명승 열두 가지를 가려 이를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서울시 중구는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서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수도

서울의 관문이라 할 숭례문과 서울역,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남산 일대, 국제적인 쇼핑 타운으로 자리매김한 명동과 동대문쇼핑센터, 한국 근대사의 중심 무대로서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덕수궁과 정동 등이 모두 중구에 포진하고 있다.

또한 중구는 대한민국 역사와 정치의 중심이요,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서 인근의 종로구와 함께 조선 왕조 516년(1394~1910), 일제강점기 35년(1910~1945),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펼쳐진 무대일 뿐 아니라 그 생생한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는 거대한 역사 · 문화 박물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서 서울시 중구만의 개성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통과 현대, 미래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진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지역 관광 산업을 진작하는 데 일조함은 물론, 문화 경쟁력과 지역적 정체성이 날로 중요해져 가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서울시 중구의 명소를 더욱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이러한 뜻 깊은 사업에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서론 : 역사 속의 서울, 그리고 중구

서울의 첫출발

서울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지닌 도시다. 암사동 선사 유적이 보여 주듯 일찍부터 신석기인들이 정주해 살았던 곳이며,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애초에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 취락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다가 초기 국가가 형성된 이후 점차 확장 · 진화해 온 과정이 서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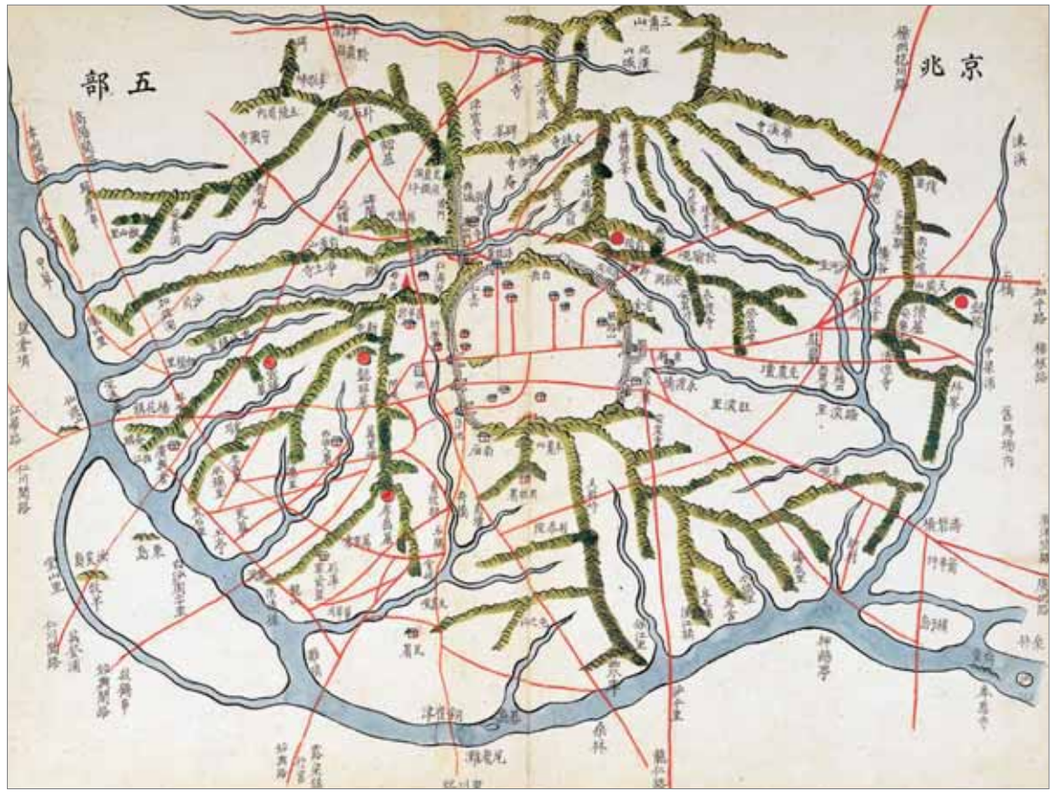
서울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떠오른 것은 무엇보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이루어진 일이다. 태조 이성계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이듬해인 1395년(태조 4) 6월 6일 서울을 공식적인 새 수도로 공포하고 한양부를 한성부(漢城府)로 개칭해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한성은 대한제국이 망하는 1910년까지 515년 동안 조선의 유일무이한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양의 행정 체제와 남촌

오늘날 서울특별시가 25개 구로 나뉘어 행정을 담당하듯 조선시대 한성부도 관할 구역을 다스리기 위해 전체를 5부(部)로 나누었다. 부 밑에는 52개 방(坊)을 두어 행정의 효율을 꾀하였다. 이들 52방은 후에 47방으로 축소되었는데, 1751년(영조 27)에는 방 밑에 계(契)를 두기도 했다. 1895년 5부를 5서(署)로 개칭하였고, 계 밑에 동(洞)을 설치하여 전체 5서 47방 288계 775동으로 편제되었다.

한편 민간에서는 도성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청계천을 경계로 북쪽을 북촌, 남쪽을 남촌이라고도 불렀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공간으로 지금의 계동, 재동, 가회동, 안국동과 길 건너 경운동, 관훈동, 운니동 일대를 이르며, 비교적 부유하고 권세 높은 양반 관료들이 모여 살았다. 남촌은 중구 필동을 중심으로 한 남산 북쪽 기슭 일대로, '딸깍발이 샌님'으로 불리던 가난한 선비들과 관청 하급 관리 및 서민들이 주로 살았다. 따라서 북촌은 양반 문화가 중심을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남촌은 서민 문화가 중심을 이루었다.

북촌과 남촌은 정치적으로도 구별되었다. 조선 말기 유학자 황현의 『매천야록』에 의하면 "서울의 대로(大路)인 종각 이북을 북촌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노론(老論)이 살았다. 그 남쪽은 남촌이라 하는데 소론(少論) 이하 삼색당(三色黨)이 살았다"고 한다. 북촌에는 조선 후기 권력을 장악했던 노론 계열의 인물들이 거주하면서 정



『대동여지도』 중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 1860년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성과 그 주변의 산하, 도로 등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권을 주도하였고, 남촌에는 정권에서 밀려난 소론, 남인(南人), 북인(北人) 등이 뒤섞여 살았다. 한편 북촌과 남촌에 대비하여 그 경계를 이루는 청계천 일대를 중촌이라고도 불렀다.[2)]

일제강점기의 서울과 중구

조선시대 남촌은 이렇듯 북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한한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 가까웠으나, 청일전쟁 이후 들어온 중국인들과 연이어 들어온 일본인 세력은 상대적으로 손에 넣기 쉬운 남촌, 곧 오늘날의 중구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세력권을 확대해 나갔다. 그에 따라 소공동에는 화교촌이, 남대문 주변과 명동, 충무로 일대에는 일인 상가가 터를 잡았으나 점차 일제가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일인 일색으로 변하였다.

1910년(순종 4) 한일병합조약 이후 한성은 대한제국의 수도에서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로 격하되었다. 공식 명칭 또한 경성(京城)으로 바뀌었는데 그 청사는 옛 행정 중심지인 북촌의 육조거리가 아닌 남촌에 설치되었다. 첫 경성부청 자리는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자리로, 1896년에 일본 영사관을 설치하였던 건물을 이어 사용한 것이다. 이는 경성의 행정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함을 뜻했다.

경성부청이 남촌에 자리하면서 경성의 중심은 점차 남촌으로 옮겨졌다. 이 무렵 서울의 인구는 증가 일로를 걸었는데, 이는 자연 인구 증가와 함께 일본인의 대규모 유입,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의 확충 및 고용 인원의 급증으로 서울의 인구 밀도가 나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제는 처음엔 경성부의 행정 조직을 성안은 5부(部) 36방(坊)으로, 성 밖은 8개 면(面)으로 재편하였다. 그리하여 수도로서의 위엄은 사라지고, 행정 조직상의 지위도 지방의 군 · 면 조직과 유사하게 격하되었다. 그러다가 1914년 경성부의 관할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동부, 서부, 북부, 용산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43년에는 출장소 제도를 폐지하고 구(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때 종로, 중구, 동대문, 용산, 성동, 영등포, 서대문 구를 설치했다. 1944년에는 마포구가 설치되어 모두 8개 구로 편제되었다.[3)]

조선총독부는 1912년부터 경성의 도로와 행정구역을 개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성시구개수(京城市區改修)' 라는 이 사업은 한성의 전통적인 도로망을 정비하

일제강점기의 서울(경성) 중구 전경(1920년대 말).

여 곧고 넓게 바꾸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어 1919년부터 1930년까지 제2기 경성도로 개수 공사를 추진했다. 이러한 도로 개수는 한성에 근대 도시의 외양을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공간 구조를 급속히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가 추진한 도로 개수 사업은 주로 청계천 남쪽에 집중되었다. 오늘날의 중구 남대문로와 을지로 및 충무로 일대에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로가 포장되고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생겼다. 반면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종로 북쪽 일대는 큰 변화가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 통치 권력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1920년대 중반까지 경성에 거대한 서양식 건물을 건설하였다. 나아가 남산에는 일본의 창업신과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을 받드는 조선신궁을 건축했다. 이로써 경성의 공간구조는 식민지 권력에 합당하도록 완전히 재편되었다.[4)]

서울시 항공 사진 ⓒ 2011 서울특별시청.

해방 이후의 서울과 중구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경성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한동안 서울의 공식 명칭은 여전히 '경성부'였고, 그 행정수반은 경성부윤이었다. 경성부가 '서울시'로 바뀐 것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8월 15일의 일이다. 해방 1주년을 기하여 미군정은 미국 도시의 자치헌장을 본떠 총 7장 58조로 이루어진 '서울시헌장'을 발표하였다. 미군정이 발표한 서울시헌장 제1조는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하는 내용이었다. 1946년 9월 18일 미군정은 '특별자유시'라는 군정법령 제166호를 공포하였고, 이는 같은 해 9월 28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경성부는 서울시로 바뀌고 경기도 관할에서 독립하여 특별시로 승격되었다.[5)]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깐, 1950년 6월부터 3년 동안 한반도를 할퀴고 간 전쟁으로 인해 서울은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서울은 시가전 없이 북한군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비교적 온전하였으나, 이후 공방전이 오가고 북한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사기를 꺾기 위해 수많은 공습이 퍼부어져 서울역과 용산역은 물론, 도심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

1953년 7월의 휴전협정 이후 서울은 전쟁의 깊은 상흔을 딛고 점차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만 해도 단층의 목조 건물이 많았던 도심에는 하나둘 고층 빌딩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도로도 넓어졌다. 아울러 청계천 복개공사와 판자촌 철거 등으로 대별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도심 곳곳에서 추진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일구고, 인구 1000만 명을 헤아리는 메갈로폴리스로 성장하기까지 서울에게 필요했던 시간은 불과 반세기에 불과했다.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만 헤아려도 6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애초에 서울은 4대문 안쪽과 성저십리라는 비교적 작은 공간을 원점으로 하여 북촌과 남촌, 성 안과 성 밖, 강북과 강남이라는 상호 대립하면서도 긴밀히 연결된 역동적인 구조를 지닌 초거대도시로 진화해 왔다. 그 과정에는 물론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모습 또한 적지 않았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며, 현대 문명이 지닌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살아 있는 역사문화도시 서울. 끊임없이 변화하는 서울의 매력을 중구의 열두 가지 경승을 중심으로 찬찬히 들여다보자.

제1장

국보 제1호 숭례문과 남대문시장

1. 한양의 공간 구성과 숭례문
2. 숭례문의 역사와 변천
3.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
4. 숭례문 주변의 볼거리들

숭례문은 서울 한양도성의 정문으로서 국보 1호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이다. 한양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렸다. 숭례문은 태조 5년(1395)에 착공되어 3년 후인 태조 8년(1398)에 완공되었다. 세종 29년(1447)에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숭례문을 완전히 헐고 그 자리에 흙을 쌓아 지대를 높이 올린 다음 성문을 완전히 새롭게 짓는 공사를 하였다. 이듬해인 세종 30년(1448) 봄에 이 공사를 마쳤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성종 10년(1479)에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였다. 오늘날의 숭례문은 세종 대에 새롭게 만들고 성종 대에 크게 수리한 성문이라 할 수 있다.

1. 한양의 공간 구성과 숭례문

한성의 입지와 풍수사상

서울의 원형을 결정한 것은 무엇일까? 그 첫째는 조선의 개국과 태조 이성계의 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한성의 입지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정해졌다. 풍수지리설은 고대로부터 생겨난 자연 사상의 하나로서 주로 도시, 주택, 분묘를 만들 때 방위나 지세(地勢), 지맥(地脈), 기운 등을 고려해서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이, 또는 후손에게 이로운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왕도(王都)를 건설할 때는 특히 용맥(龍脈)이 중시되는데, 이 용맥이라는 것은 아득히 먼 중국의 곤륜산(崑崙山)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해발 6000미터에 달하는 곤륜산에는 다양한 기운이 넘쳐나고 이 용맥은 중국 대륙 사방으로 흘러나가는데 그 지류 중 하나가 백두산을 지나 한반도까지 흘러 들어온다. 이 용맥을 붙잡아 기(氣)가 발생하는 장소를 찾아내는 일이 왕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1)]

조선의 개창자들은 새로운 왕도를 한양에 정하면서 도성의 입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였다. 그들은 몇 개의 의견으로 갈렸는데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이성계를 섬긴 무학대사(無學大師)는 인왕을 주산(主山)으로 하고 궁궐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는 "유좌묘향(酉坐卯向)"을 주장했다.

반면 조선 개국의 또 다른 공신이었던 정도전(鄭道傳)은 북악을 주산으로 하고 궁궐을 중국과 같이 남쪽을 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격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정도전의 주장대로 수도는 남향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1394년 10월, 마침내 태조는 개성을 뒤로 하고 중국의 곤륜산에서 용맥이 전해져 기운이 흘러넘친다는 한양으로 천도했다. 한양의 지세는 주산인 북악산을 현무(玄武), 낙산을 청룡(青龍), 인왕산을 백호(白虎), 안산인 남산(목멱산)을 주작(朱雀)으로 삼았다. 이 내사산(內四山)을 둘러싸고 성벽을 쌓아 성을 쌓았는데, 한양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산에서 작은 시내가 흘러나와 중심에 모여 청계천이 되고 그것이 동쪽으로 흘러 한강을 향해 빠져 나갔다. 풍수지리적으로 청계천은 내명당수(內明堂水)가 되고 한강은 외명당수(外明堂水)가 된다.

한편 한양 바깥쪽에는 외사산(外四山)이 자리 잡아 풍수지리적 의미를 더하였는데, 그 종산(宗山)은 북한산, 조산(祖山)은 관악산, 외백호(外白虎)는 덕양산, 외청룡(外青龍)은 용마산으로 구성되었다. 한양 바깥을 둘러싼 이 네 산을 이으면 거의 현재의 서울특별시 범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풍수사상이 한갓 관념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매우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2)]

한양의 공간 구성과 궁.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의 「도성도(都城圖)」, 17세기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한성의 공간구성

한양의 입지를 정한 것이 풍수사상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내부 공간은 『주례(周禮)』「고공기(考工記)」에 따라 설계되었다. 조선 왕조의 새로운 도읍인 한성은 언뜻 보기에는 부정형으로 둘러진 성벽과 자연발생적으로 보이는 도로망 등 뚜렷한 계획 없이 세워진 것처럼 보인다. 궁궐 역시 산에 둘러싸인 지형에 따라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태조는 1394년 9월에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고 궁궐, 종묘, 사직단, 도로의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도성을 축조하기 위해 백성을 동원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그런데 신도(新都)를 위한 공사는 왕궁, 종묘, 사직단, 성벽, 성문의 조영(造營)과 이것들을 연결하는 큰 도로의 건설에 제한되었다. 소위 중국의 서안이나 북경과 같은 격자 모양의 크고 작은 가로는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지맥을 가능한 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성문을 내고 성벽을 구축하거나 궁궐을 세울 때도 이 원칙은 확고하게 지켜졌다. 예를 들어, 한양의 동쪽은 산맥이 끊어져 있는데 이 때문에 외우(外憂)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해서 동대문의 이름에 '지(之)'라는 글자를 덧붙여 흥인지문(興仁之門)으로 하고 편액을 내거는 등, 풍수적 대응을 보여주었다. 풍수사상에서는 이를 비보(裨補)라고 한다.[3)]

신도의 설계자들은 『주례』「고공기」의 "제왕은 남면(南面)하여 만백성을 굽어본다"는 원칙에 따라 도성 북쪽의 백악산(북악산) 아래 경복궁을 창건하였다. 또한 "궁궐을 중심으로 앞쪽에 조정을, 뒤쪽에 시장을 둔다"는 전조후시(前朝後市)의 원칙에 따라 경복궁 뒤에 옹색하나마 시전도 설치하였다. 하지만 경복궁 뒤편에 설치된 시전은 한성 공간의 원천적 한계 때문에 곧 철폐되고 만다.

한편 "궁궐의 좌측에 종묘를, 우측에 사직을 배치한다"는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경복궁 좌측에는 종묘를, 우측에는 사직단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제후국의 궁궐 앞 도로는 마차 일곱 대가 나란히 지날 수 있는 너비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후칠궤(諸侯七軌)의 원칙에 따라 경복궁 앞 육조거리를 조성하였다.[4)]

한성부의 관할 구역은 도성 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였다. 즉 백악산(북악산) · 인왕산 · 목멱산(남산) · 타락산(낙산)을 연결하는 약 18킬로미터의 도성 내부 지역과

1904년경의 광화문과 오늘날의 광화문 전경.

「경기감영도」(19세기, 리움미술관 소장)에 그려진 영은문과 모화관. 화면 오른쪽에 서대문(돈의문)이 보인다.

도성으로부터 사방 10리에 이르는 영역을 관할하였다. 성저십리라고 하면 동쪽으로는 중랑천, 서쪽으로는 양화나루와 불광천, 남쪽으로는 한강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러한 관할 구역은 1894~1896년 갑오개혁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될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곧 서울의 원형이자 오늘날까지도 그 중심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서울의 근본 골격이라 할 수 있다.

성곽과 성문

궁궐의 남면을 주장한 정도전은 신도궁궐조성도감의 일원이었다. 그는 한성을 둘러싼 성벽의 위치를 정하고 공사의 진행을 관할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그의 주도하에 대략적인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1397년의 일이다.

경복궁에서 남쪽으로 뻗은 현재의 세종로는 동서로 뻗은 대로인 종로에 맞닥뜨린다. 종로는 그대로 동서로 연장해서 성벽에 닿고 서대문(돈의문)과 동대문(흥인지문)부터 성 밖으로 이어졌다. 종로는 종묘로 연결되는 것과 더불어 그 중간에서 길을 나눠 활 모양으로 길을 굽히면서 정문인 남대문(숭례문)으로도 이어졌다.

서대문 밖에는 북경으로 통하는 의주가도(義州街道)가 있다. 의주가도는 중국 북경의 사절이 사용하는 길로 서대문 밖에는 이들 사절을 맞는 영은문과 접대 장소인 모화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사절은 바로 옆의 서대문을 통해 성내로 출입하지는 않았다. 북경에서 온 사절은 서대문을 곁눈으로 보면서 그대로 남하하여, 정문인 남대문을 통해 들어와 경복궁으로 향했다. 이렇듯 성문에는 각각의 '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소 변화는 있었지만 당초 성문은 사대문과 사소문이 세워졌다. 사대문인 남대문(숭례문), 동대문(흥인지문), 서대문(돈의문), 북대문(숙정문)과 사소문인 홍화문(또는 혜화문, 동소문), 광희문(수구문), 소덕문(또는 소의문, 서소문), 창의문이 완성되었다.

주작(朱雀)의 방위에 위치한 '정문'인 남대문과 동대문의 문루만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격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덕문과 광희문은 시신을 실어 나르는 것이 허락된 문이었다. 이러한 성문의 격은 연면히 계승되어 도성 공간을 규정했다. 예를 들어, 근대의 철도는 도시의 현관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성에서는 남대문의 격 때문에 남대문 밖에 최종적인 역사(驛舍)가 건설되었다. 반대로 시신을 성 밖으로 실어내는 광희문 밖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병에 걸린 사체를 버리는 장소와 묘지, 화장터 등이 입지하여 꺼리는 장소가 되었다.[5)]

2. 숭례문의 역사와 변천

국보1호 숭례문

숭례문은 서울 한양도성의 정문으로서 국보 1호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이다. 한양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렸다. 숭례문은 태조 5년(1395)에 착공되어 3년 후인 태조 8년(1398)에 완공되었다. 그런데 세종 29년(1447)에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숭례문을 완전히 헐고 그 자리에 흙을 쌓아 지대를 높이 올린 다음 성문을 완전히 새롭게 짓는 공사를 하였다. 이듬해인 세종 30년(1448) 봄에 이 공사를 마쳤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성종 10년(1479)에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숭례문은 세종 대에 새롭게 만들고 성종 대에 크게 수리한 성문이라 할 수 있다.[6)]

숭례문은 숱한 수난 속에서도 제 모습을 잃지 않고 600년의 세월을 이겨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숭례문으로 한양에 입성했지만 숭례문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병자호란 때도 특별한 화를 입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겨가던 1900년대부터 숭례문의 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을사조약, 정미7조약 등을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내치와 외교권을 장악해 나갔다. 그리고 서울의 도시계획에도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여 조선왕조의 상징적 방어물인 성벽을 헐어내기 시작했다. 1905년 1월 경부철도를 개통한 일제는 같은 해 6월 일본공사 명의로 남대문 양쪽의 성벽을 헐고 도로를 낼 것을 조선 정부에 제안하였다. 처음에 고종은 이를 거절했지만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황위에서 물러난 1907년 끝내 숭례문 양쪽으로 연결된 성벽이 헐

역사와 함께한 숭례문(위로부터 1900년대, 일제강점기)

1945년 10월경의 숭례문 풍경.

리게 된다. 그래도 숭례문만큼은 헐리지 않고 보존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도 숭례문은 포탄 피해를 받았지만 파괴되지는 않았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도시화로 인해 숭례문 주변의 성곽 시설은 급속히 해체되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완전한 복원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복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성곽 시설이 완전히 해체된 구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곽의 연속성을 되찾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멸실된 구간의 인도에 성벽 모양의 돌을 깔아 옛날에 성곽이 있었던 자리를 표현한 것 등이 그것이다. 숭례문 서쪽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건물과 명지빌딩의 담장 등에도 성곽의 흔적이 남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담장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담장이 거의 끝나는 지점 아래에 성벽으로 사용되었던 돌들이 보인다. 건너편 명지빌딩과 삼성공제회관 건물 아래쪽에서도 성곽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검게 바랜 성돌은 새롭게 쌓은 흰색의 돌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남지기로회도」, 이기룡, 1629년,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숭례문에 깃든 풍수사상

숭례문은 성의 안과 밖을 물리적, 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의미와 군사적 방위를 목적으로 한 성채로서의 의미에 더하여 수도를 불로부터 지키는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한강 남쪽에 위치한 화산(火山)인 관악산으로부터 지형이 끊어진 곳을 통해 덮쳐오는 불기운(火氣)을 막는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도성의 입지를 동향으로 해야 한다는 무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남향인 도성의 화재를 예방하는 설비가 풍수적으로 설치되었다.

숭례문은 한양도성의 정문이었다. 북경에서 온 칙사는 중국을 오가는 의주가도에서 가까운 서대문에서 들어오지 않고 일부러 남쪽에 위치한 남대문으로 들어왔다. 여기서부터 경복궁까지는 직선으로 이은 큰 도로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 또한 궁궐이 불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위한 배려였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남대문 한쪽에 연못을 설치하여 불기운을 상징적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실

질적으로 화재에 대비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남지(南池)'다. 인조 7년(1629) 화원 이기룡이 그린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라는 그림을 보면, 도성 밖으로 숭례문 앞에 큰 연못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때 관악산의 불기운을 약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연못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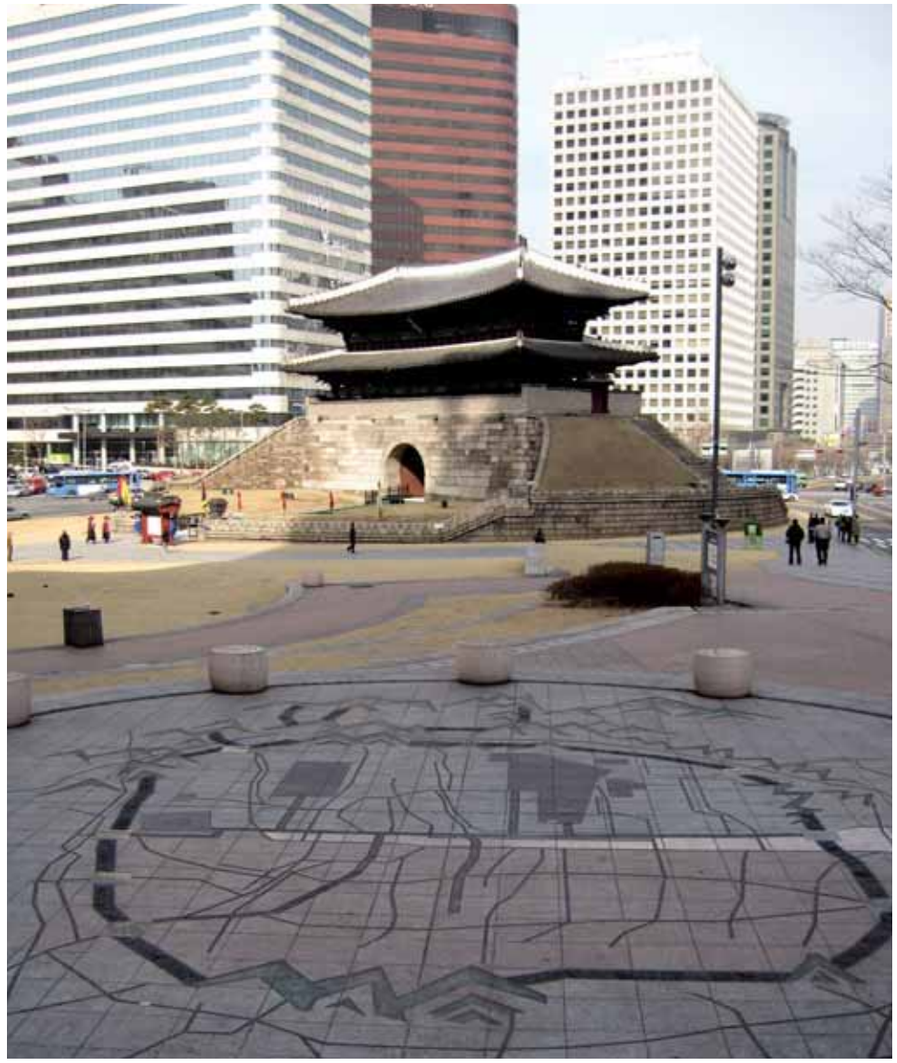
1904년경의 숭례문.

숭례문 현판

숭례문 현판의 글씨는 한양도성의 다른 성문과는 달리 세로로 쓰여 있다. 관악산의 불기운이 도성 안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판을 그렇게 세워 달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숭례(崇禮)'의 두 글자를 세로로 쓰면 글씨는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처럼 생겼는데, 이 불기운으로 관악산의 화기를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불은 불로써 다스린다는 원리가 숭례문 현판에 반영된 것이다.

한편 숭례문 현판의 글씨는 매우 힘 있는 필체로 쓰여졌다. 실제로 이 글씨는 조선 후기 최고의 명필가로 손꼽히는 추사 김정희도 감탄했다고 전하는 명필 중에 명필이다. 추사가 숭례문 앞에 서서 해 저무는 줄 모르고 현판 글씨를 바라보았다는 일화도 전해온다. 그렇다면 이 글씨를 과연 누가 썼을까?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조선 태종의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이 썼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을 포함한 조선시대의 많은 책들이 숭례문


2008년 화재사건 이전의 숭례문.

현판의 글씨를 양녕대군이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양녕대군이 쓴 것으로 알려진 숭례문 현판의 글씨는 실제로는 정난종(鄭蘭宗)이 쓴 것이라 적고 있다. 그런가 하면 추사 김정희는 『완당선생전집』에서 숭례문 현판의 글씨를 신장(申檣)이 썼다고 기록하였다.

복구된 숭례문 현판.

한편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숭례문의 현판을 썼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잡지였던 『별건곤(別乾坤)』에는 숭례문 현판이 안평대군의 글씨라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고, 중종 때의 명필가 유진동(柳辰仝)의 글씨가 맞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삼일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오세창도 『근역서화징』에서 숭례문 현판의 글씨가 유진동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

이처럼 의견이 분분하여 숭례문 현판 글씨를 정확히 누가 썼는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양녕대군이 숭례문 현판을 썼다는 믿음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양녕대군의 후손들은 자랑스러워했고, 그중 한 사람이었던 이승보는 고종 때 경복궁 영건도감제조를 맡으면서 이 글씨를 탁본해 두었다. 이후 이 탁본은 서울시 상도동에 있는 양녕대군 사당인 지덕사(至德祠)에 보관되어 왔는데, 2008년 방화로 훼손된 숭례문의 현판을 복원할 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런데 현판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탁본의 글씨와 숭례문 현판 글씨가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실제로 탁본과 현판의 글씨를 비교해보면 탁본의 글씨가 더 날카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덕사의 탁본과 실제 숭례문 현판의 글씨는 왜 달랐던 것일까? 그것은 한국전쟁 때 포탄 파편에 맞아 훼손된 숭례문 현판을 땜질식으로 수리하고 글씨에 덧칠 작업까지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훼손된 현판을 복원할 때 지덕사의 탁본을 적용해서 현판의 글씨체까지 새롭게 복구하였다.

숭례문의 낮과 밤 풍경.

2013년 5월 복구된 숭례문 전경.

숭례문 화재와 복구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은 화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이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방화사건 때문이었다. 부실한 관리체계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화재를 조기 진압하지 못하여 6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땅과 함께한 민족의 상징이 상층 90%, 하층 10%가 파괴되는 전무후무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목조문화재에 화재가 나면 완전히 타버리는 '전소(全燒)'를 면치 못했던 다른 사례에 비하면 불행 중 다행의 일이었다. 이는 문화재 방재 역사상 화재가 중간에 진압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화재 수습이 마무리된 2008년 5월 30일부터 복구를 위한 고증 및 발굴조사, 설계 작업이 추진되었다. 2009년 말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선정되었는데, 목공사를 담당할 대목장, 성곽 등 석공사를 담당할 석장, 단청작업을 담당할 단청장, 기와제작을 담당할 제와장, 지붕 기와잇기를 담당할 번와장 등이었다. 복구를 담당할 조직으로는 숭례문복구단을 구성하였다.

숭례문 복구의 기본 원칙은, 첫째 성문은 화재 전 모습대로 복구하고, 둘째 기존 부재는 최대한 재사용하며, 셋째 고증과 발굴을 통해 일제 때 철거, 변형된 좌우측의 성곽과 지반을 원형대로 복원하며, 넷째 중요무형문화재 등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가 참여하여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복구한다는 것 등이었다.

만 5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2013년 5월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온 숭례문은 기존에 없던 성곽이 좌로 16미터, 우로 53미터가 복원되었다. 용마루는 길이 15.7미터에서 16.8미터로 1.1미터 길어졌으며 동측 계단 폭은 2.9미터에서 5미터로, 지반 높이는 조선 후기 때와 같이 30-50센티미터 가량 낮아졌고 바닥에는 박석을 깔았다. 현판은 양녕대군 사당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덕사 소장 숭례문 현판 탁본자료와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을 토대로 일부 바로잡았다고 한다.

또한 홍예(아치형) 천장의 용 그림도 새로 그렸다. 안료는 인공 안료에서 전통안료로 대체하고 문양은 고증을 거쳐 조선 전기 것으로 그려 넣었다. 1층 잡상은 원래대로 8개에서 7개로 줄였으며 기와는 전통기와로 교체하였다. 1층 마루도 『조선고적도보』 등의 기록을 토대로 바꾸었는데, 1960년대 해체 공사 당시에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우물마루 형태로 설치했지만 해체 이전에 있던 긴 판재를 까는 장마루로 변경하였다.[9)]

2013년 5월 복원된 숭례문은 전통 기법 복원이 갖는 기술적 어려움과 완공 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일정 등으로 새로운 문제점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차후에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

남대문시장의 출발

남대문시장은 주변 상가까지 포함해 대지 면적만 4만 2,225㎡가 넘고 연건평 9만 7194㎡에 총 58개 동 10,000여 점포를 갖춘 서울 최대의 재래시장이다. 노점상에서부터 현대식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상점을 고루 갖춘 남대문시장은 업종도 의류 · 청과 · 식품 · 잡화 등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서울 풍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남대문시장의 역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 성문 주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장이기도 하였다. 한양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행정 도시였기에, 물자 대부분을 지방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점점 늘어나는 한양의 인구를 위한 생필품 수요가 증가한 것은 물론, 도성 내의 부유층을 위한 사치품 유통도 증가하였다. 인력과 물자가 출입하는 통로였던 성문 주변에 큰 시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북대문을 제외한 일곱 문 모두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활기가 넘쳤던 곳은 남대문과 동대문 주변이었다. 이들 성문 주위에는 아직도 서울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 남아 있다. 특히 남대문은 경기와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농수산물이 거쳐 가는 최대의 통로였다. 이곳의 풍경을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李德懋)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숭례문 밖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 십 리에 펼쳐진 강가의 창고엔 곡식이 가득하네.

안개 낀 파도 저 멀리 삼남의 배가 보이고
온 강에 빽빽한 돛배는 만 척을 헤아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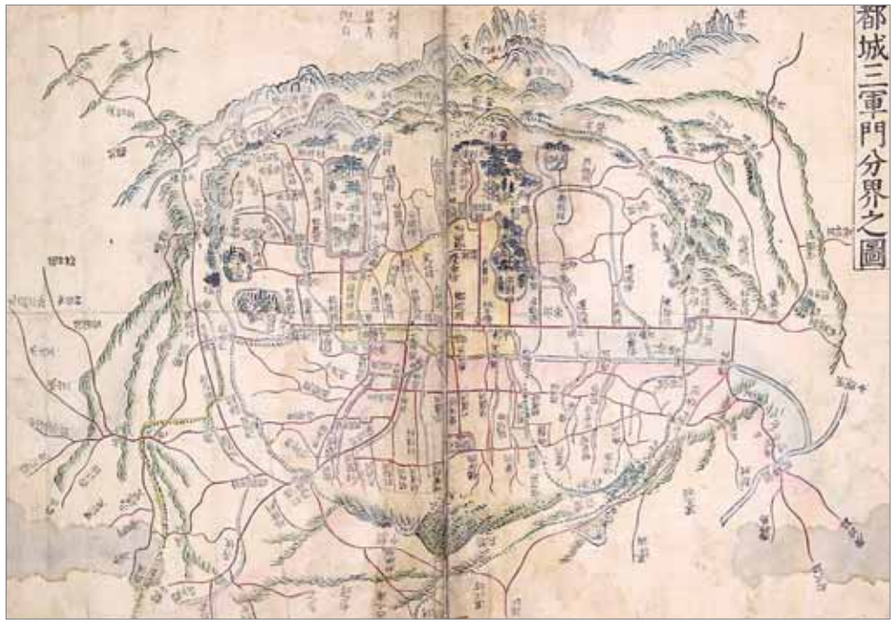
조선시대 세금으로 거둬들인 곡식의 대부분은 삼남 지방에서 올라왔다. 그 많은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한강 가에 죽 늘어서 있었던 것이다. 한양과 삼남을 오가는 배들이 저 멀리 한강변에 정박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선, 어선, 통행선, 유람선들이 한강을 빼곡히 메우고 있었을 것이다. 이덕무의 이 시는 조선 후기 들어 더욱 활기를 띤 남대문 바깥의 풍경이 잘 그려져 있어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10)]

조선 초기에는 나라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시전(市廛) 상인들이 국가에 일정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전매특권을 부여받았다. 그중 육의전(六矣廛)이라 불리는 특수한 상인 집단은 독점 상인으로 비단을 파는 선전, 무명을 파는 면포전, 명주를 파는 명주전, 종이를 파는 지전, 모시를 파는 저포전, 생선을 파는 어물전 등을 운영하였다. 이들은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된 이후부터는 국가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 경비를 부담하고 중국에 파견되는 각종 사절의 수요품 조달 등을 맡는 국역을 부담하였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 피폐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조세 수입이 줄어든 것도 문제였지만 현물이나 지방 특산물이 보존 기간이 지나 못쓰게 되는 것들이 많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고 부족한 조세를 확보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쌀로 납부하도록 하는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국가는 이렇게 모은 쌀을 필요한 물품과 바꾸어 썼는데, 이때 물건을 대신 납품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조선 초기의 정체된 시장의 모습이 점차 활기를 띄게 되었다.

대동법 이후 각종 물품의 거래 장소가 교통의 중심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이들 지역이 급속하게 상업 지역으로 변화해 나갔다. 때문에 더 이상 시전이나 육의전 체제가 지속되기 어렵게 되어 결국 점차 전매특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791년(정조 15년)의 신해통공(辛亥通共)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되었다.[11)]

조선 후기의 시전과 남대문시장의 전신인 칠패시장(1900년경).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地圖)」, 1751년경,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대동법과 칠패시장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18세기 중엽부터 신전의 설립은 상당히 규제되고 18세기 후반에는 칠패(七牌)와 같은 난전이 생겨 상업 경제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칠패는 배오개(梨峴)와 더불어 조선 후기 사상도고(私商都賈)의 대표적 근거지였다. 남대문과 서소문 사이에 있어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용이하였던 칠패는 용산 · 마포와도 가까워 어물의 유통이 손쉬웠다. 그리하여 많은 사상인들이 칠패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칠패의 주된 유통 상품은 어물이었다. 칠패 상인들의 상거래는 어물전에 비해 그 매매량이 10배나 되었다고 한다. 칠패 상인들의 이러한 활동은 정조 18년(1794)의 갑인통공(甲寅通共)에 의해 어물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12)]

오늘날 남지 표지석이 놓여 있는 곳에서 바로 보이는 길을 '칠패길'이라 하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곳에 시장이 섰고 그 시장 이름이 바로 칠패시장이었다. 그럼 왜 이곳의 시장 이름을 칠패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일대를 지켰던 부대가 금위영(禁衛營)

1920년대 경성 전차 안내도에 표시된 숭례문과 남대문시장.

에 소속된 '7패'였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한양도성을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삼군문(三軍門)이 지켰다. 도성의 북서쪽은 훈련도감, 북동쪽은 어영청, 그리고 남서쪽은 금위영이 맡았는데, 칠패시장이 들어선 곳은 도성의 남서쪽이었기 때문에 이곳 칠패길 일대를 책임지는 군문은 금위영이었다. 칠패는 한양도성의 정문인 남대문이 바로 옆에 있고, 당시 물화가 가장 많이 집산되었던 마포, 용산, 서강과 연결되기 쉬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외어물전인 서소문도 칠패와 가까웠으며 도성 밖이었으므로 시전상인들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남대문 밖 칠패시장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인 1608년(선조 41)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공(歲貢) · 세곡(稅穀) 등을 보관하고 포(布) · 전(錢) 등의 출납을 맡아보는 선혜청(宣惠廳)이 지금의 남창동 부근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남대문 밖 칠패에는 자연히 객사와 주막이 생기고 사상도고의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다. 개시 초기 주로 거래되었던 품목은 미곡 · 어류 · 과물 · 잡화 등

우리나라 최대의 전통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은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이었는데 미곡을 비롯한 곡물류가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고 한다. 1922년 조선총독부에서 행한 조사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거래액 중 농산물이 77%로 가장 많고 수산물이 5%, 기타 17%였다고 한다.[13)]

이렇듯 조선시대 남대문 인근에는 창고가 유난히 많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창고는 조선 후기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정부 물자를 보관하던 장흥고 등이 오늘날의 태평로1가, 정동, 남대문로3가 일대에 건립되었다. 앞서 논했던 선혜청 창고의 위치는 남창동 지역이었다. 관청의 창고뿐만 아니라 개인 창고도 조선 후기에는 많이 생겨났다. 한편 사상도고 또는 시전상인들이 보유한 창고는 보관 기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창고가 매점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사상도고의 매점 행위는 칠패, 한강변, 송파 등 도처에서 행해졌는데 그 토대는 창고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물가 변동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한다.

근대 이후의 남대문시장

칠패시장을 전신으로 한 남대문시장은 근대 이후 꾸준히 성장해갔다. 이러한 성장세는 일제 강점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922년 시장경영권이 일본인 회사인 중앙물산주식회사(中央物産株式會社)로 넘어가게 되어 명칭도 중앙물산시장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대문시장이라고 불렀다.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물러나자 상인들로 구성된 남대문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시장을 관리,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한국전쟁을 맞아 남대문시장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서울이 수복된 뒤에는 다시 시장이 형성되어 당시 피난민들의 생활 터전으로 큰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1953년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시장은 전소되어버렸고, 1954년 상인들에 의하여 서울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재정난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해산되었다. 그러다가 1958년에 이르러 대지 1만 2,000평, 건평 약 2,000평 규모의 건물이 다시 세워지고 1963년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대문시장의 주된 취급 업종은 처음에는 농산물이었지만, 지금은 의류 취급 점포가 많다. 특히 전국 기성복의 절반 정도를 공급하고 있어, 전국 최대의 의류도매상가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 주로 생식품류 취급상가,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외래품 취급상가, 공예품 전문상가,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시계회사의 대리점이 모여 있는 세칭 시계골목이 있어 싼 값에 시계를 구입할 수 있다.

남대문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상품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종다양한 상품이 팔리고 있어 우리나라 최고(最古)·최대의 종합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의류 및 잡화, 수입품의 전문 도소매 시장화를 통해 가능했다고 한다. 이처럼 남대문시장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실물 경제의 흐름을 대변하는 우리나라의 얼굴이 되는 시장이며, 서울의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다.[14)]

4. 숭례문 주변의 볼거리들

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

관광특구(觀光特區)란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안내 ·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993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도입되어 이듬해인 1994년 8월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등 5곳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시 · 도에 28곳이 지정되어 있다. 서울에는 명동 · 남대문 · 북창,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 · 청계, 잠실의 총 5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 명동 · 남대문 · 북창 관광특구와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가 중구에 속해 있어, 서울시에서도 중구 지역이 으뜸가는 관광 명소임을 알게 해 준다.

명동 · 남대문 · 북창 관광특구는 2000년 3월에 처음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12월에 확대 지정되어 다동 · 무교동 일대까지를 포함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 옆 도로(삼일대로)에서부터 시작해 퇴계로길을 따라 신세계백화점을 지나 남대문시장, 프라자호텔, 시청 앞, 청계광장, 광통교, 장교빌딩에서 다시 세종호텔까지의 도로 내에 있는 87만 2,809.2㎡(26만 4,025평)이다. 이곳은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서 지명도가 매우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관광특구로서의 기반 여건이 상당히 좋을 뿐 아니라 제반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 관광 쇼핑의 명소 지역이며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남대문시장 지역은 6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 · 최대의 재래시장으로서 국내외에 관광과 쇼핑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창동 지역은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하는 고급 숙박 시설들과 각종 음식점 및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한국 전통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한국의 맛을 찾는 외국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명동 · 남대문 · 북창 관광특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자 관광 쇼핑의 명소이다.

이들 관광특구에서는 해마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축제가 벌어지는데, 특히 2013년 가정의 달 5월에는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숭례문 복원에 맞춰 아동복 대축제와 비보이, 줄타기 공연, 패션쇼, 콘서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벌어지는 남대문 관광특구 대축제를 개최하여 그 뜻을 더했다. 또한 10월 북창동 음식문화거리에서는 북창동 관광특구 가을음식문화축제가 열려 유명 맛집의 음식 할인 행사와 함께 풍물놀이, 난타 등의 길거리 문화 공연이 어우러지는 장이 펼쳐졌다.[15)]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번지에 위치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돈에 관한 모든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전경.

것'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다. 조선총독부청사, 경성우체국, 경성역사, 조선호텔 등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전반부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한국은행 건물에 마련된 이 박물관은 2001년 6월 한국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처음 문을 열었으며, 2007년 전시 공간 확장에 따른 재개관에 이어 2012년 12월에는 '화폐금융박물관'이라는 명칭에서 현재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층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심 속의 체험교육을 위한 장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의 상설전시실은 테마에 따라 우리의 중앙은행, 화폐의 일생, 돈과 나라경제, 화폐광장, 상평통보 갤러리 섹션으로 나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도 3D 가상체험을 통해 각각의 전시물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중간층(MF)은 금과 화폐실, 화폐 기기실, 기증 화폐실로 나뉘어 상설 전시물이 전시되고 있으며, 2층은 모형금고, 한은갤러리, 세계의 화폐실, 체험학습실, 기획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한은갤러리에서는 연중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이 열리며, 기획전시실에서는 화폐와 문화 및 관련 주제의 기획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층과 2층에는 각기 흥미로운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이 직접 생생한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화폐와 경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다.[16)]

제1회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 행사 모습(2012년 10월).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주변의 은행나무 쉼터에서는 2012년부터 해마다 은행나무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서울시 지정보호수로 조선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동래 정씨 문익공 정광필의 집터에 있던 516년 된 은행나무에 얽힌 전설이 모태가 되어 시작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정광필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서대(犀帶) 열두 개를 은행

남대문 갈치조림골목.

나무에 걸게 되리라"고 하였다 한다. 서대는 종1품 이상의 관복에만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코뿔소나 물소의 뿔로 만들어 왕의 옥대 다음으로 귀히 여겼는데, 그 후 실제로 이 명당 터에서 12정승이 배출되었다고 전해진다. 바로 이 전설을 토대로 신령이 깃든 영험한 나무에 마을의 안녕과 뛰어난 인재 배출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이를 회현동만의 문화 축제로 만들어보자는 주민들의 염원이 은행나무 축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은행나무 축제에서는 신목제와 12정승 띠 두르기, 밴드 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2013년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는 10월 15일에 개최되었다.

남대문 갈치조림골목

남대문시장 안에는 갈치골목 또는 갈치조림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갈치조림 음식점들이 골목을 이룬 명물거리다.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골목은 숭례문 앞 숭례문수입상가 아치를 통과하여 걸어가다가 오른쪽의 골목길로 따라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 이 골목의 음식점들은 처음에는 칼국수와 만두 등을 팔다가 점차 생선 요리를 주 메뉴로 삼게 되었는데, 갈치조림과 함께 고등어나 동태조림 등 다른 생선 요리를 내놓아도 손님들이 유독 갈치조림을 선호하였다고 한다. 맛있는 갈치조림을 찾아 시장 사람들을 물론이고 인근 회사원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점차 '갈치조림골목'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방송 등 매스컴의 소개가 더해져 이 골목은 연중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또한 내국인뿐 아니라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이러다 보니 갈치 조리는 냄비는 1년에 한두 번은 갈아야 할 정도이다.

갈치조림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와 파, 마늘, 고춧가루 등인데, 맛의 차이는 양념과 조림국물에 있다. 어떤 집은 쌀뜨물을 국물로 쓰기도 한다. 주재료인 갈치는 부산, 여수, 목포, 제주산 갈치를 쓰는데, 어떤 집은 여수 갈치를 주로 쓰고 어떤 집은 제주 갈치를 선호하는 등 갈치를 공수해오는 지역도 다르다. 이처럼 비슷한 듯 다양한 갈치조림 맛의 매력에 이끌려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 골목에는 10곳의 음식점이 성업 중이며, 대표 메뉴인 갈치조림의 가격은 1인분에 7,000원이다.

제2장

남산, 서울 600년 역사를 굽어보다

1. 한양의 공간 구성과 남산
2. 일제강점기의 남산
3. 서울 전체를 조망하는 남산의 볼거리들

남산은 서울의 주산인 북악의 맞은편 남쪽에 동서로 가로놓여 있다. 또 그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른다. 남산은 조선시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궁궐 남쪽에 있는 안산이 되니 자리 잡은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라 하겠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목멱산(木覓山)은 곧 도성의 남산인데, 인경산(引慶山)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남산은 도성 남쪽에 있는 산이라는 일반화된 이름이고, 고유명은 목멱산 · 인경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우리말로 '마뫼'라 불리기도 하고 '종남산(終南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1. 한양의 공간 구성과 남산

서울의 안산(案山)인 남산

남산은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북쪽의 북악, 동쪽의 낙산, 서쪽의 인왕산과 함께 서울의 중앙부를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內四山)의 하나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을 때 남산은 풍수지리상 안산이자 남주작(南朱雀)에 해당되는 중요한 산이었다.

해발 265미터에 부드러운 선을 지닌 아담한 산인 남산은 서울 안에 있는 다른 산들이 대체로 봉우리가 뾰족뾰족한 바위산인 것과 달리 정상부가 나무로 뒤덮여 있어 아늑한 느낌을 준다. 동서로 약 2.7킬로미터, 남북으로 약 2.1킬로미터인 남산은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를 이루고 성동구의 왕십리 쪽으로 야트막한 꼬리를 내리고 있다.

남산은 서울의 주산인 북악의 맞은편 남쪽에 동서로 가로놓여 있다. 또 그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른다. 남산은 조선시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궁궐 남쪽에 있는 안산이 되니 자리 잡은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라 하겠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목멱산(木覓山)은 곧 도성의 남산인데, 인경산(引慶山)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남산은 도성 남쪽에 있는 산이라는 일반화된 이름이고, 고유명은 목멱산 · 인경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우리말로 '마뫼'라 불리기도 하고 '종남산(終南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1)]

목멱산이라는 명칭

『한경지략』에 "목멱산은 흔히 일컬어 남산이라 하는데, 마치 달리는 말이 안장을

「목멱산도(木覓山圖)」, 정선,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중구 충무로에서 바라본 남산과 N서울타워.

벗은 형상이고 산마루에는 봉수대가 마련되어 있다. 남산의 서쪽 봉우리 중에서 바위가 깎아지른 듯한 곳을 누에머리, 곧 잠두(蠶頭)라고 한다.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이 더욱 좋다"고 하였다. 『동국여지비고』에도 "목멱산은 곧 서울의 남산으로 일명 인경산이라 하며 도성이 지나간다. 인왕산 산맥이 나지막하게 남쪽으로 비스듬히 잇따라 뻗어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불쑥 일어난 것이 남산이 되었다. 한 기슭이 동쪽에서 큰 설마와 작은 설마 두 고개를 이루고 다시 왕십리고개에 이르러 동현을 이루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남산의 이름과 산경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2)]

남산을 다른 이름으로 목멱산(木覓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산 위에 목멱 신사(神社)가 있었던 데서 연유한다. 즉, 태조 4년(1395) 12월에 북산인 백악산 신을 진국백(鎭國伯), 남산의 산신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작하여 국가에서 제사를 받들게 하고 목멱대왕을 봉사하는 사당을 목멱신사, 이 신사가 있는 산을 목멱산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목멱신사가 도성의 남산 꼭대기에 있고 소사(小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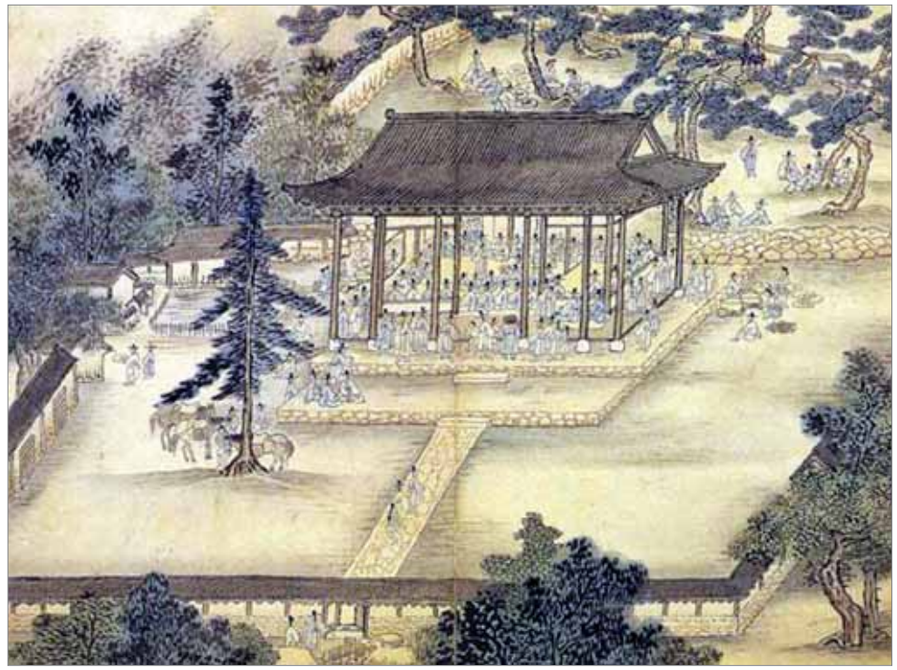
「한양도」(18세기)에 그려진 남산 일대.

제사 지낸다"고 하였다. 남산 꼭대기에 자리한 목멱신사를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사당이라 하여 일명 '국사당' 이라고도 하였다. 이 국사당 건물은 지금의 N서울타워가 있는 언저리 성벽 안에 자리하였는데 그곳에서 동쪽으로 50미터쯤 아래 숲 속에 성제수(聖齊水) 우물도 있었다고 한다.[3)]

한양천도와 남산

남산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조선의 개국과 함께였다. 1394년 한양천도 이전까지만 해도 남산은 한갓 작고 평범한 흔하디흔한 뫼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선의 도읍지로 되면서 역사의 중심 무대에 올려졌다. 조선 정부는 남산을 남쪽의 외적을 막는 자연의 방패로 삼아 태조 5년(1396) 1월에 1차로 18킬로미터의 도성을 쌓고, 다시 2차로 그해 8월에 보수하였다.

남산은 조선 초 태종 6년(1406) 12월부터 갑오개혁 때까지 500년간 국방의 중요



「남소영도(南小營圖)」, 김홍도,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한 시설인 다섯 곳의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의 봉수를 받아 국경이나 해안의 이상 유무를 병조(兵曹)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어영청의 분영인 남소영과 금위영의 분영인 남별영이 남산 기슭에 자리하여 남산 일대를 무예훈련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또한 남산은 일찍부터 자연 보호가 이루어졌다. 태종 15년(1415) 봄에 서울 주변의 산에 송충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심각해지자, 한성부에 명해 송충이 제거에 나서도록 하고 이때를 전후하여 사산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였던 것이다. 당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공조에 속해 있었는데 사산에 입산금지표를 세우고 벌목과 채석 등을 금하게 하였다. 아울러 병조에서는 나무를 재배하고 가꾸는 감역관과 산지기를 채용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남산 등 한양을 둘러싼 사산에는 소나무가 무성하게 되었고 갖가지 짐승들이 번성하였다. 그리고 국초부터 남산은 금송(禁松) 지구로서 아무도 소나무를 베지 못하였다.[4)]

「목멱조돈(木覓朝暾)」, 정선, 1741년, 간송미술관 소장. 한강에서 바라본 남산 일출 풍경을 그렸다.

백성들이 즐겨 찾다

남산은 주위 풍경이 아름답고 친근감을 주어 한양에 살았던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은 산이었다. 한양을 둘러싼 다른 산들이 모두 바위산이고 경사가 급한데 비하여, 남산은 비교적 등반길이 수월하고 주위가 수림으로 둘러싸여 사시사철 풍경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산을 유람하는 사람이 항상 끊이지 않았으며, 산간계곡의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즐기기도 하였다.

때로는 산마루에 올라 도성의 전모는 물론 남 · 서쪽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을 굽어보며 즐기기도 하였다. 단오절 같은 서민의 명절이 되면 도성의 장정과 소년들이 남산 중턱의 잔디로 덮인 예장(藝場 : 군사훈련장)에 운집하여 씨름대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남산은 정도 초기부터 '목멱상화(木覓賞花)'라 하여 꽃구경으로 유명했으며 사시사철 남산의 승경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2. 일제강점기의 남산

남산의 수난과 일제

남산은 조선시대 이래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많은 수난을 겪은 산이기도 하다. 조선 초에 선린외교 관계상 오늘날의 중구 인현동 근처에 일본 사신이 머무는 동평관이 마련되었다. 그 후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군은 현재의 웨스틴 조선호텔 자리인 남별궁에 지휘부를 마련하고 남산 북쪽 사면인 예장동의 왜성대 부근에 왜군 1,500여 명이 진을 치고 왜성을 쌓기도 하였다.

19세기 말 일본 세력이 서울에 들어오면서 남산은 또다시 일제의 군홧발에 짓밟히게 되었다. 1894년 갑오농민군의 봉기를 구실로 출병한 일제는 서울 남산 등에 군대를 주둔하고 왕궁을 표적으로 포대를 설치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려 하였다. 강압적인 위협 아래 남산 노인정에서 양국 대표가 회담을 가졌으나 끝내 결렬되었고,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위협하여 조선 침략을 가속화하였다.

한편 남산의 북쪽 사면은 비가 오면 흘러내린 물이 넘쳐 주위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는 열악한 땅이었다. '진고개'라 불리기도 한 이 지역은 권세 있는 양반들의 거주지로는 적당하지 않았다. 개항 이후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일제는 비교적 접근하기 용이한 이곳에 터를 잡았다.

한성조약(1885)에 따라 일본인들의 도성 내 거류가 공식 허용되자 진고개 일대는 점차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되었다. 지금의 예장동 일대, 예부터 속칭 '왜장대'라 불려온 지역이 바로 그곳이다. 임진왜란 때 이 일대가 일본군의 주둔지였고, 속칭 왜장터라 불리는 것을 왜장(倭將) 또는 왜성(倭城)과 관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남산 자락에 주둔한 일본군(1904년경).

일본인들이 '왜성대(倭城臺)'란 이름을 붙였지만, 실은 조선시대 영문(營門) 군졸들의 무예 연습장이었기 때문에 예장(藝場)이라 불리던 것이 음이 바뀌어 '왜장'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5)]

경성신사 터

경성신사(京城神社)는 1898년(고종 35) 11월 한성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일본 이세신궁에 있던 신체 일부를 가져와 남산 왜성대에 세운 신사이다. 처음에는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으로 불렸으나, 1913년 5월 경성신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1929년 9월 10만 원의 돈을 들여 서쪽 50미터 지점에 신사를 다시 짓고 천좌식(遷座式)을 올렸다. 1930년 9월 경성부는 1907년 10월 방문한 일본 황태자 요시히토(嘉仁, 다이쇼천황)가 왜성대공원 갑오전역기념비 부근을 둘러본 것을 기념하는 비석을 경성신사 경내에 세웠다. 1936년 8월에는 조선총독부가 관리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국폐소사(國幣小社)로 격상되었다. 경성신사는 활쏘기 대회 등 일본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기도 하여, 그들의 전통을 잇는 역할을 했다.

한편 경성신사 경내에는 일제의 러일전쟁 영웅인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를 기리는 노기신사(乃木神社)도 있었다. 독일에서 군제와 전술을 공부하고 돌아온 노기는 청일전쟁 당시 보병 제1여단장으로 출정했고, 1896년 제3대 타이완 총독으로 부임했으며, 러일전쟁에서는 제3군 사령관으로 뤼순을 공략했다. 1907년에는 가쿠슈인(學習院) 원장을 역임했고 자신을 신임하던 메이지 천황이 죽자 장례일에 부인과 함께 자결했다. 일본군 최고의 지도자로서 살아 있던 당시에도 '해군의 도고, 육군의 노기'라고 추앙받았다. 노기신사는 1933~1934년에 세워졌는데 조선의 각 지방 유지들에게 후원금을 거두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반강제적인 성금을 거두어 조성하였다고 한다.[6)]

경성신사가 있던 위치는 중구 예장동 8-3번지 숭의여자대학, 리라아트고등학교, 사회복지법인 남산원 등이 자리한 지역이다. 이곳에는 경성신사와 관련한 다양한 물적 증거 또한 남아 있다. 현재 남산원 한쪽에 놓여 있는 미타라이샤(手水舍)가 대표적이다. 미타라이샤는 참배하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 두는 수조다. 남산원 뜰

일제강점기의 경성신사.

에 놓여 있는 기묘하게 생긴 돌 탁자도 경성신사와 관련 있는 유물이다. 이 돌 탁자는 본래 일본 신사의 배전에 놓여 있던 '카스가 도로(春日燈籠)'였는데 받침 부분을 뒤집어 탁자로 쓰고 있다. 숭의여자대학과 남산원 곳곳에 산재해 있는 오래된 석재를 이용해 만든 스탠드, 화단 등의 구조물에서도 신사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석재들에서 다양한 직업의 일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 경성신사에 시주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것이다. 지금도 가이드북을 든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일제를 견제하기 위해 세운 와룡묘

중구 예장동 산 5-6번지에는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5호인 와룡묘가 자리 잡고 있다. 와룡묘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인 제갈공명을 모시는 묘사(廟祠)이다. 대한제국기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엄씨가 세웠다는 설이 전한다. 그런데 왜 남산 중턱에 제갈공명을 모신 사당을 세운 것일까?

18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선 정부는 남산 중턱의 고지대에는 왕궁을 엿본다는 이유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청일전쟁 후 남산 북쪽 기슭에까지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1898년에는 왜성대 근처에 경성신사까지 세워졌다. 이에 고종은 일본의 세력권이 남산 북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와룡묘를 세웠다. 1897년(고종 34)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고종은 후한시대 영웅들을 모시는 사당을 많이 세웠다. 종로구 숭인동에는 관우를 모시는 동묘(東廟)를, 경희궁에는 유비를 모시는 서묘(西廟)를 세웠다. 또한 일본 세력이 남산의 동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00년에는 장충단을 만들었다.

1897년 고종 황제가 사용한 연호는 '광무(光武)'였다. 중국 역사에서 광무를 연호로 사용한 이는 후한(後漢)의 유수(劉秀) 광무제(光武帝)밖에 없다. 광무제는 유(劉)씨의 일원으로, 한고조(漢高祖)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한은 서기 9년 황실의 외척인 왕망에 의해 멸망하고 신(新)나라가 세워졌다. 이때 멸망한 한을 역사에서는 전한(前漢)이라 한다. 서기 22년 왕망의 급진적인 정책으로 신나라의 평판이 나빠지자, 한고조의 후예인 유수는 곧 군대를 일으켰다. 유수는 23년에 왕망을 격파하고 수도를 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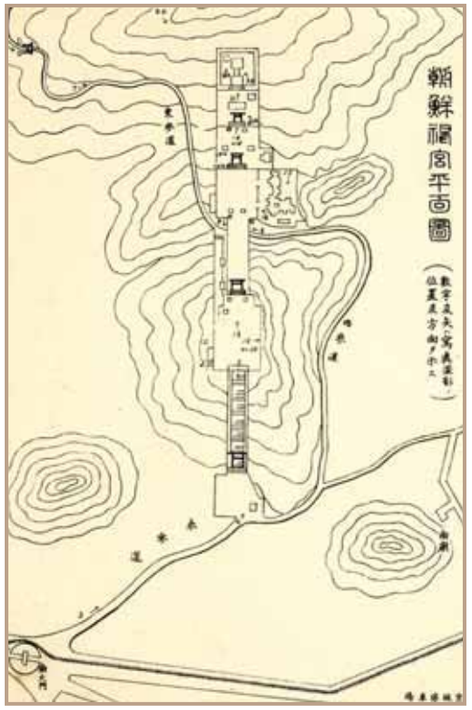
대한제국 시절 일제를 견제하기 위해 세운 와룡묘.

양(洛陽)으로 옮겨 스스로 황제임을 선포하고 한을 재건하였다. 이를 역사에서는 후한(後漢)이라 한다. 유수는 이후 10년간 통치권을 강화하고 적미(赤眉)의 난을 비롯한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는 한편, 북쪽 유목 민족을 진압하고 남쪽 변방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는 업적을 이루었다.[7)]

이렇듯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스스로 황제에 오른 고종은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한나라를 다시 일으킨 유수와 같은 인물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담았던 것이다.

조선신궁터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동안 전국 각지에는 많은 신사가 세워졌다. 이 신사들은 해방 직후 모두 파괴되었다. 조선신궁(朝鮮神宮)은 그중 우두머리 격의 신사였다. 일제의 신사에서 제신(祭神)과 더불어 중요시되는 것은 신사부지인 진좌지(鎭坐地)였다. 당시 조선신궁의 진좌지 후보로 경남 방면, 충남 부여, 경성 등이 꼽혔는데, 결국 경성으로 결정되었다. 경성이 선정된 것은 한반도 통치의 중심지로서 조선



일제강점기 조선신궁 평면도.

신궁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일본인의 참배가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경복궁 신무문 밖 북악산 기슭이 고려되었으나, 경성 시가의 중심이 북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이유로 1915년 후보지를 남산 왜성대공원(남산공원)으로 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신사 건축의 대가이자 메이지신궁(明治神宮)의 조영(造營)을 감독한 이토 주타(伊東忠太) 동경제국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조선신궁을 설계하게 하였다. 그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의 건축 양식인 신메이즈쿠리(神明造) 양식을 변형하여 설계하였다. 1920년 본전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선신궁 조영을 시작하여 1924년 4월 3일에는 상량제(上樑祭)를 집행하였다.[8)]

조선신궁은 경성 서북쪽을 향한 장방형 건물로, 주요 건물이 있는 상중하 3단의 공간과 세 개의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단(본전)의 공간과 광장은 현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및 옛 식물원 자리, 중단의 공간과 광장은 현 백범공원 자리, 하단의 공간과 광장은 김유신 동상이 있는 광장 부근에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신궁에 진입하는 도로도 새로 만들었다. 신궁으로 통하는 길을 산도[參道]라 하는데, 남대문 사거리에서 남산 쪽으로 오르는 정면 도로인 오모테산도[表參道]와 하얏트호텔 쪽으로 이어지는 남산순환도로가 이때 만들어졌다. 당시엔 숭의여대 쪽 길을 히가시산도[東參道], 하얏트호텔 쪽 길을 니시산도[西參道]라고 불렀는데, 힐튼호텔과 숭의여대 쪽으로 갈라지는 삼거리(하광장)에 대형 '도리이[鳥居]'가 서 있었다.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한 것은 1930년부터였다. 이는 1936년 8

일제강점기의 조선신궁.

월 신사 규칙을 개정한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정하고 신사 참배를 비롯하여 궁성요배, 히노마루(일장기) 게양,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근로 봉사 등을 월례 행사로 강요하였다. 조선신궁의 참배자 수는 1936년에 연간 100만 명을 넘고, 1940년에 215만 명, 1942년에 265만 명으로 증가했다. 일제는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라는 논리로 다른 종교의 신자들에게까지 참배를 강요했다.[9)]

조선신궁의 배전과 본전이 있던 남산 분수대와 옛 식물원 자리에는 한때 이곳이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임을 전하는 유일한 흔적이 남아 있다. 본전 앞에 세워진 비문을 받쳤던 농대(壟臺)가 그것이다. 이 농대는 화초에 가려져 찾기가 어렵지만, 서울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고 있다고 한다.

3. 서울 전체를 조망하는 남산의 볼거리들

N서울타워

서울타워는 남산공원의 정상에 있는 서울남산전파탑으로 일명 남산타워라고도 한다. 대지 8,456㎡에 연건평 3,986㎡이며 해발 479.7미터, 탑 자체 높이 243.0미터로 세계에서 모스크바타워(해발 537미터) 다음으로 높은 탑이다. 1969년 8월 동양 · 동아 · 문화방송 등 3개 민영방송국이 공동으로 종합전파시설 및 관광전망대 시설 허가를 받아 그해 12월에 착공, 1975년 8월에 완공하여 1980년 10월부터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2005년 4월부터 전면 개설공사를 진행하여 'N서울타워'로 재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웃하여 있는 팔각정과 놀이터 · 식물원 · 케이블카 등과도 연결되어 관광지로 최적지를 이룬다. 입구에서 24인승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발 355m 높이의 2층에 오르고 3~5층은 계단으로 오르는데 3층 전망대에서는 360도 파노라마부로 서울의 전경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10)]

남산봉수대

남산 정상부에는 새롭게 복원된 봉수대가 있다. 봉수제란 봉(烽: 횃불)과 수(燧: 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 통신의 한 방법이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신호를 하는 것인데, 동 · 서양을 막론하고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수도 한양에는 목멱산(남산)에 5개의 봉수대가 있었다. 이 5개의 봉수대는 경봉수(京烽燧)라 불렸으며, 전국의 봉수대와 연결되었다. 무악에도 동쪽과

남산 봉수대는 평안도와 황해도 방면으로부터 봉수를 주고받았다.

서쪽에 각기 1개씩 봉수대가 있었다. 두 개의 봉수대 중 동쪽의 봉수대가 복원되어 서울특별시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봉화산 봉수대는 일명 아차산 봉수대라고도 하는데,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아차산 봉수대는 1994년에 복원되어 서울특별시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남산에 복원되어 있는 봉수대는 제3봉수대에 해당된다. 그러면 나머지 4개의 봉수대는 어디에 있었을까? 『세종실록』에는 남산 봉수대 설치와 운영에 대해 적혀 있는데,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은 이 기록에 근거해 제1봉수대는 남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로서 현재 미군 통신부대가 들어선 곳에, 제2봉수대는 남산 팔각정 맞은편으로 측량기준점인 2등 삼각점 일대에, 제3봉수대는 현재 복원된 봉수대 자리에, 제4봉수대는 케이블카 정류장 아래 평탄지에, 그리고 제5봉수대는 옛 남산식물원 일대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11)]

제1봉수대는 함경도, 제2봉수대는 경상도, 제3봉수대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내

1900년경의 석호정 풍경. 본래의 석호정은 현재 위치보다 아래쪽에 있었다.

륙, 제4봉수대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해안, 제5봉수대는 전라도 방면의 봉수를 받았다.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1개의 봉수를 올리고 위급한 정도에 따라 3개까지 봉수를 올렸다고 한다.

제1봉수대 : 양주 아차산과 연결(함경도 · 강원도 방면)
제2봉수대 : 광주 천림산과 연결(경상도 · 충청도 방면)
제3봉수대 : 무악 동봉과 연결(평안도 강계 · 황해도 방면)
제4봉수대 : 무악 서봉과 연결(평안도 의주 · 황해도 방면)
제5봉수대 : 양천 개화산과 연결(전라도 · 충청도 방면)

백성들의 활터였던 석호정(石虎亭)

석호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에 있는 정자이다. 남산 중턱에 위치하며 남산국립극장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황학정이 조선시대의 왕과 문무백관들이 활을 쏘던 곳이었던 것에 반해 민간인들이 주로 활을 쏘던

국사당이 있던 자리를 알리는 표지석. 목멱산이란 남산의 본래 이름은 국사당인 목멱신사로부터 유래되었다.

곳이었다 한다. 조선 인조 때(1630년) 처음 만들어진 유서 깊은 활터인 석호정은 본디 산 아래쪽에 있었으나, 1970년 현 위치로 옮겨 복원했다.

조선말까지 서울에는 40여 곳의 활터가 있었으나,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8곳이 남아 있다. 이 중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황학정 · 수락정 · 살곶이정 · 석호정 등 5~6곳 정도이다. 석호정은 그간 회원제로 운영돼왔으나, 최근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방식을 바꾸고 대중화를 선언하였다. 회원제를 폐지해 비싼 입회비 없이도 누구나 찾아와 국궁을 배우고 쏠 수 있다. 1회 이용료 3000원, 월 이용료 3만원이다.[12)]

국사당 터

봉수대 앞에는 '국사당 터' 표지석이 있다. 지금은 국사당이 인왕산 선바위 아래로 옮겨졌지만, 본래 이곳 남산에 있었다. 1925년 일제가 남산에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쫓아내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N서울타워가 세워지면서 끊겼던 성곽은 팔각정을 둘러싸고 다시 이어지면서 숭례문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이 성곽을 따라 계단길이 꾸준히 이어진다. 이 길을 내려가다 보면 곧 케이블카 정류장을 만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잠두봉에 '남산 포토 아일랜드'가 있어 서울 도심을 가까이에서 넓게 바라볼 수 있다.

안중근 의사기념관

1909년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독립 운동가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으로, 남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1970년 10월 지금의 위치에 개관하였다가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짐에 따라 구 건물을 철거하고 2010년 10월에 새 기념관이 개관하였다. 새 기념관은 대지 5,772㎡에 연면적 3,759㎡(약 1,200평)의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이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지하 2층에는 192석 규모의 강당이 있고, 지하 1층에는 안중근 의사의 대형 좌상이 있어 입장 시 참배하는 곳이자 각종 기념식,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종합 공간인 중앙홀과, 안중근 의사에 관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종합영상실, 기념품 판매소가 있으며, 안중근 의사의 말씀 80자를 한 자 한 자 그려 넣은 설치미술작품인 「대한국인 안중근」도 감상할 수 있다. 역시 지하 1층에 위치한 제1전시실은 '민족의 등불 안중근', '안중근 의사와 시대적 배경', '안중근 의사의 출생과 가문의 독립운동'이라는 테마로 꾸며져 있다.

1층의 제2전시실은 천주교와 국내 활동, 해외 활동과 의병 투쟁, 동의단지회라는

백범 김구 선생 동상과 광장.

주제별로 나뉘어 안중근 의사의 족적을 살펴볼 수 있다. 2층에는 제3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체험전시실, 추모실이 자리하고 있는데, 제3전시실에서는 하얼빈 의거와 법정에서의 투쟁, 옥중에서 남긴 글, 그리고 순국까지의 일대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료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옥중유묵을 상설전시하고 있으며, 체험전시실에서는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 쓰기, 유묵 스탬프 찍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모실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는 공간이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주위로 안중근 의사 동상과 안의사 충의비 및 여러 어록비가 건립되어 있어, 그의 자주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가와 민족의 참의미를 곱씹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을 이루고 있다.[13)]

백범광장

백범광장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백범 김구 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남산 북쪽 사면에 1968년 8월 23일에 개설되었다.

김구는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해주에서 갑오농민전쟁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쫓겨 1895년 만주로 피신, 의병단에 입단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 · 내무국장 · 국무령을 역임하였으며,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당수가 되어 항일 무력활동을 지휘하였다. 1944년 임시정부 주석에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1945년 8 · 15 광복으로 귀국하여 반탁운동 등을 벌였으며,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고 중도파의 거두로 일하였다.

이곳 광장에는 4 · 19혁명 때 철거된 이승만 동상 대신에 백범 동상이 서 있으며, 그 외에 말 탄 김유신 장군의 동상과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의 앉아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제3장

청계천,
역사와 함께 흐르다

1. 한양의 공간 구성과 청계천
2. 조선시대 청계천 일대의 사회경제사
3. 근대 이후 청계천 일대의 변화
4. 청계천의 복원과 친환경 도시 개발
5. 청계천 주변의 볼거리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가르는 것이 한강이라면, 청계천은 조선시대 한양을 남촌과 북촌으로 나누는 경계였다. 대대로 한양의 권력과 부를 누리며 풍족한 생활을 한 북촌의 권문세가와 달리 남촌에는 주로 서민과 중인, 몰락한 양반층이 살았다. 오늘날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청계천은 서울의 오아시스라 불리며,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청계광장은 청계천 진입공간으로 삼색 조명이 어우러진 촛불 분수와 4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2단 폭포가 있다. 밤이면 불빛과 물이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연출한다. 각각의 특색을 살린 22개의 다리와 청계천 전 구간을 100분의 1로 축소한 미니어처도 볼만하다.

1. 한양의 공간 구성과 청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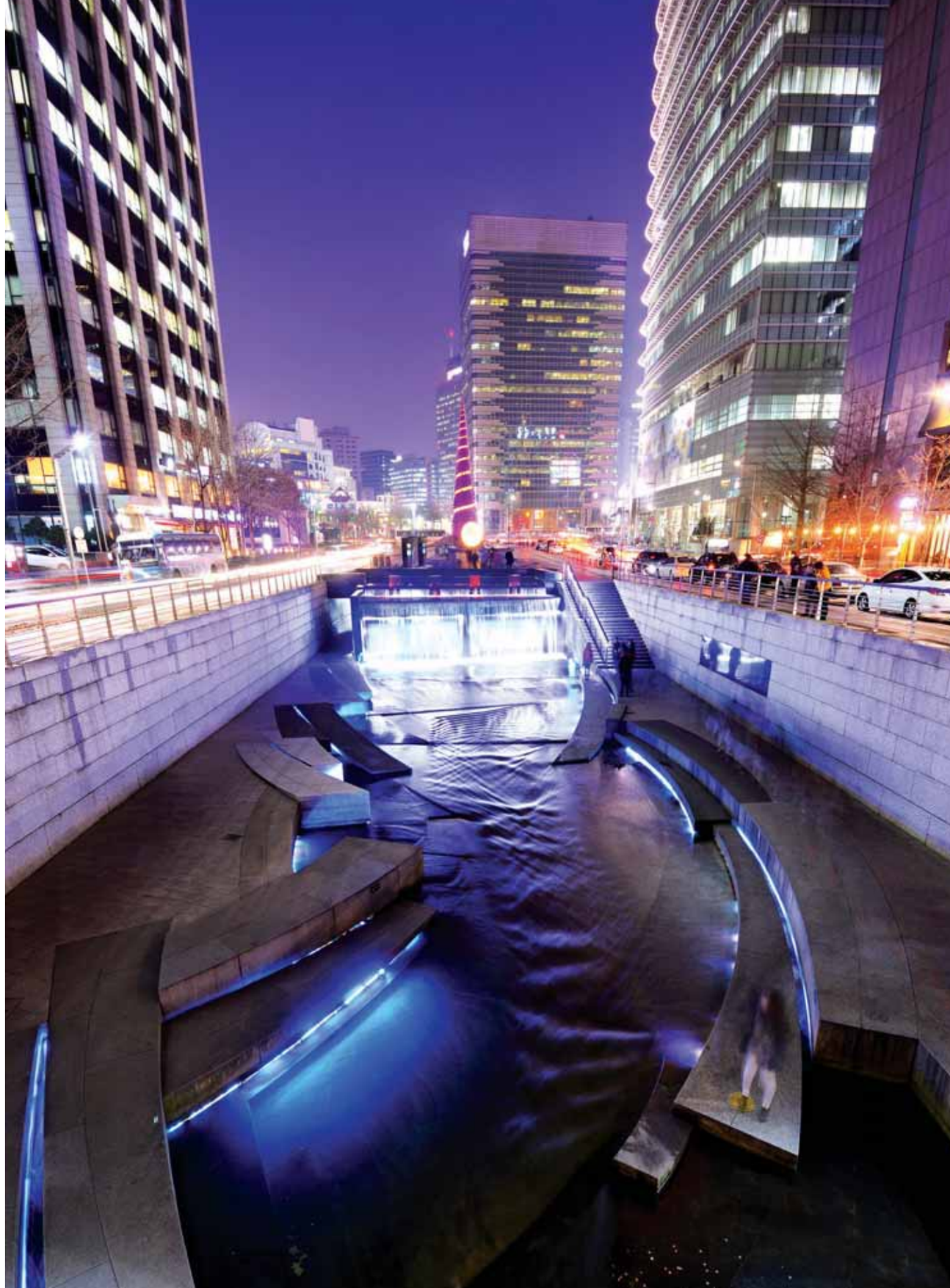
서울을 관통하는 명당수

청계천은 경복궁 서북쪽에 위치한 백운동에서 발원하여 백악, 인왕산, 남산, 매봉 등지에서 흘러내린 물길이 합류, 서울 도심부를 관통한 다음 중랑천에 이르는 길이 13.7킬로미터의 하천이다. 청계천의 본래 이름은 개천(開川)이었다. 한양이 조선의 도읍지로 결정된 이후로 자연 하천을 보수하면서 개천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청계천이란 이름은 백운동 계곡의 물줄기를 청풍계천(淸風溪川)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청계천은 평소에는 깊이가 얕고 폭이 좁은 하천이었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이 되면 자주 범람하여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조선의 역대 왕들은 청계천 치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시대에 청계천은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주된 목적은 홍수로 인한 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태종은 최초로 도성을 관통하여 흐르는 개천을 준설하였는데, 태종 11년에 개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를 위해 개천도감(開川都監)이 설치되고 52,800명의 인원을 동원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어 청계천은 자연하천에서 개천으로 탈바꿈하였다.[1)]

이후 세종 연간에도 한성부사가 도성의 개천에 물이 막히는 원인과 대비책을 조목조목 상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한성부사는 태종 때 완성하지 못한 개천의 하류와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지류에 대한 준천 공사를 실시할 것과, 지대가 낮아 침수가 잘 되는 종루 지역은 별도의 물길을 뚫어 배수가 잘되게 하고 큰비에 자주 떠내려가곤 하는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바꿀 것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개국 초에 실시했던 개천의 준설 공사가 다시금 대규모로 시행된 것은



영조 연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이는 수년간 지속된 기근으로 인해 지방 유민들이 상경하여 한양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이 도시빈민화 되어 개천 주변에 살면서 개천이 하수구로 더럽혀지고 토사가 쌓여 범람 위험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이때 연인원 20만 명이 동원되어 57일간 개천의 폭을 넓히고 양변에 석축을 쌓고 수로를 직선화하여 현재의 청계천 수로의 원형을 만드는 대규모 역사가 이루어졌다. 청계천 준천을 마친 영조는 자신의 치적의 하나로 이 역사를 꼽고 "개천이 모두 소통되고 천변의 백성들이 편안해졌다(川渠皆通川民安)"고 자평하였다 한다.[2)]

북촌과 남촌을 가르다

오늘날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가르는 것이 한강이라면, 청계천은 조선시대 한양을 남촌과 북촌으로 나누는 경계였다. 대대로 한양의 권력과 부를 누리며 풍족한 생활을 한 북촌의 권문세가와 달리 남촌에는 주로 서민과 중인, 몰락한 양반층이 살았는데, 현재의 을지로와 청계천 사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남산에서 뻗은 크고 작은 구릉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울창한 남산 숲에서 발원한 창동천, 남산동천, 주자동천, 필동천, 묵사동천, 쌍리동천 등의 자연하천이 흘러 장마 때마다 범람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지 때문에 청계천 주변과 그 남쪽에는 관청의 하급 관리나 잡역부, 상점 점원, 과거 시험에 낙방한 지방 유생, 경제적으로 몰락하거나 권력에서 밀려난 양반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중인 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군상들이 여러 직업군을 이루며 여기에 모여 살았고, 이들의 경제 사정 또한 천차만별이었다. 조선시대 중인은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 계급에 속한다. 중인은 중앙과 지방의 기술 관료, 서얼, 중앙의 서리와 지방의 향리, 토관(土官), 군교, 교생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였다.

청계천 주변에 살았던 중인

서울에 살던 중인으로는 중앙관청의 기술 관료인 역관 · 의관 · 지관 · 천문관 · 산관 · 화원 · 율관을 비롯해 서리와 서얼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청계천 일대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어 광통교와 광교 일대를 흔히 중인촌이라 부르기도 했다. 청계천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지기 전의 수표교와 옛 자리에 새로 만들어진 수표교.

일대는 중앙 관서와 가깝기 때문에 하급 관리가 출퇴근하기에 편리한 이점이 있었다.

역관은 오늘날의 동시통역사고, 의관은 의사이며, 지관은 풍수지리와 지리학에 능통한 사람이다. 천문관은 별자리를 관찰하는 사람이고, 산관은 수학자이며, 화원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서얼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말한다. 대부분 전문직에 종사했으며, 서얼만 예외였다. 이들은 각기 시험 과목이 다르지만 모두 과거 시험 가운데 잡과(雜科)를 거쳐 관리로 선발되었다.

중인 중에도 외국에 다닐 수 있는 역관이나 병자를 고치는 의관은 다른 관리보다 대우가 조금 나았다. 사역원에 소속된 역관은 중국이나 일본에 가는 사신단과 동행해 국제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내의원이나 혜민서 등에 소속된 의관은 왕족이나 양반의 병을 치료할 경우 일정한 부와 명성이 뒤따랐다. 그러나 병을 고치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 위험도 감내해야 했다.

조선시대의 중인은 주로 행정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언행은 세련되고 생활은 깔끔했으며 대인 관계에 밝았다. 생활양식뿐 아니라 그들이 쓰는 문서 양식도 따로 있었으며, 시문도 독특해 중인 문화라고 할 만한 생활 규범을 갖추고 있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차별을 받았다.[3)]

2. 조선시대 청계천 일대의 사회경제사

관영 수공업장의 설치

국초부터 청계천 이남인 남촌 지역에는 각종 관영 수공업장이 설치되어 국가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조했다. 공장(工匠)이라 하여 정교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소속시켜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조하게 하였다.

조선시대 청계천 주변과 남촌 지역에 위치한 관영 작업장에는 군기시 · 교서관 ·

『해동제국지도』 중 「왕성도」(179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에 표시된 청계천의 지류들.

「도성대지도」(18세기 후반)에 표시된 청계천 부근과 군기시(위).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건축 과정에서 발굴된 군기시 유적(아래).

예빈시 · 장악원 · 장흥고 · 주전도감 등이 있었다. 특히 644명이 등록되어 있던 군기시(軍器寺)는 전국에서 제일 큰 작업장이었다고 한다. 군기시는 지금의 태평로1가 일대인 서울특별시청과 서울신문사 자리에 있었다. 최근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군기시를 비롯한 조선시대 건물지 유적과 유물이 대규모로 발굴되어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민영 수공업의 발달

관영 수공업장에서 제작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상품 교환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나, 관영 수공업장에서 발달한 기술과 분업화한 제작 공정은 민영 수공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품의 상품화가 추진되었다. 16세기 중엽에는 민간 수공업자들이 품삯을 받고 관영 수공업장에 고용되어 물건을 제작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또 대동법이 시행되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공인이나 시전에서 쉽게 조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품화폐경제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청계천 남쪽 구역에는 많은 민간 수공업자들이 활동하게 되었는데 주로 시전이 있는 광통방, 대평방, 훈도방 주변과 칠패장이 열리던 남대문 밖이 그 중심이었다. 무교동의 도자동(刀子洞)은 장도, 식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태평로1가의 쳇골에는 체를 만드는 집이 많았다. 장교동의 청계천변에서는 모자, 신 등을 주로 만들었고, 입정동 일대에는 장롱, 마구 등을 제작하였다. 의주로2가와 쌍림동, 묵정동, 풀뭇골에서는 철물을 제작하였는데 주로 농기구를 생산하였다.[4)]

시전행랑의 설치

조선왕조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종로 일대에 운종가라고 하는 시전을 설치했지만 광통교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남대문로 주변에도 시전행랑을 조성하였고, 청계천변의 광통방, 대평방, 훈도방에도 장시를 개설토록 하였다. 도로가 개설되어 물화의 교류가 용이했고, 주거지화가 되면서 많은 소비 인구가 형성되었으며,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이 지역에는 상업 인구가 밀집되어 상업 지역으로 변모해 갔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자 한양은 점차 상업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운종가라 불리었던 종로에서 그 경향이 강했으나, 19세기 말 이래로는 남촌 지역의 상업화가 종로 지역을 능가하였다. 그 역사적 배경에는 일찍이 남촌 지역에 설치되었던 시전과 난전(亂廛)이 있었다. 남촌 지역에 시전이 설치된 것은 태종 14년 7월 제4차 공사 때로서 종루에서 남대문까지의 도로 양편에 행랑을 건설한 것이다. 시전행랑은 상설상가와 같은 것이었다.

「대장간」, 김득신, 18세기, 간송미술관 소장.

시전의 활동 구역이 넓어진 때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인데 농업과 수공업에서 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구의 유입 현상이 심화되면서 화폐와 상품의 유통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시전이 남촌 지역에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신전(新廛)은 도성 내에서는 대광통교 이남의 청계천 연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18세기 이후 남촌 지역에서 활동한 시전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면 주로 광통방, 대평방의 전역과 명례방, 훈도방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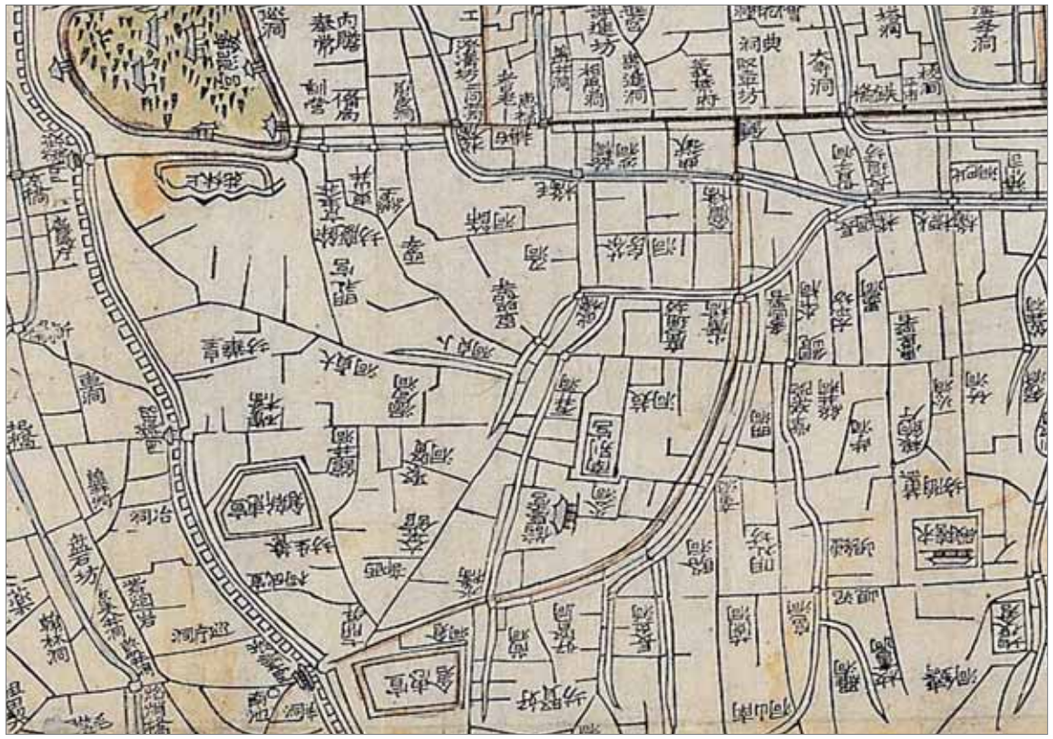
3. 근대 이후 청계천 일대의 변화

금융의 중심가 남대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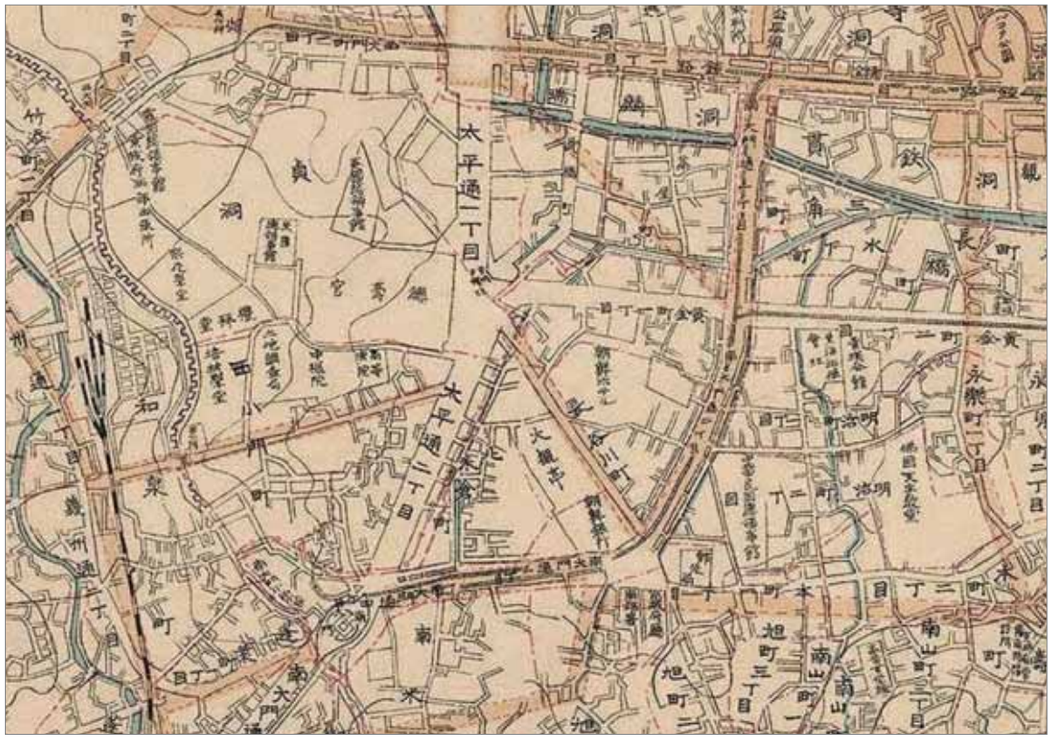
오늘날 남대문로는 종로2가의 종각에서 시작해서 광교, 을지로 입구, 한국은행 앞 로터리 그리고 숭례문을 지나 서울역에 이르는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행차하던 길이었으며, 중국의 사신들이 왕래하던 길이기도 했다.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남대문로에는 최초의 은행이 설립되기도 했으며, 이후 수많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자리 잡고 홍망성쇠를 거듭한 도심 중의 도심이기도 하였다.

남대문로가 금융의 중심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조선시대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개화기에 중국과 일본의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은행이 설립되었던 청계천의 광통교 주변은 조선 후기부터 중인들이 많이 사는 상업 활동의 중심지였다. 또한 개항 이후 조선 정부에서 신식화폐를 주조하여 구화폐와 교환하는 기관인 교환서(交換署)를 설립한 자리이기도 했다.

남대문로가 시작되는 종각에서 광통교 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지점인 현재 영풍문고 자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었던 한성은행이 1897년 설립되었던 곳이다. 이후 한성은행은 1912년에 현재 신한은행 광교빌딩 자리에 새 건물을 신축하여 옮겨졌다. 그 바로 남쪽에는 대한천일은행 본점으로 쓰였던 광통관이 있었으며, 을지로입구 쪽으로 더 내려오면 조선식산은행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이 일대에는 일제의 대표적인 수탈기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제국생명, 일본생명 등이 자리하였으며, 일제강점기의 중앙은행인 조선은행 본점이 자리 잡았다. 이렇듯 남대문로는



「수선전도」에 표시된 남대문로 부근.



「경성부명세신지도(京城府明細新地圖)」(1914년경)의 남대문통 부근.

근대 이후 한국 금융의 본산으로서 일제강점기와 한국 근대사의 빛과 어둠이 명멸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본 한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다.[6)]

일제강점기의 청계천 일대

일제는 경성부 청사를 북촌의 육조거리가 아닌 남촌에 설치하였다. 첫 경성부청 자리는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자리로, 1896년에 일본 영사관을 설치하였던 건물이었다. 한국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치외법권적으로 관할하던 일본 영사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서울의 한국인들도 관할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따라서 1910년대 경성부청은 대한제국기의 한성부가 아닌 일본 영사관에 자리하게 된 것이었다.

1926년에 신축된 경성부청은 무기를 제조하던 군기시가 있던 자리였다. 군기시의 별칭이 무기창고라는 의미의 무고(武庫)였던 까닭에 군기시 앞에 있던 다리인 군기시교(軍器寺橋)의 별칭도 무교(武橋)가 되었다. 무교 앞은 대역 죄인이 처형되기도 했던 으스스한 장소였다고 한다. 하지만 하천이 복개되어 더 이상 무교는 존재하지 않고 무교동이라는 지명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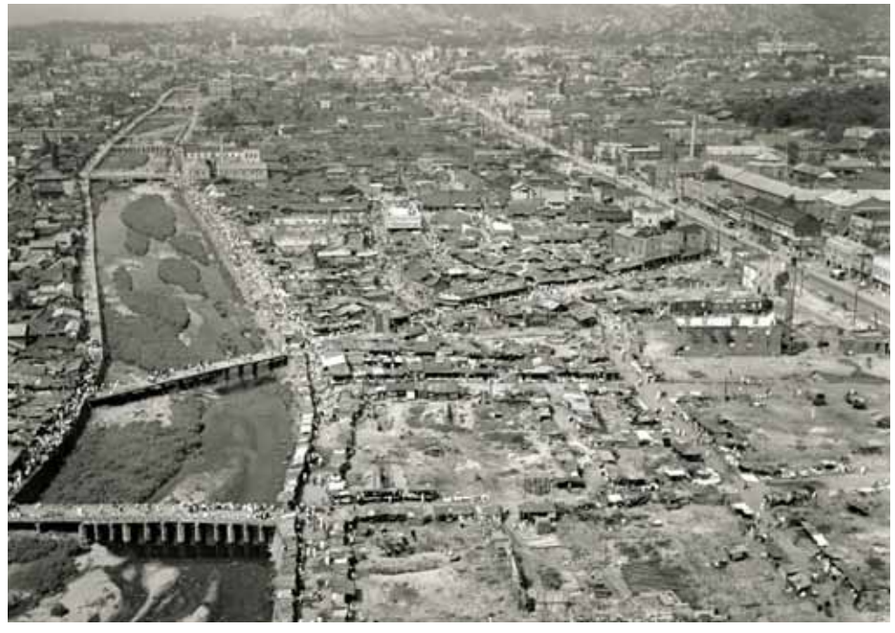
이곳이 새삼 부각된 계기는 아관파천 이후 고종이 환궁하면서 이곳에 경운궁(덕수궁)을 새로 짓게 되는 데 있었다. 그리고 경운궁의 동쪽 문인 대안문(지금의 대한문)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망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이곳이 서울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대한제국기에 건설된 중요한 상징적 건축물이었던 환구단,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전 등도 모두 이 방사형 도로망 자락에 자리가 정해졌다. 바로 그곳에 대한제국의 궁궐 경운궁을 역사의 뒷켠으로 밀어내고 경성부 청사가 들어선 것이다. 그리고는 방사형 도로망의 한축을 무너뜨리면서 조선총독부, 경성부 청사, 숭례문을 잇는 도로 선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개발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덕수궁 담장

일제강점기의 남대문로 주변 풍경.

도 일부 헐어내어 도로를 넓히기 시작하였다.[7)]

한편 일제는 1912년 시구개정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의 전통 가로망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한편 동(洞)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었다. 한국을 침략하는 데 앞장선 일본인들의 이름을 따서 하세가와초(長谷川町, 지금의 중구 소공동), 다케조에초(竹添町, 지금의 서대문구 충정로), 후루이치초(古市町, 지금의 용산구 동자동) 등으로 바꾸었다. 하세가와는 제2대 조선총독으로 삼일운동을 탄압한 인물이고, 다케조에는 일본 공사로서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으며, 후루이치는 경부철도주식회사 총재로 철도 운영권을 장악한 자였다.

또한 일본을 상징하는 단어를 넣은 히노데초(日出町, 지금의 중구 남학동), 야마토초(大和町, 지금의 중구 필동) 등과 일본인이 사는 거리가 으뜸이라는 뜻인 혼마치(本町, 지금의 중구 충무로), 모토초(元町, 지금의 중구 원효로) 등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명은 해방 이후 모두 한국식으로 바뀌었다.



한국전쟁 직후의 청계천 일대.

일제에 의해 본격 개발되기 시작한 이 일대는 새로운 번화가를 이루었다. 오늘날의 소공동은 조선호텔 ·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 공회당 · 사우공회의소 · 은행집회소 · 비전옥여관 · 일본항공수송회사 객화취급소 · 경성부도서관 · 기독교청년회 등이 집중되어 있었고, 남대문통은 조선은행 · 경성우편국 · 미츠코시백화점 · 정자옥 · 식산은행 · 저축은행 · 안전은행 · 경성전기(주) · 천대전빌딩 · 총독부도서관 · 한성은행 등 금융가와 백화점이 모여 있었다.

일제강점기 말까지도 대형 금융기관의 본점은 모두 남대문로1 · 2 · 3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남대문로1가에 동일은행 · 해동은행 · 한성은행 · 상은 지점이, 2가에는 제일은행 지점 · 식산은행 · 안전은행 지점 · 상은은행 본점 · 조선은행 · 저축은행이 자리하고 있었다. 금융기관은 도시마다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시의 남촌은 경성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경성의 제조업 또한 대부분 남촌 지역에 자리 잡았다. 1936년 당시 경성의 총 제조업체 수는 708개로서 중구 관내에 324개의 공장이 있었다고 한

청계천 복개 공사 기공식(1960년대).

다. 또한 이 시기 중구는 종로와 더불어 숙박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종로가 조선인 숙박의 중심이었던 반면 중구는 일본인 숙박업의 중심이었다. 대표적으로는 조선호텔 · 반도호텔이 당시 국제 수준의 관광호텔이었으며, 그밖에도 경성호텔, 광화문호텔, 임옥호텔, 본정호텔 등이 있었는데 반은 일본식, 반은 서양식이었고 식당은 양식이었다.[8)]

청계천 복개와 도심개발의 시대

해방 직후의 혼란과 3년여의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의 청계천변은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 거주지로 전락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청계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유일한 방법은 '복개' 뿐이라는 생각이 팽배하였다. 결국 1955년 광통교 상류의 약 136미터를 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1958년부터 197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청계천 복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로써 600년간 서울 주민과 호흡을 같이했던 청계천은 그 수명을 다하고 한동안 땅속으로 묻혀 버리고 말았다. 확장된 도로변을 따라 신평화시장, 삼일아파트 등의 현대식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청계천 복개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울의 종로와 을지로 방면의 교통량이 분산 흡수되었다.

청계천의 복개는 주민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청계천 주변에 어지럽게 늘어선 판잣집은 헐리고 대신 현대식 상가 건물이 들어섰으며, 토사와 쓰레기, 오수가 흐르던 하천은 깨끗하게 단장된 아스팔트 도로에 묻혔다. 시원하게 뚫린 복개도로와 고가도로 위에는 자동차들이 쏜살같이 달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의 가장 부끄러운 곳이었던 청계천은 근대화 · 산업화의 상징으로 서울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한편 청계천 복개로 주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봉천동, 신림동, 상계동 등으로 강제 이주되어 또 다른 빈곤의 상징인 '달동네'를 형성하였고, 청계천변에서 상업을 하던 영세 상인들도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그리고 광통교와 같은 소중한 문화유산도 함께 훼손되었다.

청계천 복개 이후 약 40여 년간 청계천은 도심 산업의 중심지로서 복개도로 양편에 공구상, 조명가게, 신발상회, 의류상가, 헌책방, 벼룩시장 등 크고 작은 상가들이 밀집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복개도로와 고가도로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차량들이 지나 다녔다. 이때부터 청계천은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의 대명사가 되어 청계천 주변을 낙후시키고, 서울의 이미지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청계고가도로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근대화 · 산업화의 상징이 아니라 개발 시대의 무지가 낳은 흉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9)]

4. 청계천의 복원과 친환경 도시 개발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과

서울시는 2003년 7월에 40년간 복개되었던 청계천을 다시 여는 복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태평로의 동아일보사 남쪽~동대문~신답철교에 이르는 5.84km의 청계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2005년 9월에 마무리하였다. 총 3,867억 3,900만 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청계천에 맑은 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생태계의 복원은 물론 서울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 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프로젝트였다.

청계천 복원으로 깨끗한 물이 흐름으로써 수중과 수변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이 만들어졌다. 또한 복원된 청계천 양측 하천 둔치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 ·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통교 등 청계천 지역에 존재하는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서울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을 제고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복원 이전의 청계천 주변 지역은 대부분 40~5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서 상주인구 감소는 물론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958년에 건설되기 시작한 청계천 복개 구조물과 청계고가도로는 30~40년이 지났으므로 시멘트와 철근은 부식되었고, 구조적 결함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공사 구간을 세 구간으로 분할, 공사를 시행하여 주변 상가의 영업 활동을 보장하면서 청계천로 양측에 편도 2차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주변의 지하철역의 지하수와 한강물을 용수로 하여 청계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르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청계천광장 아래에는 청계천에 물을 흘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계천.

복개 공사 이전의 광통교와 청계천 복원 후 장소를 옮겨 새로 만든 광통교.

보내는 펌프 등의 기계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루 12만 톤의 물이 흐르는 청계천은 잠실대교 인근 자양취수장에서 퍼 올린 9만 8,000톤의 한강물(2급수)과 12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1급수) 2만 2,000톤을 모아 뚝섬 정수장에서 정수, 소독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청계광장과 삼각동, 동대문, 성북천 하류 등의 4개 지점에서 흘려보낸다. 이에 따라 전기료 등으로 연간 8억 7,000여 만 원, 하루 238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10)]

이와 같은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주변 지역을 국제 금융과 비즈니스의 중심, 첨단 정보와 고부가가치 사업 지구로 재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국제 경쟁력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변 노후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성장 잠재력도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서울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다.

청계천의 옛 다리들

한편 모두 5개 구간으로 나누어 복원된 청계천에는 22개의 다리가 놓였다. 1760년 영조 때의 준천 당시에는 청계천 본류에 모전교, 광통교, 장통교, 수표교, 하량교, 효경교, 마전교, 오간수문, 영도교 등 9개의 다리가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다리는 물을 건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약속과 모임의 장소였고, 길 가던 사람들이 쉬어 가는 쉼터이기도 했다. 다리가 있음으로 하여 동네 이름이 생겨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부근 동네 이름을 따서 다리에 붙이기도 하였다.

청계천의 옛 다리들은 도성의 다른 곳에 놓여 있던 다리보다 비교적 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으며 그런 만큼 저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들 옛 다리만 간략히 소개한다.

① **모전교 :** 모전(隅廛) 부근에 있었다고 하여 모전교라고 불렀다. 모전은 각종 과일을 파는 가게를 말하는데, 큰길 모퉁이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현재 중구 서린동과 무교동 사거리 지점이다.

② **광통교 :** 육조거리-운종가-숭례문으로 이어지는 도성 안 중심 통로였으며, 주변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옛 청계고가도로를 기억하기 위해 일부 교량을 남겨 두었다.

시전이 위치하고 있어 도성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다리였다. 1958년 청계천 복개와 함께 도로 밑에 묻혔는데, 현재 광교네거리 지하에 옛터가 남아 있다.

③ **장통교 :** 중부 장통방에 있었으므로 장통교라고 하였다. 현재의 장교동 한화빌딩 앞에 위치하였다. 장통교는 청계천 본류와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는데, 현재 위치는 조선시대보다 상류로 옮겨진 것이다.

④ **수표교 :** 광통교와 함께 가장 유명한 다리로 1420년(세종2)에 만들어졌다. 당시 이곳에 마전(馬廛)이 있어서 마전교라 불렀으나, 1441년(세종 23)에 다리 옆에 개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표석(水標石)을 세운 이후 수표교라고 하였다. 수표석은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 때 장충단공원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⑤ **하랑교 :** 다리 인근에 하랑위(河浪尉)라는 부마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랑교라고 불렀다. 일제강점기 때 콘크리트 다리로 개축되었다. 현재 청계 3가 센트럴 호텔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⑥ **효경교 :** 부근에 소경이 많이 살았다 하여 '맹교(盲橋)', '소경다리'라고도 불렀다. 현재 세운상가 옆 아세아 전자상가 동편에 있었다.

⑦ **마전교 :** 다리 부근에 우마를 매매하는 마전(馬廛)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청계 5가 사거리 동쪽 방산시장 앞으로 추정된다.

⑧ **오간수문 :** 오간수문은 청계천 물이 성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벽 아래에 설치한 수문(水門)으로 이것이 다섯 개 있었으므로 오간수문이라고 하였다. 다만 성벽을 지키거나 수문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앞에 긴 돌을 놓아 다리의 기능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1908년 일제에 의해 파괴되고 다리가 놓여졌으며, 이때부터 오간수교(五間水橋)라고 불렀다.

⑨ **영도교 :** 조선 성종 때 승려가 놓았다고 전한다. 홍인지문 밖에 있는 동묘(東廟)와 왕십리를 연결하는 통로였다.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 헐어다가 석재로 사용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콘크리트 다리로 개축되었다. 현재 성동기계공고 옆 영미교 길 부근에 있었다. [11)]

5. 청계천 주변의 볼거리들

충무공 이순신 장군탄생지

충무공 이순신은 조선 초 인종 1년(1545) 4월 28일(음 3월 8일) 한성부 남부 마른내골[乾川洞]에서 태어났다고 전한다. 1956년 12월 5일에 한글학회와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가 공동으로 충무공의 탄생지를 답사하여 중구 인현동 1가 40번지(현재는 지적 변동으로 인현동 1가 31-2번지)로 고증하였다. 당시 충무공의 탄생지 고증은 문헌 기록과 고지도를 대조하고, 지형지물,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 등의 증언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마른내는 모두 복개되어 흔적을 찾아볼 순 없지만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한옥마을을 거쳐 필동의 매일경제신문 사옥, 충무로역, 인현동 1가를 가로질러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이었다.

마른내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면 바닥이 말라붙어서 사람이 오가는 길로 사용되지만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금세 냇가로 변했다고 한다. 선조 때 허균(許筠)의 형 허봉(許篈)은 『성소복부고(性所覆瓿稿)』 권 24에서 이 지역은 대대로 이름난 사람이 많이 탄생한 곳이라 적고 있다. 이 일대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을 비롯해서 단종 때 영의정을 지낸 정인지(鄭麟趾)와 두만강 호랑이라 일컫던 김종서(金宗瑞)를 비롯해서 이계동(李季仝), 세조가 깊이 신뢰했던 양성지(梁誠之), 대학자 김수온(金守溫)을 비롯하여 이병정(李秉正) 등이 살았다. 중종 때 유순정(柳順汀), 권민수(權民手), 유담년(柳聃年), 선조 때 영의정 노수신(盧守愼), 유성룡(柳成龍),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과 허난설헌(許蘭雪軒), 허봉 오누이와 임진왜란 때 해전을 이끈 원균(元均) 등이 살았다.[12)]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을 기념하여 매년 청계천에서 펼쳐지는 거북선 띄우기 행사 모습.

이순신 장군 생가 터인 충무로 인쇄골목.

현재 지하철 2호선 을지로 4가역에서 삼풍상가 부근의 '인현길'로 들어서면 속칭 '충무로 인쇄골목'이라 하여 규모가 작은 인쇄소 · 스티커 · 금박 · 지업사 외에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어 복잡하다. 이 길에서 명보극장 방향으로 80여 미터 정도 가다가 삼풍상가로 나가는 인현1길 모퉁이에 4층의 신도빌딩(중구 인현동 1가 31번지 1호, 2호)이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충무공이 태어난 곳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충무공 탄생일에 맞추어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충무공이순신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충무공과 관련된 지역 행사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행사로서 청계천에 거북선 띄우기 행사, 모형 거북선 전시회, 충무공 관련 시서화전, 궁도 현장 체험, 축하 퍼레이드 및 기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구단 터와 황궁우

동아시아 전통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제천(祭天) 시설로 대표적인 것은 중국 북경의 천단(天壇)이 있다. 황제는 하늘을 모시는 것을 독점적으로 담당한다. 황제에게

1907년경의 환구단과 황궁우.

책봉을 받는 왕들은 사직단에서 토지의 신이나 곡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있어도 하늘에 대한 제사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한성을 건설하면서 환구단(圜丘壇) 또는 원구단(圓丘壇)을 설치하였다. 원구단은 '하늘을 모시는 제천단'이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단은 둥글고, 땅을 모시는 단은 네모로 한다고 하여 원구단이다. 하늘에 대한 제사는 고려시대부터 행해졌지만, 조선시대에는 점차 이용되지 않았다. 고려의 왕이 하늘에 대한 제사를 행한 것은 애초에 중국의 송나라, 금나라와 소원한 관계에 있었던 데다, 개경에서 '천자'가 행하는 의례를 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양 천도 이후 원구단을 세운 것도 조선이 처음에는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401년 제3대 태종대에 이르러 조선은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은 본디 황제가 집행하는 것이고 명의 황제가 독점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 성리학적 화이론(華夷論)에 따라 조선 국왕이 제례를 집행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고 하늘을 모시는 것은 명나라가

현재의 황궁우.

해야 할 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태종 이후에는 명을 꺼려 제천제는 폐지될 기미가 보였고 15세기 후반에는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청일전쟁 이후 400년 만에 원구단을 부활하게 된다.[13)]

1897년(고종 34) 2월 20일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하였다. 고종의 황제 즉위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고종은 수락하였다. 원구단은 1897년 10월 2일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0월 11일에 완성되었다. 10월 12일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원구단에서 천신에게 고제(告祭)를 올린 후 칭제건원(稱帝建元), 곧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원구단은 원단(圓壇)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음양론에 따라 둥그런 모양으로 제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를 올렸기 때문이다. 본래 그 자리에는 임진왜란 이후 중국 사신의 영빈관과 연회장으로 사용되던 남별궁(南別宮)이 있었다. 이처럼 사대외교의 상징이었던 남별궁이 자주독립의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자리로 바뀐

'다동 · 무교동 음식문화 가을대축제' 개회식 장면(2012년).

것이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점한 후 1913년에 원구단을 헐어 내고, 이듬해 그 자리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석조로 된 건평 580여 평의 조선총독부 철도호텔을 세웠다. 철도호텔을 건설하면서 원구단의 흔적은 사라졌다. 다만 원구단 건립 2년 후인 1899년에 세워진 황궁우가 남아 있다. 황궁우에는 천신과 지신, 그리고 인신(태조)의 신위를 모셨다. 원구단과 황궁우 사이에 있던 벽돌로 만든 삼문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후 철도호텔은 조선호텔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해방 후 귀속 재산으로 분류되어 미군정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조선호텔 건물은 1968년 헐리고 그 자리에 현재의 웨스틴 조선호텔 건물이 들어섰다.[14)]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

다동과 무교동 지역은 2012년 12월에 명동 · 남대문 · 북창 관광특구가 확대 지정되면서 관광특구 지역으로 편입된 곳이다. 이는 전국의 관광특구 가운데 유일하게 면적이 확대된 경우이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지, 등갈비, 골뱅이 음식거

명보아트홀 전경.

리가 위치하고 있어 다동 · 무교동 음식문화거리로 불린다. 관광 생태 명소인 청계천이 있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펼쳐지는 명물 음식거리이다.

2013년에는 '다동 · 무교동 음식문화 가을대축제'가 개최되어 1960년대에 즐비했던 무교동 낙지집의 추억과 맛을 되살리기 위한 낙지 축제, 빈대떡과 막걸리를 파는 '추억의 거리' 재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우리나라 유일의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단의 공연과 풍물놀이 등 흥겨운 어울림 마당이 펼쳐졌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상인과 주민, 관광객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다동과 무교동을 대표하는 향토음식들을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명보아트홀

을지로3가에 반세기 동안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던 옛 명보극장을 리모델링하여 2008년 12월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하였다. 가온홀(354석), 다온홀(334석), 하람홀(226석) 총 3개의 전문 공연장으로 구성된 멀티플렉스형 공연장이다. 명보아트홀은 최고의 조명과 음향시설로 높은 수준의 공연을 구현하며, 관객의 편안한 공연 관람을 위하여 안락한 객석과 넉넉한 주차 시설을 갖추었다. 공연장 로비에는 관객들이 편안하게 먹거리를 즐기며 대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는 공연장 반입을 허용하여 공연을 즐기는 관객의 입장을 한층 배려하였다.

또한 리모델링 설계 단계부터 공연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연 스태프들이 작품 제작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제작된 하이퀄리티의 작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꼭 공연 관람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직장인이나 인근 주민들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명보아트홀은 인사동, 청계천, 명동, 충무로, 광화문 등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와 인접해 있어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국내외의 관광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가 제공되는데, 특히 넌버벌 퍼포먼스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이 장기적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는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서울과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명보아트홀은 주변의 관광지와 숙박업소, 음식점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명보아트홀은 지하철 을지로3가역과 충무로역을 통해 찾아갈 수 있다.[15)]

도심 속의 문화사랑방, 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1995년 9월 14일 남산동에서 처음 개원하였다. 1998년 12월 현 장교동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서울의 중심, 문화의 중심'을 모토로 내걸고 활발한 문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2013년 현재 문화원에서는 시, 수필, 경기민요와 가락장구, 크로키, 수채화, 새도우박스, 성악교실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 탐방교실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의 서울 문화재 답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한양도성 탐방, 정동 답사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참가자들에게 중구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장에서 직접 상세

한화빌딩 1층에 위치한 중구문화원.

한 해설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토사연구』, 『중구문화』, 『중구문예』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매년 중구 사진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그룹과 함께하는 '금요 정오의 음악회', 청계천예술제 등과 함께 인근 파리공원, 베를린광장, 한빛미디어파크 등 도심 공간을 활용한 다채로운 기획전을 개최함으로써 회색 빌딩 숲에 문화의 향기를 퍼트리는 도심 속 '문화 사랑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중구문화원은 2005년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일에 맞춰 '청계천 거북선 대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중구 인현동1가(건천동)가 이 충무공의 탄생지임을 알리고 장군의 애국애족정신을 널리 선양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거북선 경주대회, 모형 거북선 제작 및 전시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충무공 탄생을 기념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편 고종 황제가 설치하였다가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던 장충단 추모제향을 계승하여 애국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이 함께하는 추모문화제로 발전시

중구문화원이 주최한 청계천예술제의 첫 번째 기획인 '구봉서의 코미디인생 60년' 전시회(2013년 10월).

켜 나가고 있다.

더불어 중구문화원 예문갤러리에서는 사진, 그림, 퀼트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통하여 인근 직장인과 청계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구문화원은 도심형 문화원으로서 구민과 직장인, 관광객에게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생활 속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데 더욱 힘쓸 예정이다.

제4장

덕수궁과
근대문화유산 1번지 정동

1. 덕수궁과 정동의 역사
2. 덕수궁의 공간 구조
3. 정동의 근대문화유산과 볼거리들

덕수궁은 조선시대 궁궐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무대다. 임진왜란과 대한제국기의 역사적 격변을 견뎌낸 국난 극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국 전통 건축 양식과, 서양 건축 양식, 그리고 분수가 있는 궁궐로 중세와 근대가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고종 당시의 궁궐 면모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덕수궁에는 저마다 사연을 안은 유서 깊은 전각들이 오순도순 자리하고 있다. 정문인 대한문 앞에서는 전통 궁중문화 재현 행사인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이 이뤄지고, 궁 안에 있는 덕수궁미술관에서는 각종 전시회가 개최되어 일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 덕수궁과 정동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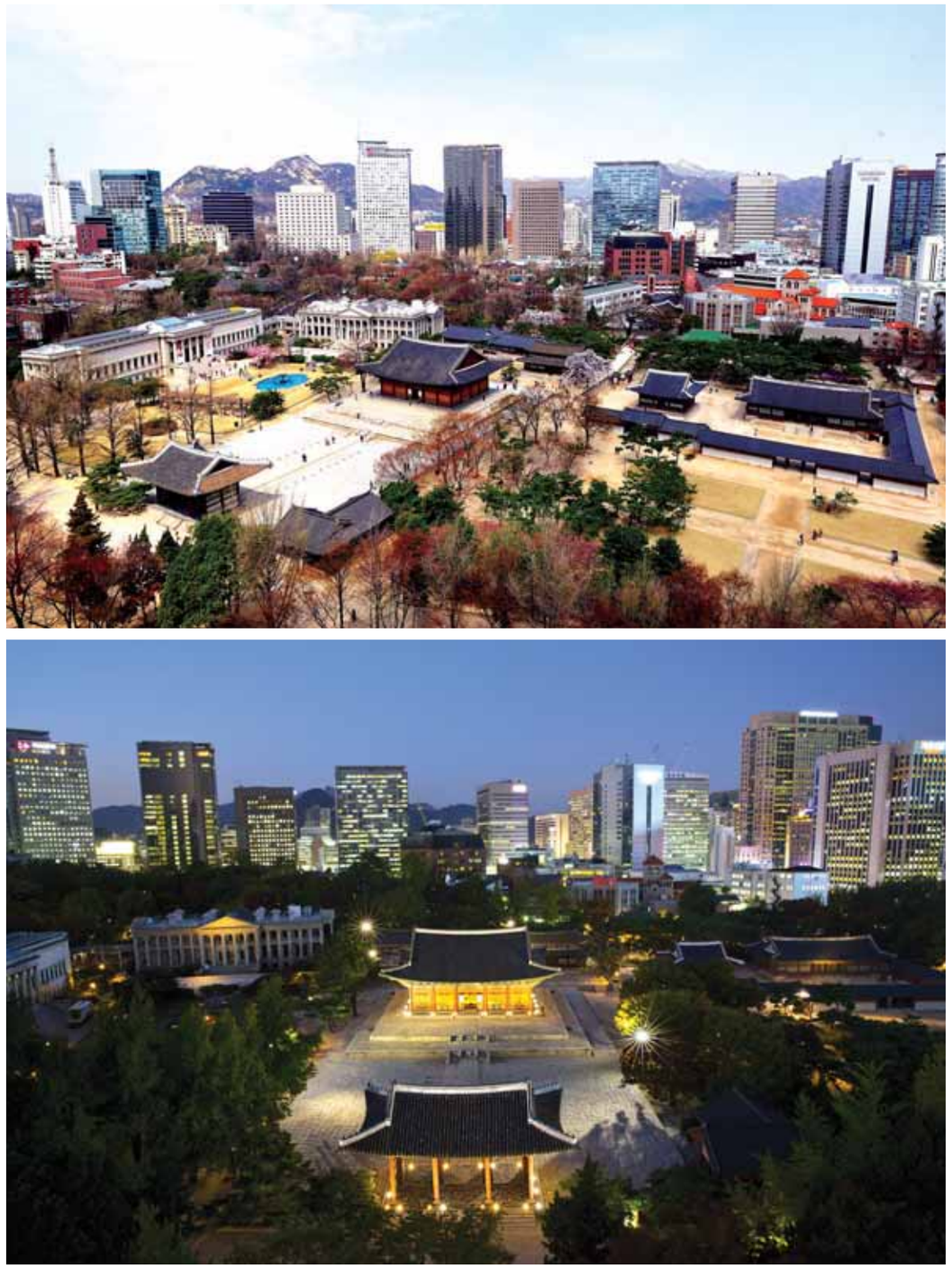
정릉동 행궁으로 출발한 덕수궁

정동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덕수궁이다. 정동이 없는 덕수궁은 있을 수 없고, 덕수궁이 없는 정동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덕수궁의 역사는 정릉동 행궁(行宮)에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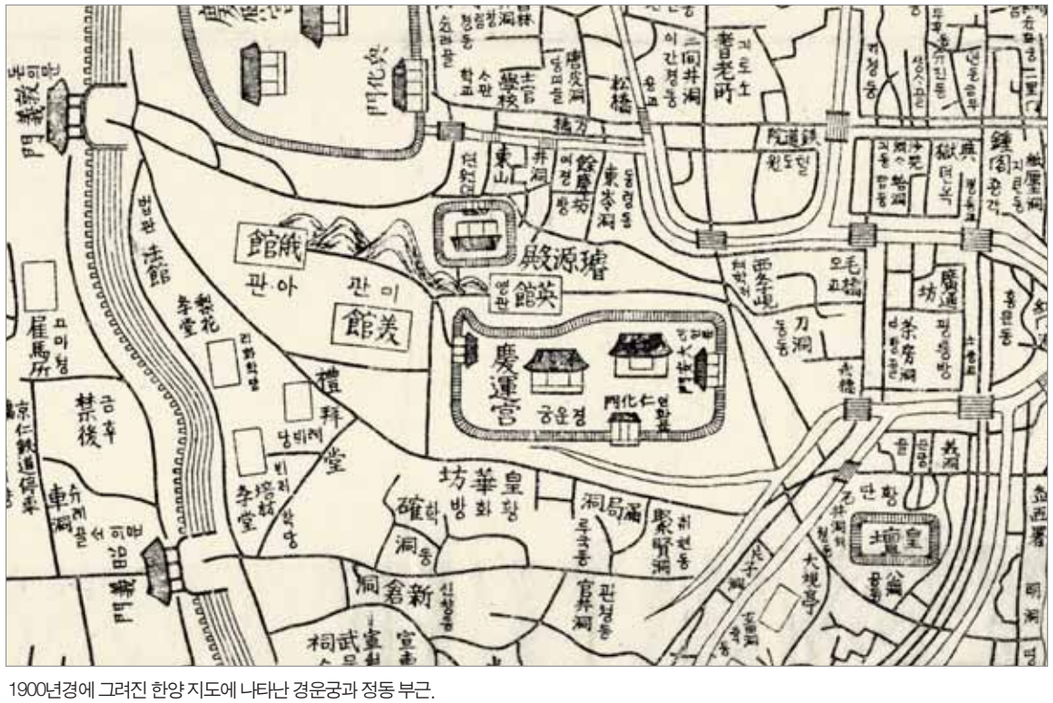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의주까지 몽진(蒙塵)하였다가 다시 한성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당시 성내의 대가(大家), 즉 지금의 종로 북쪽에 있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를 비롯하여 종로의 종루(鍾樓), 각 관아, 성균관 및 대신들의 저택들은 모두 전쟁으로 소실된 형편이었다. 오직 남부(南部), 즉 남산 기슭 일대와 중앙의 소공주택(小公主宅)과 더불어 정동 방면의 집들만이 남아 있었다. 이곳은 한성을 점령한 일본군 주장(主將) 우기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주둔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왕족과 고위 관료들의 저택이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이곳 정릉동 일대를 왕이 임시로 거처하면서 기거하는 행궁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거처하기엔 좁았기 때문에 주변 여러 채의 민가들까지 포함하여 이를 왕궁으로 개조, 목책(木柵)을 돌려 세웠고, 1595년(선조 28)에는 길가에다 동문을 세웠다. 1607년(선조 40)에는 별전을 지어 생활 공간이 다소 여유로워지기도 했지만, 전각 배치 등이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궁궐과는 거리가 있었다.[1)]

선조는 생전에 정궁을 지어 돌아가려 하였으나, 나라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608년(선조 41) 2월 1일 행궁의 정전에서 승하하였다. 광해군은 정



덕수궁의 낮과 밤.



1900년경에 그려진 한양 지도에 나타난 경운궁과 정동 부근.

릉동 행궁 서청(西廳)에서 즉위한 후 7년 동안 왕궁으로 사용하다가, 1611년(광해군 3)에 창덕궁을 중건하고 10월에 그리로 옮겨 가면서 행궁을 '경운궁(慶運宮)'이라 부르게 하였다. 하지만 다시 보름 만에 경운궁으로 이어(移御)하여 3년 반 동안 더 머물다가, 1615년(광해군 7) 4월에야 창덕궁으로 옮겨 갔다.

한편 1623년(인조 1) 반정에 성공한 인조가 경운궁 별당에서 즉위하였으나 곧 대비와 함께 창덕궁으로 이어하였다. 이후 경운궁은 정식 궁궐이 아닌 옛 행궁 터로서 즉조당(卽祚堂), 석어당(昔御堂)과 왕비의 궁방인 명례궁(明禮宮) 건물이 몇 채 들어서는 정도로 유지되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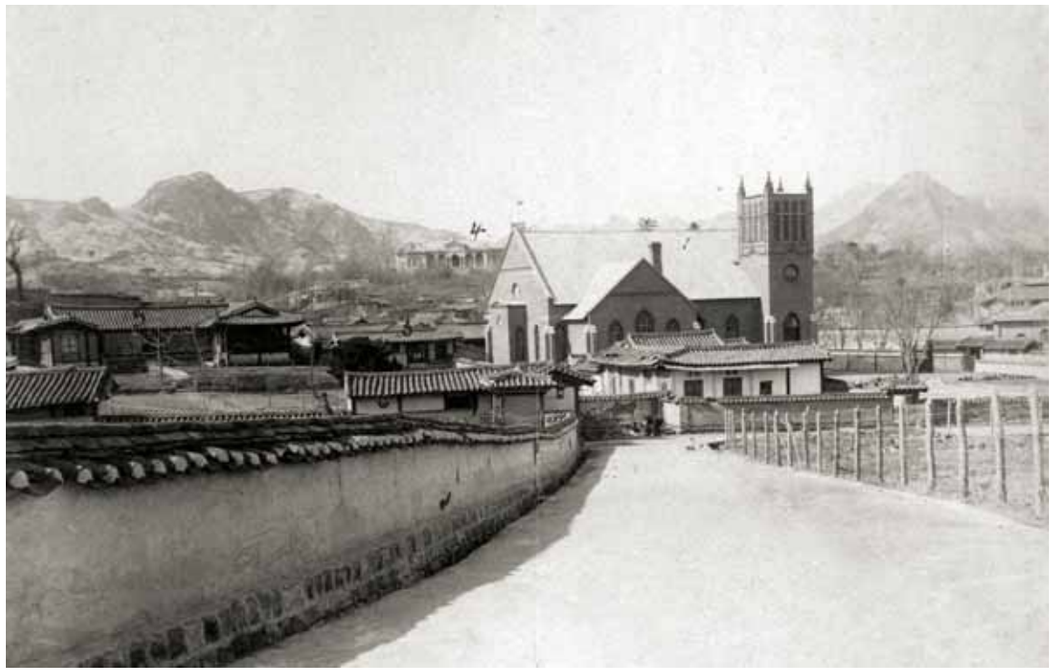
개항직후의 정동

1876년(고종 13) 조선은 외세에 굴복해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했지만, 외국인의 도성 내 입지는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과 가장 먼저 외교관계를 맺은 일본도 1880년(고종 17)에야 비로소 공사관을 설치할 수 있었고, 그 공사관도 서대문밖(지금의 서울금화초등학교)에 둘 수 있었다. 외국인의 도성 내 거주가 합법화된 것은 1882년(고종 19) 11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된 이후의 일이다.

정동에 진출한 최초의 서양인은 초대 미국 공사로 부임한 푸트(Lucius Harwood Foote) 일행이었다. 푸트는 1882년(고종 19)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특명전권공사의 신분으로 1883년(고종 20) 5월 12일 제물포에 상륙하여 이 땅에 첫발을 내디뎠다. 5월 19일에는 비준서까지 교환함으로써 조선과 미국 사이에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이들 일행은 박동에 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의 집에 잠시 거처하다가 이후 정동에 집을 사들였는데, 이것이 곧 미국 공사관의 시초이자 정동이 서양인 마을로 변모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형성된 도성 내 외국인 거주지는 크게 서구인과 청국인 그리고 일본인이 사는 곳으로 구분되었다.[3)]

일본인들은 남산의 북측 산록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하고, 청국인들은 수표교와 서소문 일대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한 데 반해, 인원이 많지 않았던 서구인들은 정동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그 중심에는 각국의 공사관이 있었다. 그 결과 정동 일대는 외교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미국 공사관과 영국 공사관(1884년)은 정동의 동쪽과 서쪽에 나란히 자리하고, 그 북쪽으로 러시아 공사관(1885년)과 프랑스 공사관(1889년)이, 다시 그 남쪽으로는 독일 영사관(1891년)이 포진하였다. 공사관 주변으로 공사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 정동은 자연스럽게 서구인들의 집단 거주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서구 열강들이 정동과 그 주변에 공사관 또는 영사관을 개설한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당시 정동이 교통로의 요충지였다는 점이다. 정동은 도성의 서쪽 끝에 해당하는 위치인 동시에 인천으로 이어지는 마포와 양화진 가도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정동은 도성 안쪽에 자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외진 곳이고 빈터도 많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토지와 가옥의 매입이 쉬워 공사관 부지 선정에 용이하였다. 또한



1900년 전후의 정동. 정면에 1897년 세워진 정동제일교회(현 벧엘예배당)이 보이고 그 좌측에 경운궁 담장이 보인다.

외교 공관을 특정 지역에 몰아넣음으로써 일반 백성과 격리하는 효과를 고려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4)]

서양세력과 근대문물의 유입

각국 공사관의 개설과 더불어 민간인 신분의 서양인들이 정동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884년(고종 21)부터의 일이다. 그 선두 인물이 바로 호러스 알렌(Horace Newton Allen)이다. 1884년 9월 22일에 조선에 들어온 알렌은 푸트 공사의 주선으로 미국 공사관에 인접한 집 한 채를 넘겨받게 된다. 이렇게 하여 정동에 터전을 잡은 알렌은 다시 자신의 동료를 위해 이웃하는 땅과 가옥을 매입하였다. 이 집은 1885년(고종 22) 조선에 들어온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Underwood)에게 돌아갔으며,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과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도 역시 미국 공사관과 가까운 정동 서편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조선에 입국한 헐버

1904년경의 정릉동천 부근. 이화학당 후문 쪽으로 왼쪽의 큰 건물은 연초공장으로 추측된다.

트(Homer B. Hulbert), 길모어(George W. Guilmore) 등도 자국 공관과 가까운 정동 일대에 머물게 되었다.

서양인 선교사들이 점유한 정동 일대는 대략 정동길을 경계선으로 양분되어 그 동쪽 편에는 '미국 장로교 선교 기지'가 들어섰고, 건너편인 서쪽 성벽 아래에는 '미국 감리교 선교 기지'가 터를 잡게 되었다. 다만, 1897년(고종 34)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새롭게 경운궁이 조영되는 과정에서 인접한 장로교 선교회 거주지는 대부분 해체되어 궁궐 전각들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경운궁과 떨어져 있던 감리교 선교 기지, 즉 지금의 이화여고, 정동제일교회, 옛 배재고등학교 자리는 그 형태를 고스란히 보존하였다.[5)]

선교사들이 정동 일대를 선교 활동의 본거지로 삼으면서 다수의 교회가 창설되었다. 오늘날 정동 안쪽에 남아 있는 정동제일교회와 성공회대성당은 물론이고 새문안교회와 상동교회까지도 그 출발점을 정동에 두고 있는 까닭이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선교 목적이 우선이었지만, 당시 조선 정부로부터 아직 선교 활동이 공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사업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정동 일대에는 1885년(고종 22) 배재학당, 1886년 이화학당과 경신학교의 전신인 언더우드 학당, 그리고 1887년 정신여학교의 모체가 된 정동여학당 등과 같은 근대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정동을 중심으로 서양인들이 집결하는 현상은 비단 미국인들의 경우만은 아니었고, 다른 서구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대개는 자국의 공관을 중심으로 그 인근으로 거주 영역을 차츰 확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양인의 숫자가 차츰 늘어나면서 거주 공간의 부족으로 정동 지역에서 벗어나 서대문 바깥쪽으로도 이들의 정착지가 차츰 확장되었다. 그래도 손탁호텔이나 정동구락부와 같은 사교 공간이 정동 안쪽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일상생활의 중심축은 정동을 벗어나지 않았다.[6)]

고종의 경운궁 환궁

1896년(고종 33) 2월 11일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던 고종은 빗발치는 환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1년 만인 1897년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옮긴 것은 바로 주변에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서구 여러 나라의 공사관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을미사변과 같은 직접적인 신변의 위협과 일본의 국정 간섭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이미 경운궁으로 환궁할 뜻을 굳히고 1896년 8월 10일 경운궁의 수리를 명령하였으며, 경복궁에 있던 명성왕후의 빈전(殯殿)과 집옥재(集玉齋)에 봉안하여 오던 역대 선왕의 영정(影幀)을 옮기도록 하였다. 1897년(고종 34) 2월 20일 마침내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연호를 광무(光武),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하여 제국과 황제를 칭하였다.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할 때 중심 건물은 함녕전(咸寧殿)과 즉조당(卽祚堂)이었다. 함녕전은 처음에는 선덕전(宣德殿)으로 명명하였다가 함녕전으로 바꾸었는데, 고종의 침전이자 관료들을 소견하는 곳으로 쓰였다. 즉조당은 태극전(太極殿) · 중화전(中和殿)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임금과 관료들이 모여 행사를 여는 정전으로 쓰였다.[7)]

대안문 앞에 모인 인파(1897년경).

경운궁의 수난

1900년(고종 37) 10월 14일 경운궁의 정전과 선원전(璿源殿)이 실화로 불타 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종은 1901년 8월 25일 법전 영건(營建)을 위한 영건도감(營建都監)을 설치하는 한편, 1902년 5월 12일 새로 지을 법전의 이름을 중화전으로 하고 그때까지의 중화전은 본래 이름인 즉조당으로 되돌렸다. 9월 15일 영건도감에서 경운궁의 영건을 고하였고, 고종은 10월 19일 중화전에서 하례를 받고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이날 중화전 외삼문(外三門)의 이름을 조원문(朝元門)으로 정하여 정전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1904년(고종 41) 4월 14일 함녕전의 온돌을 수리하다 실화한 것이 바람을 타고 번지는 바람에 또 다시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 등 경운궁의 중심부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고종은 수옥헌(漱玉軒, 현 중명전)으로 옮겨

1904년 대화재로 불에 탄 경운궁.

가 그날 신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운궁의 중건을 못 박았다. 본래의 법궁인 경복궁이나 창덕궁으로 이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종은 단호히 경운궁 중건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고종이 수옥헌으로 옮겨 가 있는 동안 일제는 대한제국을 더욱 압박해 왔다. 1904년 5월 20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고문 정치를 실시하는 한편, 외교권에 제한을 가하였다. 10월 5일에는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을 설치하여 황실과 정부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황제권의 군사 기반이었던 원수부(元帥府)를 폐지하고 경찰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고등경찰제도를 실시하고 관제(官制)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관료기구에도 침투하였다. 일본 헌병이 궁성을 경비하는가 하면, 군대로 궁성을 수비하게 하여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1906년(고종 43) 1월 중화전이 복원되고, 4월 25일부터 대안문을 수리하기 시작하여 대한문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경운궁 중심 구역이 어느 정도 복구되자 9월 13일 고종은 중명전에 나가 각국의 영사를 접견하였다. 이듬해 1월 24일 고종

고종의 장례 행렬 모습.

은 중화전에 나아가 황태자비 책비례(册妃禮)를 행하였고, 2월 1일에는 황태자비의 관례(冠禮)를 행하였다.

1907년(고종 44) 7월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자 이를 빌미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고종에게 양위(讓位)를 압박하였다.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황태자가 대리하도록 했으나, 7월 21일 밤 끝내 순종에게 양위하고 말았다. 7월 24일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협약(韓日協約) 및 이의 실행에 관한 비밀각서를 조인함으로써 일제는 행정, 사법, 군사 등 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순종은 연호를 융희(隆熙)로 바꾸고 8월 27일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즉위식을 올렸다. 9월 7일 영왕(英王) 은(垠)이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며, 고종은 태황제(太皇帝)가 되어 궁호(宮號)를 덕수(德壽), 부호(府號)를 승녕(承寧)으로 하였다. 11월 13일 순종과 황후, 황태자 등이 일제의 의도대로 창덕궁으로 이어하였다. 일제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강제하면서 궁호를 내세워 고종을 '덕수궁 전하'로 격하시켰다.[8)]

1919년 고종은 양위한 뒤 13년간 거처하던 침전인 함녕전에서 승하하였다. 고종

이 승하하면서 덕수궁도 궁궐로서의 수명을 마치게 된다. 그 후 덕수궁은 영역이 크게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전각들이 파괴되고 왜곡되었다.

1922년 일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영사관(현 미국 대사관저) 동측으로 영성문(永成門)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였다. 그러면서 선원전 권역의 건물들이 철거되고 터는 팔려 나가기 시작했다. 도로 서쪽으로 떨어져 나간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엄씨의 혼전(魂殿)이 헐린 후 그 자리에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가 신축되었고, 이듬해인 1923년에는 그 맞은편에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현 덕수초등학교) 교사가 세워졌다. 1927년에는 그 동쪽 언덕 위를 밀어내고 경성방송국 청사와 구세군 건물이 들어섰다.

한편 일제는 덕수궁 동쪽에 새로운 경성부 청사를 1925년 3월에 착공하여 1926년 10월에 완공하였다. 이 경성부 청사의 완공을 계기로 조선총독부-경성부 청사-남대문-경성역을 연결하는 태평로를 직선화하고 확장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서울광장까지 이어졌던 덕수궁 동쪽 영역이 많이 축소되었다. 1933년에는 궁내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들이 훼손 · 철거되었는데, 이때 잔존한 전각들은 대한문, 광명문, 중화문,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 함녕전 행각 일부, 홍덕전, 구여당, 정관헌 등에 불과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도 덕수궁의 연못이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바뀌는 등 훼손은 계속되었다. 1968년에 태평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 번 동측 담장이 서측으로 밀려났다. 공원화된 덕수궁의 모습을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취지로 투시형 담장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한편, 태평로의 확장으로 궁궐 담장이 철거되어 도로 한복판에 홀로 남은 신세가 된 대한문은 1970년 12월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9)]

2. 덕수궁의 공간 구조

덕수궁은 조성 당시부터 삼문삼조(三門三朝)의 공간 구성을 염두에 두었다. 삼문은 대안문-조원문-중화문을 이르며, 삼조는 외조-치조-내조로 연속되는 세 공간을 가리킨다. 외조는 조정 관료들이 근무하는 관청이 있는 곳으로 덕수궁에서는 대안문과 조원문 사이가 해당되며, 이곳에 궐내의 행정을 맡아 보는 궐내 각사와 원수부(元帥府)와 궁내부가 있었다. 치조는 왕과 관료들이 정치를 행하는 곳으로 정전과 편전이 있다. 치조의 중심은 중화전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중화문과 회랑이다. 내조는 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족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침전인 함녕전 등이 있었다.

궁성의 외문으로는 남쪽의 정문으로 인화문(仁化門), 동쪽 대문으로 대안문(大安門), 소문으로 포덕문(布德門), 서남쪽 소문으로 용강문(用康門), 서쪽 소문으로 평성문(平成門), 북쪽 소문으로 영성문(永成門)이 있었다. 인화문 앞은 도성 성곽이 가깝게 지나가 공간도 협소하고 정면으로 나가는 길을 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인화문은 곧 정문의 기능을 잃고 동문인 대안문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대한문(대안문)과 금천교

대한문은 1898년(고종 35) 원래 덕수궁의 동문으로 세워졌으나, 1900년(고종 37) 이후 정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대한문은 본래 대안문(大安門)이었다. 대안문이라는 이름은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1906년(고종 43) 4월 25일 고종의 명에 의해 수리하면서 대한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상량문을 지어 집어넣었다. 상량문은 대한제국의 수도인 한성 산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덕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펼쳐지는 수문장 교대식.

궁이 법전인 중화전을 갖추고 정문으로 대한문을 갖춤으로써 궁궐 제도를 완비한 것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소한(霄漢), 운한(雲漢) 등 하늘을 가리키는 뜻으로 '한(漢)' 자를 취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大漢)은 '큰 하늘'이라는 뜻을 담아 '한성이 창대해진다'는 뜻을 품고 있다.

대한문에 담긴 이러한 뜻은 경복궁의 광화문(光化門), 창덕궁의 돈화문(敦化門), 창경궁의 홍화문(弘化門), 경희궁의 흥화문(興化門) 등 모든 궁궐의 정문에 교화와 덕화를 뜻하는 '화(化)'가 들어가 있는 것과는 지향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1905년(고종 42)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고종의 의지가 대한문 현판에 담긴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1907년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 파견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났다.[10)]

현재 대한문은 태평로에 나란한 덕수궁 담장에서 뒤로 살짝 물러난 곳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는 덕수궁 중건 당시의 자리가 아니다. 덕수궁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태평로가 정비되면서 몇 차례 잘려 나갔고, 궁궐 담은 그때마다 철거되고 다시 세워졌다. 1960년대에는 궁궐의 모습을 밖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담장이 철거되기도 했다. 현재의 담장은 궁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다시 쌓았고, 도로 한복판에 남았던 대한문은 뒤로 물러나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궁궐의 진입 부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가 금천교(禁川橋)다. 금천교는 궁궐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다리로 궁궐의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기준점이다. 덕수궁 남측으로 흐르는 정릉동천 물길을 궁궐 안으로 끌어들여 금천교를 만들었는데, 이 물길은 다시 궁 밖으로 흘러 지금의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청계천으로 합류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금천교는 덕수궁 건설 당시의 금천교가 아니다. 덕수궁은 두 개의 정문이 있었던 까닭에 다른 궁과 달리 유일하게 두 개의 금천교를 지녔던 궁궐이다. 첫 번째 금천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환궁했을 때 있었던 다리다. 당시의 금천교는 덕수궁 남측에 인화문이 들어서면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인화문의 위치가 현재의 중화문 자리로 추정되고 즉조당이 중화전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천교의 위치는 현재의 중화전과 중화문 사이가 유력하다. 중화전 조정(朝庭)의 정4품 품계석 주변에 구멍이 뚫린 박석이 있는데, 박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이곳에 금천이 흐르고 그 위에 금천교가 놓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첫 번째 금천교는 1902년(고종 39) 중화전이 건설되면서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금천 또한 복개되어 그 자리에 조정이 마련된 것이다.

두 번째 금천교는 중화전이 새로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현재의 것이다. 1900년 이후 정문 역할을 한 대안문과 1902년 덕수궁을 중건하면서 세운 조원문(朝元門) 사이에 있던 이 금천교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시기에 땅에 묻혔다가 1986년에 발굴·복원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금천교는 대한문과 금천교 사이의 거리가 짧아 매우 초라해 보인다. 이는 태평로가 확장되면서 대한문이 서쪽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11)]

중화문과 중화전

중화문(中和門)은 본래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의 정문이었다. 현재는 금천교를 건너면 곧바로 중화문에 이른다. 이는 경복궁과 창덕궁에 비해 너무 소략한 공간 구

중화문과 중화전.

성이다.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에 가기 위해서는 광화문-흥례문-근정문을,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에 가기 위해서는 돈화문-진선문-인정문을 거쳐야 한다. 경복궁과 창덕궁의 예에 따라 1902년(고종 39) 덕수궁을 중건하면서 대안문과 중화문 중간에 조원문을 설치하여 삼문 구조를 갖추었다. 그러나 대한문에서 금천교를 지나 중화전에 이르는 길 사이에 있던 조원문이 덕수궁 공원화 과정에서 철거되면서 대한문-조원문-중화문의 삼문 체제가 붕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화전(中和殿)은 덕수궁의 핵심 공간으로서 왕의 즉위식과 조참의례(朝參儀禮), 외국 사신 접견 등 중요한 국가 의식을 행하던 정전이다. 그런데 중화전은 경복궁의 근정전(勤政殿), 창덕궁의 인정전(仁政殿), 창경궁의 명정전(明政殿), 경희궁의 숭정전(崇政殿) 등 정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政)'이 아닌 '화(和)'자가 들어가 있다. 근정전은 '나랏일에 부지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인정전은 '어진 정치를 편다', 명정전은 '정치를 밝힌다', 숭정전은 '정사를 드높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정전의 명칭에는 대개 임금을 비롯한 정전에서 일하는 신료들에게 기대되는 덕목이 반영되어 있다. 하나같이 올바른 정치를 통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염원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유독 중화전에 '정'이 아닌 '화'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덕수궁은 1897년(고종 34) 선포된 대한제국의 황제가 거처하던 궁궐이다. 따라서 중국에 사대(事大)의 예를 행하던 제후 국가인 조선의 여타 궁궐의 정전과 명칭이 다를 필요가 있었다. 중화전의 '화'는 『주역』의 건괘(乾卦)에 "보전대화 내리정(保全大和乃利貞)"이라는 글귀에서 따왔다. 이는 우주의 화합과 협조를 보존하면 모든 일이 이로움을 얻는다는 뜻으로, 오래도록 평안하게 통치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환궁할 당시의 중심 건물은 함녕전(침전)과 즉조당(정전)이었다. 함녕전은 처음에는 선덕전(宣德殿)으로 불렸다가 바뀐 것이고, 즉조당은 태극전(太極殿)과 중화전(中和殿)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런데 1900년(고종 37) 10월 14일 덕수궁의 정전과 선원전이 화재로 모두 불타 버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종은 1901년 8월 25일 영건도감을 설치하고 이듬해 5월 12일 새 정전의 명칭을 중화전으로 하였다. 이때 지어진 중화전의 규모는 전면 5칸, 측면 4칸의 2층 건물이었으며, 주변 행각(복도 건물)은 128칸에 달했다.[12)]

1904년 화재 이전의 덕수궁 모습.

그러나 덕수궁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04년(고종 41) 4월 14일 발생한 대화재로 덕수궁의 중심 건물들이 잿더미가 되었던 것이다. 중화전이 복원된 것은 1906년(고종 43) 1월의 일이다. 이때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단층 건물로 세워졌는데, 정면 5칸 중 중앙에 위치한 어칸을 넓게 만들어 상징성과 기능성을 높였다. 건물 안에는 어좌(御座)와 보개(寶蓋)가 있는데, 보개 중앙에는 두 마리의 용이 새겨져 있다.

중화전을 받치고 있는 월대는 이중으로 하여 격을 갖추고 있다. 월대에 오르는 계단 중앙에는 용이 새겨진 답도가 있다. 중화전 월대에는 드므(또는 두멍, 방화수 따위를 담는 넓적한 독)가 놓여 있는데, 상단 오른쪽 드므에는 나라가 태평스럽게 만년토록 오래 지속되라는 뜻의 '국태평만년(國泰平萬年)'이란 글씨가, 왼쪽 드므에는 성스러운 임금의 수명이 만년토록 오래 지속됨을 기뻐한다는 뜻의 '희성수만세(囍聖壽萬歲)'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중명전(수옥헌)

중명(重明)이란 본디 '일월이 함께 하늘에 있어 광명이 겹친다'는 의미로, 임금과 신하가 각기 제자리에서 직분을 다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명전은 광명은 고사하고 대한제국의 비운의 역사 현장으로 기록되고 말았다.

원래 중명전 구역은 정동의 서양 선교사들의 거주지였으나, 1897년(고종 34) 덕수궁이 확장되면서 궁궐로 편입되었다. 최초의 중명전은 1899년 이전에 건축되었는데, 이때는 수옥헌으로 불리며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01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틴(A. I. Sabatin)의 설계로 다시 세워졌다. 이때 신축된 건물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본래는 덕수궁 서편 경내에 있다가 일제가 1922년에 중명전과 석조전 사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궁 바깥으로 떨어져 나왔다.

대한제국 황실 도서관으로 사용되던 수옥헌의 운명을 바꾼 것은 1904년의 대화재였다. 덕수궁의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자 고종은 수옥헌에 거처를 정하고 화재 수습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편전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당호가 수옥헌에서 중명전으로 바뀌었다.

일제에 의해 도로가 개설되면서 덕수궁 바깥으로 떨어져 나온 중명전.

한편 중명전은 1905년(고종 42) 11월 17일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장소이자, 1907년 7월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장소이기도 하다. 1910년(순종 4) 한일병합조약 이후 일제가 덕수궁을 축소 · 훼손하면서 중명전은 경성구락부(Seoul Club)에 임대되었고, 1925년 화재로 외벽만 남고 소실된 뒤 다시 재건하여 외국인을 위한 사교 클럽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 자유당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유 재산으로 편입되었다가,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귀국한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에게 중명전을 돌려주었다. 중명전은 1977년에 다시 민간에 매각되었는데, 관리 소홀과 개조로 원형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그 후 2003년 정동극장에서 매입한 뒤 2006년 문화재청에 관리 전환하여, 2007년 2월 7일 사적 제124호로 덕수궁에 편입되었다. 2009년 12월 복원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전시관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석조전

중화전 서쪽에 위치한 석조전(石造殿)은 건물 전체가 돌로 만들어진 3층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이다. 석조전은 1893년(고종 30) 이래 대한제국 총세무사로 일했던 영국인 브라운(John M. Brown)의 권유로 짓기 시작했다. 설계는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영국인 건축가 하딩(J. R. Harding)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설계에만 2년여가 소요되었다.

1900년(고종 37) 말에 시작된 기초 공사는 1901년에 마무리되었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미루어졌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같은 해에 시작된 중화전 공사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3년 9월에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이때 설계를 맡았던 하딩이 공사감독으로 임명되었다. 공사 진행 도중 석조전 공사를 발의한 브라운 총세무사가 1904년(고종 41) 11월 일본인 재정고문으로 교체되었고, 1905년부터는 영국인 데이비슨이 하딩에 이어 공사감독을 맡아 1910년(순종 4) 6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석조전은 그리스 건축을 조형(祖型)으로 르네상스 양식을 가미한 이른바 콜로니얼 스타일(식민지 양식) 건물로서, 같은 모양의 건물이 18세기 이후 영국 식민지 여러 곳에 세워진 바 있다. 또한 영국인 하딩의 설계로 같은 기간에 서양식 정원과 분수대가 세워졌다.[13)]

석조전 전경.

석조전은 고종 황제의 집무실과 외국 사신들의 접견실로 사용할 목적에서 지어졌다. 1층에는 시종들이 대기하고, 2층은 황제의 접견실, 3층은 황제와 황후의 침실과 응접실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석조전이 완공될 당시 덕수궁은 더 이상 황제가 거처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1919년 고종 서거 이후 미술관으로 개조된 석조전에서 일본 미술품만 전시하는 데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1936년 이왕직(李王職)이 석조전에 잇대어 건물을 짓고 창경원 박물관의 소장품을 옮겨 오기로 결정했다. 2년여의 공사 끝에 1938년 새로운 미술관이 완성되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석조전 서관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석조전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함녕전과 덕홍전 전경.

함녕전과 덕홍전

함녕전(咸寧殿)은 1897년(고종 34)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할 당시 왕의 침전으로 건립되었다. 함녕전은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온돌방을 들이고 툇간에 방을 두른 전형적인 침전 건물이다. 고종은 이곳에서 거처하다가 68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승하 후 함녕전은 고종의 빈전 및 혼전(魂殿)으로 사용되었다.

덕홍전(德弘殿)은 1896년(고종 33) 명성왕후의 빈전으로 지어졌다. 원래 이름은 경소전(景昭殿)이었으나, 1897년 1월 6일 경효전(景孝殿)으로 바뀌었다. 고종은 명성왕후의 국장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혼전으로 사용토록 했다. 그러다가 1912년에 전혀 다른 용도의 건물로 변화한다. 일제는 순종의 알현실(謁見室)이었던 창덕궁 인정전을 모방하여, 경효전을 개조하여 덕수궁에 거주하던 고종의 알현실로 바꾸었다.

경효전이 덕홍전으로 개조되면서 정면의 문들도 서양식 판문으로 바뀌었다. 편전 중에서 유일하게 여닫이문이 설치된 이유이다. 덕홍전 내부에는 조명 시설이 갖추어졌고, 바닥은 마루로 변경되었으며 서양식 커튼이 설치되는 등 내부는 서양풍으로 장식되었다. 덕홍전의 정문인 융안문(隆安門)은 경효전 시절에는 맞배지붕이었으나 덕홍전으로 개조되면서 팔작지붕으로 바뀌었다.[14)]

3. 정동의 근대문화유산과 볼거리들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11:00, 14:00, 15:30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을 거행한다. 조선시대 왕궁에는 수문군이라는 군대가 있어 궁궐 문을 개폐, 경비, 순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수문군은 기마대 2명이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으로 수문장의 인솔 하에 참하, 수문군, 승정원주서, 액정서사약, 취라척의 순서로 총 78명의 수문군이 등장한다. 취타연주대인 취라척의 북소리에 맞춰 수문군이 모두 도착하면 교대 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가장 먼저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개식타고'를 한다. 개식타고 후 바로 '군호하부의식'이 거행된다. 군호하부의식이란 군호(암호)를 매일 병조에서 세 글자 이내로 정해 국왕께 보고하고 국왕의 승낙을 받은 후 승정원에 내려주면 승정원 책임자 주서가 수문장과 수문군에게 알려주는 절차이다. 다음은 2대 수문군들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군호를 서로 묻고 답하는 '군호응대'가 진행된다. 군호응대가 끝나면 궁성문의 열쇠가 들어있는 약시함 인계 절차인 '초엄', 부신을 맞춰보고 순장패를 인계하는 '중엄', 수문군들이 서로 교대하는 '삼엄'으로 이어진다.

그다음은 수문장 교대 의식의 하이라이트인 '순라 의식'이다. 도성을 순찰한다는 의미의 순라 의식은 덕수궁 대한문을 출발해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경유해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새롭게 복원된 광화문을 배경으로 서 있는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취라척의 연주 공연도 진행된다. 그다음으로는 궁성문을 수위하고 있는 수문군과 순라 의식을 마치고 돌아온 수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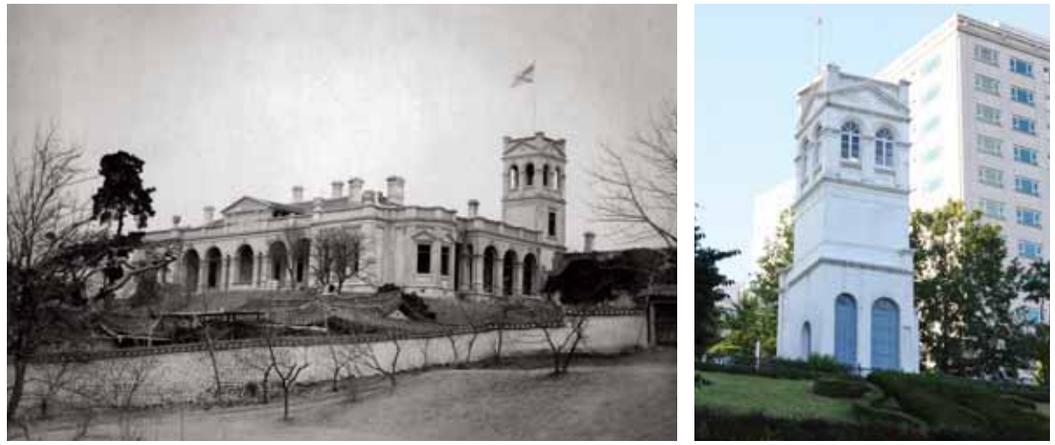
대한문 앞에서 하루 세 번 펼쳐지는 수문장 교대식.

과의 교대 절차인 '교의 의식'이 진행된다. 끝으로 모든 의식을 마쳤다는 의미의 '예필 의식'을 한다. 부대 행사로는 '전통 복식 체험 행사'와 '수문장과의 기념 촬영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수문장 교대 의식은 영국 왕실의 근위병 교대 의식과 비견되는 화려하고 품위 있는 한국 전통 궁중 문화 재현 행사이다. 예전에는 공익요원이 재연 행사를 했지만 요즘에는 점문 배우들이 참여한다고 한다.[15)]

러시아공사관터

1880년대 조선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 공사관이 하나둘 서울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중 서양 여러 나라의 공사관은 주로 정동 일대에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용산과 남산 자락 일대가 일본의 영향권, 청계천 일대가 중국의 영향권이었던 데 비해 정동 일대는 서양 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다. 미국 공사관은 현재 미국 대사관



아관파천의 현장이었던 옛 러시아 공사관과 그 현재 모습.

저(하비브 하우스)로, 영국 공사관은 현재 영국 대사관으로 쓰이고 있다. 러시아 공사관은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 미국 대사관저의 서북편, 경향신문사 동쪽 나지막한 산자락에 건물의 일부가 탑처럼 남아 있다. 프랑스 공사관은 현 창덕여자중학교 운동장 자리에 있었다.

러시아 공사관은 1884년(고종 21) 7월 7일 조러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된 이듬해인 1885년에 착공되어 1890년에 준공되었다. 러시아 공사관은 르네상스풍의 우아한 벽돌 건물로 2층 구조의 건물 한쪽에 탑을 세운 형태였으며, 그 건물과 대지 규모에서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공사관보다 컸다. 러시아 공사관은 비교적 수목이 무성하고 지대가 높았던 상림원(上林苑) 지역을 끼고 세워진 탓에 이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공사관 건물의 핵심은 3층으로 된 전망탑 부분이었는데, 가뜩이나 공사관 자체가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곳에 오르면 경복궁과 덕수궁 등 서울 4대문 안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곳은 1896년(고종 33) 2월 11일 고종이 세자와 함께 옮겨 와 이듬해 2월 20일 덕수궁으로 환궁할 때까지 피신했던 소위 아관파천(俄館播遷)의 현장이기도 하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고 동서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폐쇄되었고, 6 · 25전쟁으로 대부분이 파괴되고 탑 부분과 지하 공간만 남게 되었다. 1973년에 현재의 모습대로 복원하였고, 1981년 주변의 조경과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다.[16)]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었던 손탁호텔.

손탁호텔 터

손탁호텔은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호텔으로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인척인 앙투아네트 손탁(Antoinette Sontag)이라는 여인이 경영하였다. 손탁은 러시아 공사 부인의 추천으로 명성왕후와 연을 맺어 궁중에 드나들면서 서양 요리를 만들고 외빈을 접대하는 역할을 맡았다. 손탁은 타고난 사교성과 능숙한 조선어로 명성왕후는 물론 고종과도 거리낌 없이 마주 대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후 손탁은 러시아 공사관과 궁중을 수시로 오가며 양측의 연락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 후 명성왕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 할 때 그 다리를 놓았던 것도 손탁이었다. 그 공로로 손탁은 왕실 소유의 정동 29번지의 집을 하사받아 1895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살롱을 개설하였다. 이후 이곳은 정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서양인들과 민영환, 윤치호, 서재필, 이상재, 이완용 등 그들과 관련된 세력의 고급 사교장 역할을 하였다.

손탁은 1896년(고종 33)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에게 서양 음식을 대접하는 일도 맡았다고 한다. 1902년(고종 39) 3월 손탁은 한옥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2층 양옥의 손탁호텔을 건립하였다. 손탁호텔은 본래 황실 궁내부에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여배당인 정동제일교회.

거액의 자금을 들여 지은 궁내부 소속의 특정 호텔이었다. 대외관계가 복잡해지고 외국 귀빈들의 방문이 빈번해지면서 그들을 접대하고 머물게 할 영빈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1902년 10월 건물을 준공하고 손탁에게 경영을 맡겼다.

그러나 손탁호텔은 러일전쟁(1904)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09년 9월 손탁이 프랑스로 돌아간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되다가 1917년 이화학당에 팔렸다. 이화학당은 1922년에 호텔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3층짜리 프라이홀을 지었다. 그러나 이 홀도 1975년 화재로 없어지고, 현재는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이 들어서 있다.[17)]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고종 24)에 미국인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세운 감리교회이다. 19세기 조선에 세워진 유일한 서구식 개신교 예배당으로서 창립 초기 정동제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배재학당장을 겸하고 있어, 교인의 상당수가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의 학생들이었다. 서재필이 미국 망명에서 돌아온 후 협성회(協成會)를 조직하였을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현재는 이화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때, 그 활동을 주도한 노병선 · 이승만 · 신흥우 등이 정동제일교회의 청년들이었다.

정동제일교회 예배당에서는 개화기 이래 수많은 강연회와 음악회 등이 열리기도 하였다. 개화 개혁운동과 민족운동의 지도자였던 노병선 · 최병헌 · 현순 · 손정도 등도 이 교회를 거쳐 간 인물들이다. 삼일운동 때는 담임목사였던 이필주와 장로 박동완이 민족 대표로 참가하여 교회 전체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화학당(이화여고 심슨기념관)

이화학당(梨花學堂)은 우리나라 여성 신교육의 발상지로서, 1896년(고종 33) 5월 미국 북감리회 여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세운 사립여학교이다.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은 1897년(고종 34) 명성왕후가 내린 것이다. 1904년(고종 41)에 4년제 중등과를 설치하였으며, 1908년(순종 2) 보통과와 고등과를 신설하였다. 이후 1910년(순종 4) 4월 4년 과정의 대학과를 신설하여 초등 · 중등 · 고등교육을 모두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이화여고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인 심슨기념관은 미국인 사라 심슨 여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전경.

사가 세상을 떠나며 위탁한 기금으로 지은 건물로서 1915년에 세워졌다. 심슨기념관은 현재 이화여고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이화학당의 역사와 다양한 옛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편 심슨기념관 뒤쪽에는 유관순 열사가 사용했던 우물이 보존되어 있다.[18)]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배재학당(培材學堂)은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5년에 세운 기독교계 학교이다. '배재학당'이라는 교명은 학교 설립 소식을 들은 고종이 1887년(고종 24) 2월에 하사한 것이다. 처음에는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의 집에서 시작하였다가 1887년 9월 반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된 벽돌 교사를 신축하였다. 건물에는 예배실과 4개의 교실, 도서실, 학당장실, 사무실 등이 있었고, 반지하에는 학생들의 기술 훈련을 위한 산업부의 공작실이 있었다. 초기부터 학당 내에 활판소를 설치하여 영문과 한글 활자를 주조하였는데, 초창기에는 『독립신문』도 여기에서 인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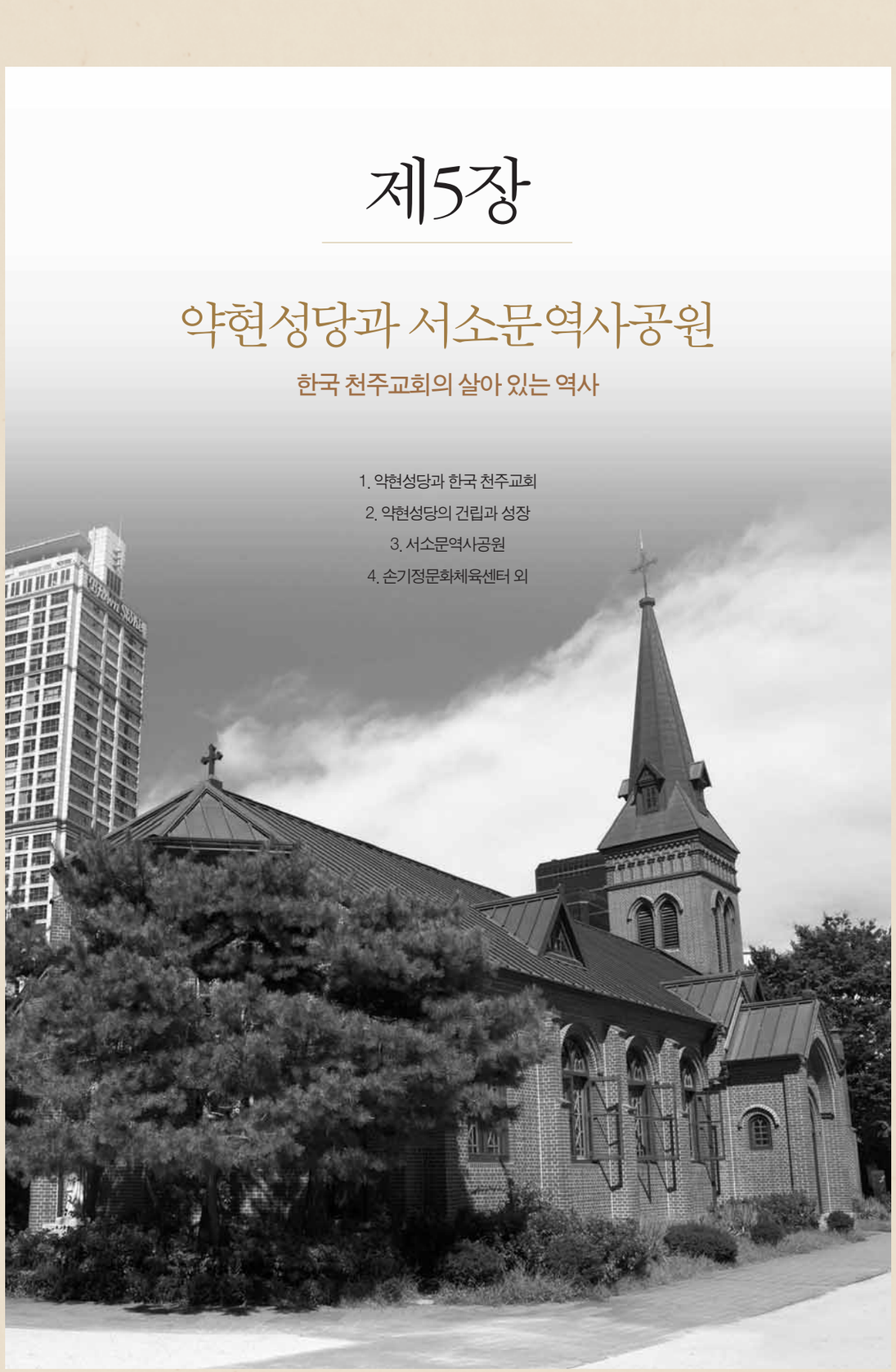
1896년(고종 33) 11월 30일에는 서재필의 지도 아래 배재학당 학생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당 내에 협성회가 조직되어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관지 『협성회보』를 발행하였다. 협성회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 당시 개화 개혁운동의 일선 선봉대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는 동관 건물만 역사박물관으로 모습을 바꾸어 자리를 지키고 있다.[19)]

제5장

약현성당과 서소문역사공원

한국 천주교회의 살아 있는 역사

1. 약현성당과 한국 천주교회
2. 약현성당의 건립과 성장
3. 서소문역사공원
4.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외



중림동 약현성당은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교회 건축물로 1891년에 착공하여 1892년에 준공되었다. 약현(藥峴)은 만리동에서 서울역으로 넘어오는 고개 이름인데, 옛날 이곳에 약초밭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부 개조와 외부 벽돌 교체 등 수차례의 개보수공사로 건물의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1998년 방화로 소실되어 대대적인 원형 복원공사를 했다. 약현성당은 순수한 고딕 양식은 아니지만 벽돌을 직접 만들어 세운 최초의 서양식 교회 건축물이라는 점, 그리고 이후 한국 교회 건축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 건축적 가치가 크다.

1. 약현성당과 한국 천주교회

한국최초의 서양식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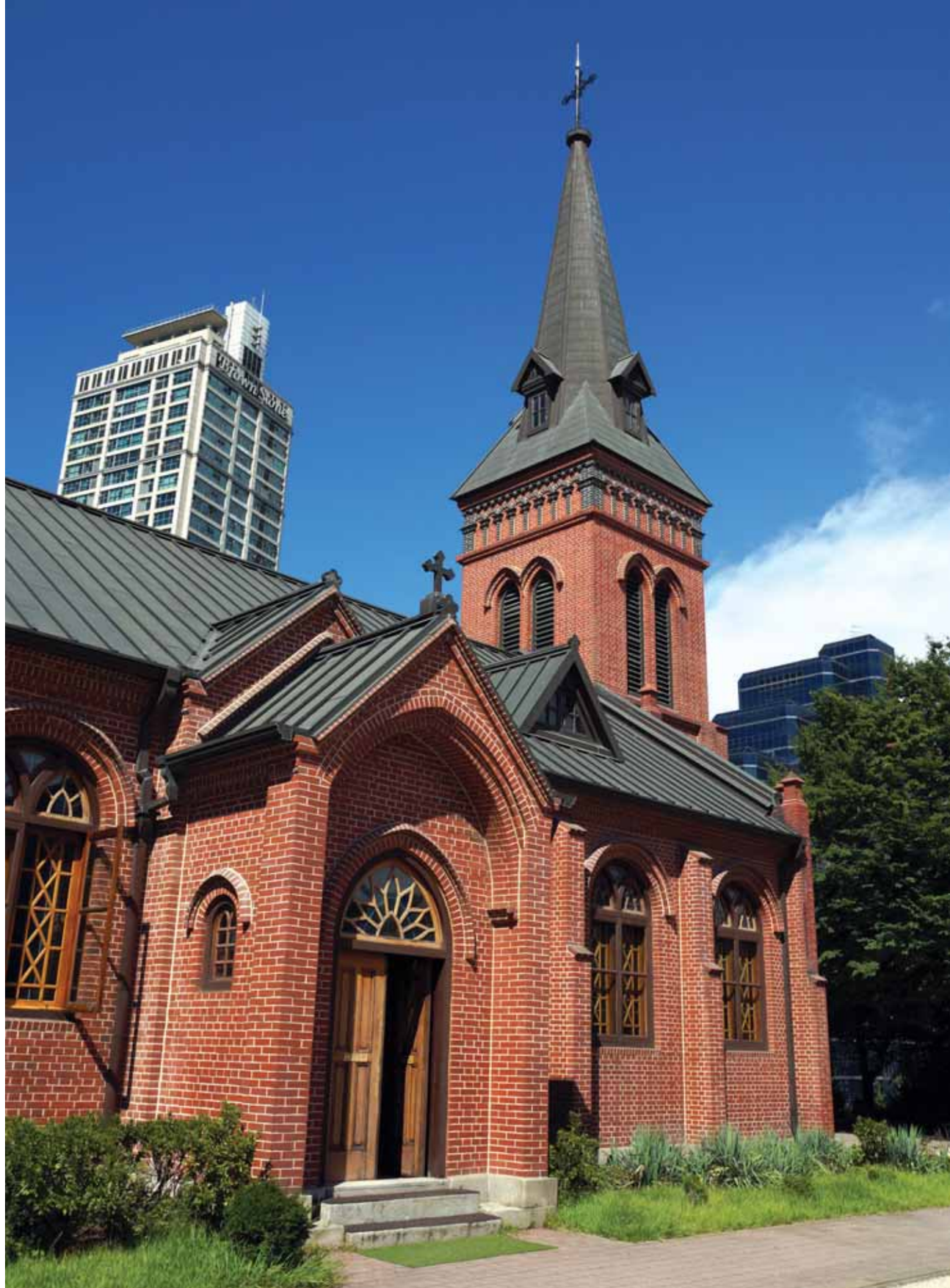
약현성당(藥峴聖堂)은 서울 중구 중림동 약현(藥峴) 언덕에 세워져 있는 천주교 성당이다. 벽돌로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회 건축물로서, 본당은 사적 제252호로 지정되어 있다. 옛날에 이곳에 약초를 재배하는 밭이 많아 약전현(藥田峴)이라 불리다가 후에 줄여서 약현이라 하였는데, 이를 따라 성당 이름도 오랫동안 약현성당이라 불리고 있다. 공식적인 명칭은 중림동약현성당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창립 이래 백여 년의 박해를 받아오다가,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 체결을 계기로 제한적이나마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여 1887년에는 서울의 신자만도 800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천주교회는 1887년 남대문 밖 수렛골(지금의 순화동)에 명동(종현) 본당 산하의 공소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교리를 강습하였다. 그러던 것이 1890년경에 이르자 서울의 교인 수가 증가하여 문안 586명, 문밖 950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교회는 중림동 약현에 새로운 본당을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대지를 구입하여 1891년 10월 27일에 정초식(定礎式)을 갖고 성당 건축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약현성당 본당은 서울에서 두 번째 본당으로 승격하였고, 두세(Doucet, 한국명 정 가밀로) 신부가 초대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1)]

한국천주교회의 출발과 서학

한국 천주교는 조선 선조 · 광해군 때 연경 사신을 통하여 서학(西學)이라는 이름



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그러나 신앙으로서의 천주교는 1831년 중국 북경교구로부터 조선교구로 독립하면서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1886년 5월 3일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되고 이듬해 4월 8일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선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천주교세는 크게 확장된다.

한국 천주교회는 비록 역사는 짧지만 그 초창기 시작은 신도들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선교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천주교 신앙이 싹트게 된 것은 한국인들의 천주교에 대한 헌신에 의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서양 선교사들의 한문으로 쓰여진 교리서들이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들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고, 그것을 읽고 비판하고 묵상함으로써 자생적인 신앙이 싹트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는 외국 선교사들의 교리 서적을 통한 전교 노력과 그 종교 서적을 읽고 연구하고 받아들인 한국인들의 노력이 합쳐서 이루어진 특별한 출발을 보여준다.

16세기 이후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동양 선교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선교사의 직접적인 선교가 불가능했다. 서양 세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북경을 왕래하던 조선의 사신들은 중국에 전해진 서양 문물에 호기심을 가지는 한편,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꼈다. 그리하여 과학문명 기구들과 함께 서양 종교에 대해 기술된 책들을 조선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책들 가운데 마테오 리치 신부가 저술한 「천주실의(天主實義)」와 판토하 신부가 저술한 「칠극(七克)」은 조선에 유입되어 가장 많이 읽히고 비판된 책이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를 통해 서양 종교의 체계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2)]

천진암 주어사 강학회와 이벽

당시 서학에 관심을 가진 유학자들은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로서, 이수광을 비롯하여 성호 이익과 그의 제자 안정복 등이 대표적인데, 학파로 보면 당시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학문을 연구하던 남인계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서학 연구가 성행하자 조선 정부에서는 점차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숙종 12년(1686년)에는 서학의 성행을 막고자 국왕에게 대책을 요청하는 상소가 있었으며, 영조 34년(1758)에는 황해도, 강원도 지방 관찰사로 하여금 서학의 연구와 실천을 금하라는 명이 있었고, 정조 때에는 서학 서적의 구입을 금하는 명도 있었다.

천주교 강학회를 이끈 이벽과 한국 교회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의 초상.

그럼에도 남인계 학자들을 중심으로 서학에 동조하는 이들이 모여 서학을 더 깊이 연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벽(李檗)과 이가환(李家煥) 등은 경기도 여주군의 주어사(走魚寺)와 광주군의 천진암(天眞庵) 등지에서 강학회(講學會)를 열었는데, 이때 참석한 인물들은 권철신, 권일신, 권상학,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 이총억, 이승훈 등이다. 이들은 서학에 관계된 책들을 연구하고, 우주의 원리, 하늘, 세계, 인간 등을 깊이 연구하다가 천주교 교리에 승복되어 조직적으로 종교 생활을 시작하였다.

강학 모임의 주도자는 이벽이었지만 아무래도 그들이 지닌 교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승훈의 부친이 북경에 사신으로 가는 기회가 생기자 이벽은 강학에 참석했던 이승훈을 북경에 파견하여 교리 서적을 구하고 교리를 배워 세례를 받을 것을 청하였다. 북경에 도착한 이승훈은 1784년 봄에 프랑스 출신 예수회의 그라몽(Grammont) 신부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한국교회 최초의

그리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는 이승훈.

세례자가 된다. 그 후 이승훈은 조선에 돌아와서 이벽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벽과 이승훈은 천진암 주어사 강학회에 모였던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이들로 하여금 여러 곳에서 전교하게 한다.[3)]

천주교 박해와 한국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 공동체는 이로써 이벽과 이승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785년 을사년에 추조에 의해 적발되어 문초를 받았고, 참석자들 중 양반 출신은 풀려났으나 중인 출신의 역관인 김범우(토마)는 귀양을 가서 옥고 끝에 숨을 거두게 되어 최초로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훈은 한동안 교회 활동에서 멀어졌고, 이벽은 집 안에서 유폐되어 지내던 중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가성직제' 형식으로 자체적인 신앙 활동을 지속하다가 중국 북경의 프랑스 성직자에게 편지를 보내 성직자 파견 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

천주교 박해를 묘사한 풍속화.

력을 기울였다. 당시 북경의 주교였던 구베아(Guvea)는 조선 교인들의 청을 받아들여 중국인 레메디오스(Johanne Dos Remedios) 신부를 파견하였으나, 1791년 신해박해 사건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다시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파견되어 1794년에 조선에 입국하게 되는데, 주문모 신부는 4,000명의 조선 교인들을 지도하였다고 한다.

19세기 말에 이르자 결국 조선에도 서세동점의 물결이 밀려왔고, 1882년 미국을 필두로 하여 한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유럽 열강들과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특히 1886년 프랑스와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어 불완전하나마 선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전까지 숨어 살며 어렵게 전교하던 프랑스 성직자들도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며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당이 설정되고 성당 안에서 종교 집회를 자유롭게 갖게 되었는데, 최초의 서울 본당은 순교한 김범우의 옛 집에 종현(지금의 명동) 본당이라는 명칭으로 1882년에 설립되었고, 10여 년의 공사 끝에 1898년 5월 29일 대성당이 완공되어 축성되었다. 그에 앞서 1892년에는 약현(현 중림동 성당) 본당이 종현 본당으로부터 분리되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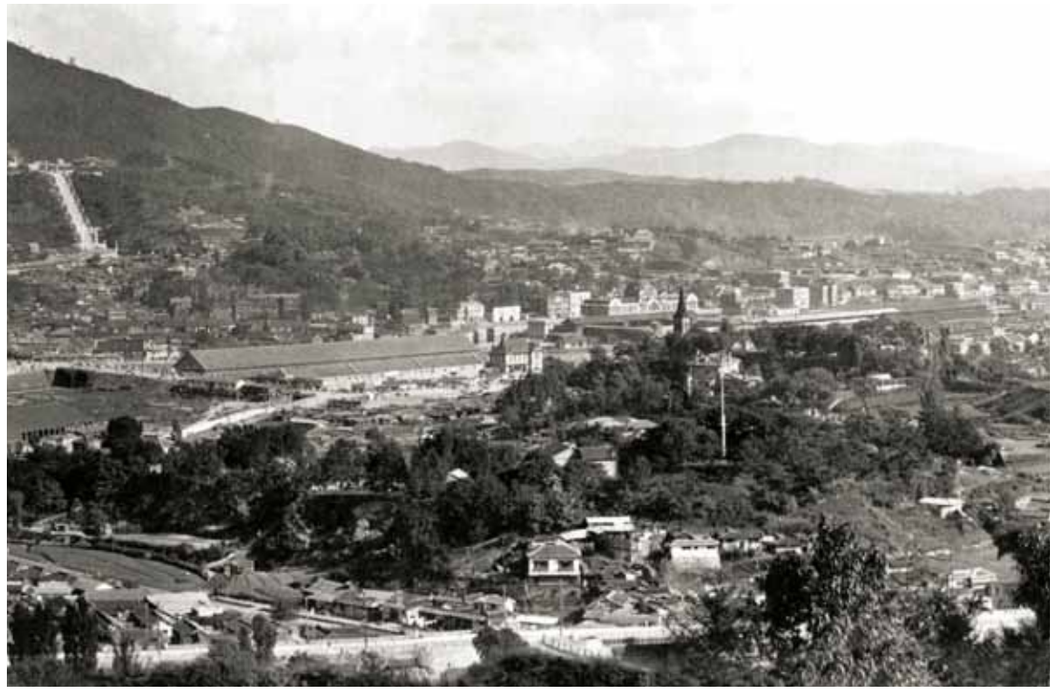
2. 약현성당의 건립과 성장

약현본당의 건축

약현 본당의 건축은 프랑스 신부인 코스트(E. G. Coste)가 설계하고, 중국인 기술자가 시공했으며, 주임신부인 두세 신부가 감독하였다. 코스트는 파리외방전교회(外邦傳教會) 소속으로 1868년 동아시아에 와서 홍콩 · 싱가포르 · 상해 · 만주 · 일본 등에서 건축 일에 종사하였다. 그는 한불조약이 체결되기 전인 1885년 내한했으며, 조선 교구 경리부(經理部)에 소속되었다. 코스트 신부는 약현성당 · 명동성당 등 서울권에서 이루어지는 천주교 관련 건축 설계와 감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두세 신부는 이 건물의 착공 직후부터 코스트 신부와 러시아인 사바틴(A. I. S. Sabatin) 등의 자문을 받아가며, 불철주야 공사 감독에 매달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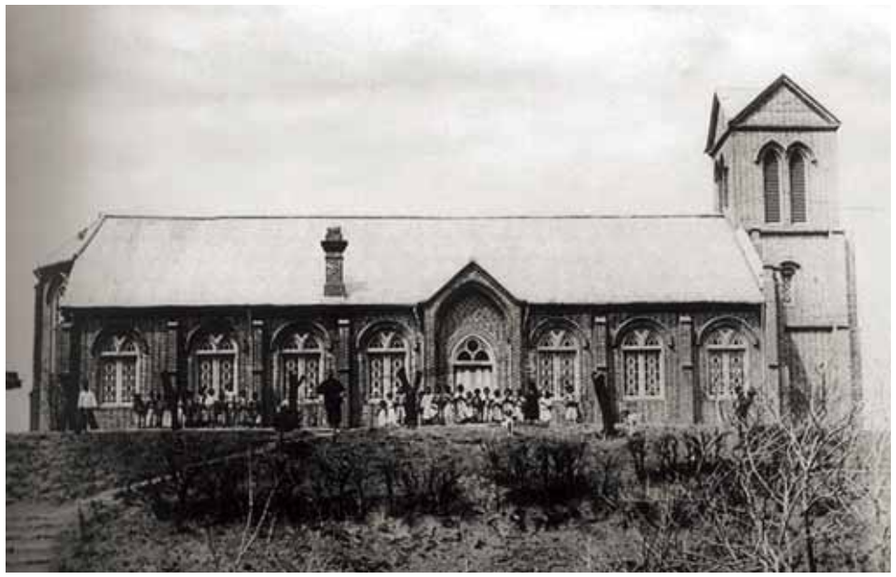
약현성당 본당은 1892년 6월 외부 공사, 7월 바닥 공사 마무리를 거쳐 11월 6일 마침내 완공되었고, 1893년 3월에는 프랑스에서 제조한 442kg의 종이 도착하여 종각에 설치되어 4월에 첫 타종되었다. 그리고 4월 23일 부활절을 기해 축성 미사를 거행하였다. 9월 25일에는 신부 피정(避靜)이 끝난 이후 모든 선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당 강복식(降福式)이 행해졌다.

약현성당은 1898년 완공된 명동성당보다 6년이나 앞서 세워진 한국 최초의 고딕 양식 벽돌조 성당으로서, 명동성당이 완공되기 전에 사제 서품식이 두 차례나 거행되기도 하였다. 성당 내의 종은 성 요셉 종, 본당 주보는 성 요셉 성인이다. 1917년 두세 신부가 선종하자 2대 비에모 신부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전하기로 이 장소에 성당을 세운 것은 중국 북경에 들어가 서양인 신부로부터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의 집이 이곳과 인접한 곳에 있었고, 신유(辛酉, 1801) · 기해(己亥, 1839) · 병인(丙寅, 1866) 천주교 수난 때에 44명의 천주교도들이 이곳에서 가까운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약현성당 주변 풍경. 중앙에 약현성당이 보이고 그 왼쪽 상단에 경성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초기 약현 본당의 관할 공소들은 경기도 일대를 위시하여 멀리 송도(개성)를 지나 황해도 배천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본당의 교세는 날로 확대되어 1901년에는 송도 공소를, 1905년에는 행주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하여 분리 독립시켰다. 또한 1932년에는 영등포 본당(지금의 도림동 본당)을 분리 독립시키고, 1947년에는 잠실 · 반포 · 양재 · 방배 · 서초 등의 공소를 묶어 잠실(잠원동) 본당으로 분리 독립시켰으며, 1949년에는 후암동, 홍제동 본당을 분리 독립시키는 등 지금은 약 90개의 자(子) 본당을 두고 있다고 한다.[5)]



1900년경의 약현성당.

약현성당 건축의 특징

2층의 적벽돌 건물인 약현성당의 건축 연면적은 382.33㎡(약 115평)로서, 1층 333.73㎡(약 100평), 2층 48.6㎡(약 15평)의 긴 장방형 구조이다. 길이 32m, 폭 12m의 삼랑식(三廊式)으로 중앙 신도석인 네이브(nave)와 양측 통로인 아일(aisle)의 구분이 뚜렷하다. 네이브의 폭은 아일 폭의 2배이다. 네이브 천장은 만곡형(彎曲形) 리브(rib)의 뾰족 볼트이고, 아일 천장은 반원형 볼트이나 구조적 개념의 볼트가 아니고 목재의 장식적 볼트이다. 내부 벽면 창은 단층으로 공중회랑이나 고측창(高側窓)이 없다. 천장 구조는 목구조이며, 지붕 마감재는 함석이다.

이 건물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절충되어 있다. 건축 당시 고도의 기술과 많은 공사비가 요구되는 고딕 양식으로 이 건물을 짓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절충형으로 건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905년 높이 22m의 첨탑을 세워 종을 달았고, 1921년에는 남녀를 구분하는 내부 칸막이를 제거하고 벽돌 기둥을 돌기둥으로 교체하는 등 내장 공사를 하였다. 그 후 긴 세월이 지나며 훼손된 건물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기로 하고 1974년 기공식을 하여 1976년 4월 부활절을 기해 성당 복원식을 가

약현성당과 서소문 순교자기념관 전경.

약현성당의 역사는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와 함께한다.

약현성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 내부.

졌다. 이 공사로 본당의 외벽을 수리하고 문짝 등을 교체하였으나 원형을 충실히 살려 보수하였다.

한편 1998년 2월 11일 오전 9시경, 약현성당 본당 건물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성당 내부가 완전히 소실되고 종탑 일부가 훼손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같은 해 3월 성당 재건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1년여에 걸친 성전 복원 기금 모금 등 성당 재건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화재 발생 2년 만에 건립 당시의 옛 모습과 더욱 가깝게 복원하였다. 성당의 복원을 기념하여 2000년 9월 17일 정진석 대주교 집전으로 봉헌식을 거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6)]

약현성당은 본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벽돌조 건축물이자, 신교와 구교를 통틀어 한국 최초의 교회 건물이다. 또한 1900년 이전의 몇 안 되는 양식 건축물 중에서도 일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용되어 우리 자체의 감독으로 시공된 드문 예라고 한다. 따라서 비단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한국 근대사와 건축사에서 매우 큰 가치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화재 이후의 복원 과정에서는 아담하면서도 장중한 약현성당의 면모를 최대한 되살리고 가능한 한 최대로 원형을 복원함으로써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하였다.

부대시설과 기관

약현성당은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시설과 기관을 두고 있다. 우선 교육시설로는 1901년에 여학교인 가명(加明)학교, 1906년에는 남학교인 약명(藥明)학교를 설립하고 1909년 이 두 학교를 가명학교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25전쟁으로 인해 이 학교는 폐교되었다. 1927년에는 가명유치원의 전신인 가명학교 유년반이 조직되었는데, 이 유치원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약현성당 내에 있는 순교자기념관성당과 옆 건물의 전시실에는 서소문 밖 성지 순례자들을 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성인들의 유해 일부와 선조들이 사용했던 유품과 고서적들도 전시되어 있다. 순교자기념관성당의 제대 중앙에는 성인 유해 16위, 오른쪽 벽면에는 서소문에서 순교한 성인 위패 44위, 왼쪽 벽면에는 서소문에서 순교한 순교자 위패 54위가 모셔져 있다.

이 중에는 특히 선교 초기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이 지니고 다녔던 유해 가운데 사도 성 바오로 성인의 유해와, 새남터에서 순교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 앵베르 범주교 및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순교한 성 남종삼 요한, 성녀 허계임 막달레나 등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약현성당 본당 구역 내에는 순교자기념관성당과 전시실 외에도 가톨릭출판사,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 종교음악원, 가명유치원과 가명어린이집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명동성당이 주교좌 본당이자 수도원과 교구 행정의 총본부라면, 중림동은 문화 시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7)]

3. 서소문역사공원

서소문공원에서 서소문역사공원으로

서소문공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2가에 위치한 도시 근린공원이다. 넓이는 2만여㎡에 달하며 분수대와 정자, 주차장 및 궁도장 · 게이트볼장 · 체력단련장 등의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시계탑과 기념비, 조각 작품 등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의 사소문 중 하나인 서소문 터는 본래 조선시대에 죄인들을 처형하던 장소이면서, 신유박해(1801) · 기해박해(1839) · 병인박해(1866)를 거치면서 가장 많은 천주교 신자가

서소문공원 입구의 표석.

서소문공원의 명물인 천주교기념탑.

처형된 천주교 성지가 되었다. 이곳에서 숨진 천주교 성인만도 44명에 이르러, 흔히 서소문 밖 순교지로 불린다.

서소문공원의 명물인 천주교기념탑은 1984년 순교자현양탑으로 세워졌다가 1999년 다시 건립한 것이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천주교기념탑은 높이 15미터의 주탑과 13미터의 좌우 대칭 탑 등 3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탑 기단 위는 유리로 막아 물이 흐르도록 하였는데, 이는 박해와 죽음의 상징인 칼과 생명의 상징인 물의 대비를 나타낸다. 주탑 앞부분에는 순교의 참상을 형상화한 청동조각을 붙였으며, 세 탑 모두 윗부분 구멍에서 가운데까지 7개의 금빛 선이 흘러내리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천주교 신자들은 탑 앞에서 잠시 기도를 올린다.

서울시 중구는 앞으로 2017년까지 근린공원인 이곳을 조선 후기의 역사를 기념하는 역사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현재의 공원 부지 지하에 조선 후기의 정치, 천주교 박해, 서소문 처형장의 역사 등을 테마로 한 2층 규모의 기념관을 설치할

서소문공원 안에 있는 분수대.

예정이다. 이는 특정 종교의 기념관이 아니라, 조선 후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종교 탄압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서소문공원이 역사공원으로 재단장하면, 한양 도성 밖의 처형지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서울 도심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관광 명소로서의 기능도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8)]

4.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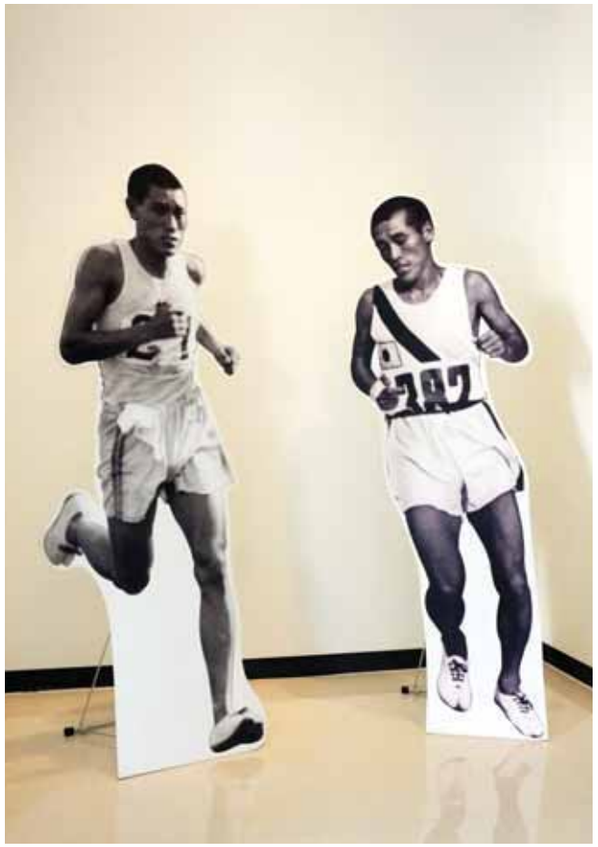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손기정

손기정(孫基禎, 1912~2002)은 일제강점기이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참가하여 우승한 금메달리스트이다. 비록 일장기를 달고 출전하는 비운을 겪었으나, 오늘날까지도 한민족의 자긍심의 표상으로 영원히 남아 있는 마라톤 왕이자 스포츠 영웅이다.

손기정은 1912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소학교를 졸업한 후 16세에 중국 단둥[丹東]의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차비가 없어서 신의주~압록강 철교~단둥에 이르는 20여 리 길을 매일 달려서 출퇴근하였다고 한다. '달리며 자라는 소년' 이었던 손기정은 여러 운동에 소질을 보였으나, 경비가 들지 않는 달리기를 하며 타고난 소질을 개발했다.

소학교 6학년 때 안의전(중국 안동과 신의주 간 대항경기)에 출전하여 어른들을 제치고 5,000미터에서 우승하였고 1931년 10월에는 전국체육대회(조선 신궁 대회)에 평안북도 대표로 출전하여 5,000미터에서 2위를 하였다. 이듬해 1932년 손기정은 동아일보 주최 하프 마라톤에서 2위를 하면서 이 인연으로 양정고보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로써 손기정은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얻고 본격적으로 마라톤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수로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은 그의 실력은 나날이 성장하여, 곧 마라톤을 비롯한 장거리 경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갔다. 손기정은 1933년부터 1936년까지 13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고 그중 10번 우승을 차지하였다. 특히 전 일본 올림픽 파견 1차 예선에서 2시간 26분 14초를 기록하는 등, 한 해 동안에 2시간 30분의 벽을 3번이나 돌파하여 체육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발군의 실력으로 그는 일본의 올림픽 국가 대표로 발탁되었고, 일본인들은 손기정을 통해 마라톤 세계 제패를 꿈꾸었다.



제11회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손기정.

손기정은 1936년 8월 9일 오후 베를린의 제11회 올림픽 마라톤 레이스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56명의 세계 강호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우승하였다. 양정고보 선배였던 남승룡도 함께 출전하여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손기정은 만세를 부르거나 환호하지도 않았으며, 고개를 숙인 채 탈의실로 퇴장할 뿐이었다. 시상대에서도 손기정과 남승룡은 침울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으며, 손기정은 옷에 새겨진 일장기를 월계수 나무로 가렸다.

비록 일본 국적으로 따낸 메달이었지만 손기정의 올림픽 마라톤 우승 소식은 식민지의 조선인들에게 더없이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조선의 언론사들은 일본 신문에서 받은 사진으로 금메달 획득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 8월 13일 「조선중앙일보」에 게재된 손기정의 시상식 장면 사진은 일장기가 흐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원래의 사진은 일장기가 뚜렷이 보이는 것이었으나, 신문사 측에서 인쇄 품질이 좋지 않은 사실을 이용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린 손기정.

조선총독부는 인쇄 기술상의 문제로 여기고 이 사진을 검열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8월 25일 「동아일보」에 다시 한 번 이 사진이 게재되자 문제가 불거졌다. 「동아일보」는 손기정의 옷에서 일장기를 완전히 지운 상태로 신문에 실었다. 당시 언론인들은 이렇게나마 조선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항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의 사장 여운형이 사퇴하고 신문은 폐간되었으며, 「동아일보」도 간부들의 사직과 함께 체육부 기자 이길용과 사회부장 현진건 등이 구속되었고 무기 정간 조치를 받았다가 9개월 후에야 복간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손기정은 경기 출전이 금지되었으며, 일제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생활을 하여야 했다.

손기정은 금메달리스트임에도 일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일본의 메이지 대학 법학과에서 학업을 마쳤다. 해방 후 그는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키우는 데 전념했다. 1947년과 1950년에는 코치로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각기 서윤복 선수와 함기용 선수가 우승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후로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선수단 단장, 부단장, 총감독, 감독 등으로 참가하거나 대회의 국내 유치와 개최 등 스포츠 국가 대사에 참여한 횟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중에서도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IOC 총회 때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약하고, 마침내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성화 봉송 최종 주자로서 뛰었던 것은

손기정기념관 전경. 그의 모교인 양정고보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매우 뜻깊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부상으로 받아야 했던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가 50년간 전달되지 못하고 베를린 샤를로텐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손기정은 1986년 비로소 이 투구를 반환받아 1994년에 국가에 기증하였다. 이처럼 그는 온 생애를 조국 그리고 마라톤을 위해 바쳤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손기정은 2002년 별세하였다. 대한체육회는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11년 그를 초대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하였다.[9)]

손기정기념관

손기정기념관은 손기정 선수의 뜻을 기리고자 그의 모교인 양정고보(양정의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손기정 탄생 100주년인 2012년 10월 손기정체육공원 내에 2층

손기정체육공원 입구.

건물로 개관하였다. 기념관 내에는 손기정 관련 자료 및 유물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그의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손기정기념관 1층에는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 영상실이 위치한다. 제1전시실은 '도전 · 극복 · 승리'라는 테마로 꾸며져 있으며, 베를린 올림픽 우승을 이루어내기까지 손기정 선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재현하고 유물을 전시해 놓았다.

제2전시실은 '민족정신 · 진정한 승리'라는 테마로, 세계 제패 이후 손기정 선수의 행보를 중심으로 민족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일화를 연출하고 참여 전시요소를 배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 영상실은 손기정 선수의 자전적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상영하여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2층에는 손기정 선수 관련 전시뿐 아니라 외부 특별 전시를 유치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이외에도 심포지엄이나 강연회에 사용되는 강당, 기념관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실, 그리고 회의실이 있다.[10)]

손기정 동상과 월계수 나무.

손기정체육공원과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손기정체육공원은 손기정 선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1987년 9월에 서울시 중구 손기정로 101에 조성되었으며, 면적은 29,682㎡에 달한다. 공원 내에는 손기정기념관과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독서실과 정보도서관 등이 건립되어 있으며, 손기정 동상과 그의 모교인 양정중고교 교지 기념비도 세워져 있다.

또한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후 받아온 월계수 가지를 심은 월계수 나무가 서울시 기념물 제5호로 지정되어 자라고 있다. 이외에도 축구장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의 운동시설과 광장 및 산책로, 정자, 놀이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다.

손기정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손기정문화체육센터는 연 면적 2,211㎡에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센터와 체육센터, 독서실, 정보도서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문화센터와 체육센터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강좌를 운영하여 지역민의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문화센터에서는 한글과 엑

손기정체육공원의 축구장

중림증합사회복지관에서 펼쳐진 ‘효사랑 나눔잔치’.

셀,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강좌와 영어 회화 강습을 비롯하여 미술 체험, 통기타, 어르신 웃음 치료 교실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여가를 활용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체육센터에서는 헬스와 골프, 검도,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밸리댄스, 탁구, 줄넘기 등 체력을 증진시키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 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 1층에 위치한 정보도서관에서는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도서와 자료를 구비하고 인터넷 검색실을 제공하고 있다. 소장 자료로는 유아 및 어린이 도서 7,027권, 성인 도서 1만 2,958권, 비도서 자료로 DVD 174종, 연속간행물 14종, 신문 3종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정기 휴관하며, 임시 휴관일은 기타 특별한 사유로 도서관장이 지정한 날이다. 2층에 위치한 독서실은 지정석 80석과 일반석 46석으로 운영되며, 편의 시설로 휴게실과 컴퓨터실을 이용할 수 있다. 양력설과 음력설, 추석 연휴에 휴관한다.[11)]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중구 서부 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해 2012년 9월에 개소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중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소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크게 사례관리 사업과 서비스제공 사업, 지역조직화 사업으로 나누어 지역 내 취약 계층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가족관계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며 알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의 다양한 사업 성과를 알리고 주민과 더욱 따뜻하게 소통하기 위해 계간 소식지 『중림사랑방』도 발행하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소외계층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나눔 바자회를 열기도 했다.[12)]

제6장

수도 서울의 관문 서울역

1. 근대 교통혁명과 서울역
2. 한국 철도사와 서울역
3. '문화역서울 284' 의 탄생
4. 주변 유적과 볼거리

옛 서울역사는 1925년 일제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기존의 남대문역을 헐고 지은 경성역으로 그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다. 일제는 이곳을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1922년 6월에 착공하여 1925년 9월에 완공된 서울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631㎡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돌 · 벽돌 혼합건물로 외벽에 벽돌 모양의 타일을 붙이고 철골조 뼈대에 천연 슬레이트를 이은 지붕을 얹었다. 6.25전쟁 때 일부 피해를 입었으나, 건물의 외관은 원형이 잘 유지되어 있다. 2004년 KTX 민자 역사가 개통된 이후 옛 서울역사는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복합 문화 공간인 '문화역서울 284'로 활용되고 있다.

1. 근대 교통혁명과 서울역

조선시대의 교통수단

조선시대에 모든 길과 통신은 서울로, 다시 말해 한양으로 통했다. 그러나 역로(驛路)는 행정과 군사를 위한 도로였을 뿐 전국을 연결하는 상업적인 도로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큰 길이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육상 교통수단도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 것은 조랑말과 소, 그리고 가마였다.

1900년 이전에 한양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눈에는 도성을 출입하는 광경이 꽤나 이채로웠던 모양이다. 어느 서양인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이른 아침 남대문에서 성안으로 쇄도하는 말은 2천에서 3천에 달했다. 당시 남대문은 야간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앞을 다투어 성내로 들어갔던 것이다. 두세 시간 전부터 지켜 섰다가 서로 앞다툼을 하는 판이니 날마다 싸움질이 끊이지 않았다."[1)]

수레가 발달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외세의 침입을 우려하여 도로 관리, 즉 '치도(治道)'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방과 통하는 요충지는 물론 외적이 침입할 만한 해안 지역이나 도읍으로 통하는 중요한 고갯길은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겼다. 군사력이나 무기를 강화하여 외침을 막기보다는 자연 조건을 이용한 소극적인 방어 전략을 택한 셈이다. 외적이 침입해 오면 이런 험로가 진군을 늦출 테고, 그동안 중국에 원병을 청한다거나 국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겠다는 생각에 머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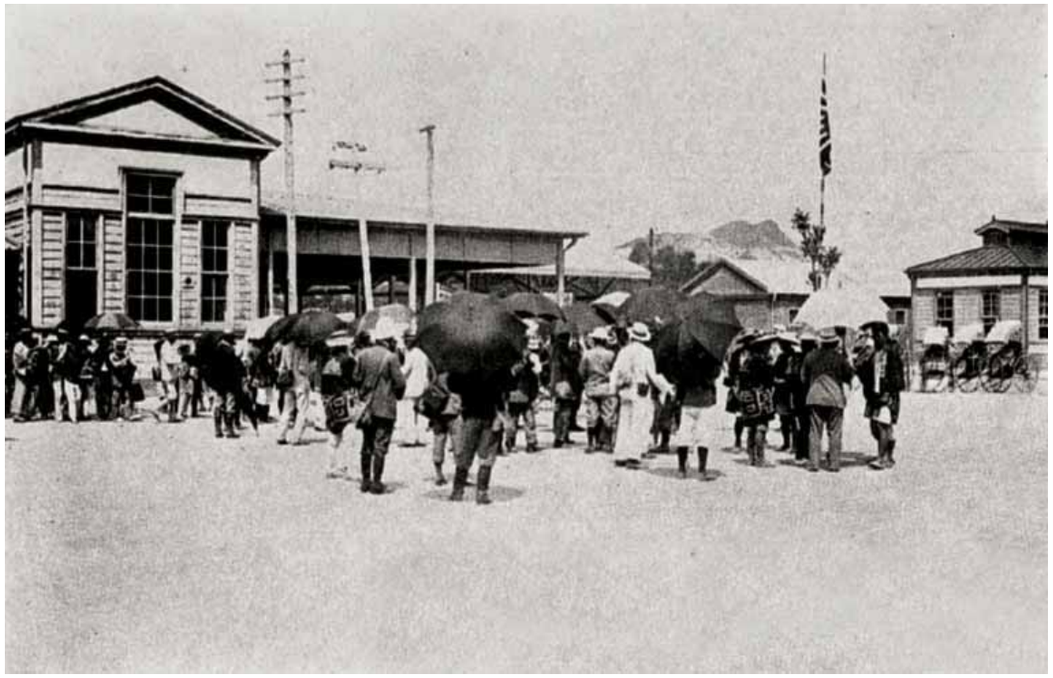
한양 동대문 밖 풍경(19세기 말)과 서대문을 통과하는 전차(1900년대).

1904년경의 철도 개통식. 새로 놓인 철교의 개통을 축하하는 행사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는 하책 중의 하책, 서세동점의 물결은 곧 극동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까지 밀어닥칠 터였다. '쇄국'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1866년(고종 3년)의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병인양요, 1871년(고종 8년)의 신미양요를 거쳐 마침내 조선은 1876년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함으로써 굳게 닫혀 있던 문호를 열었다.

철도를 따라 들어온 근대 문명

비록 외세의 강요에 못 이긴 개항이었지만 조선 정부는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따라 배우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만국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근대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꿈꾸던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서구 문물의 도입과 근대적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국의 궁궐인 경운궁을 중심으로 방사상 도로망을 정비하여 퇴락한 중세 도시 서울을 근대적 도시로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한편, 전기, 전



1906년의 남대문역 전경.

차, 전신, 철도 등 근대 문명의 이기와 기술의 도입이 추진되고, 독립공원, 탑골공원 등 시민공원도 조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교통혁명은 1899년 경인선의 개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는 도시 내 첨단 교통수단인 전차가 개통된 해이기도 하다.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1899년 9월 노량진에서 인천 간 노선이 먼저 개통되었고, 이듬해 7월에 한강철교가 준공되면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한편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경부선은 1901년 8월에 영등포역에서 기공식을 거행하고, 1904년 완공되었다. 이듬해 1월부터 경부선 전 구간에서 영업이 시작되었고 5월에 남대문역에서 경부선 개통식이 거행되었다.[2)]

이후 1906년 경의선과 1914년 경원선이 차례로 개통됨으로써 경성은 한국 철도 교통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1900년 7월 작은 목조건물로 출발한 남대문역 또한 1910년에 경성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망의 명실상부한 중심으로

전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일제강점기).

떠올랐다.

그러나 경성역을 세우고 철도를 놓은 주체는 일제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였다. 만철은 일본과 조선, 그리고 만주를 연결하는 군사적 목적으로 철도를 건설하였다. 그들에게 경성역이란 한반도의 현관이자 만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제국의 팽창과 식민지 지배에 철저히 종속되는 것이었다.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전차

한편 도성 내 이곳저곳을 연결하는 최첨단 교통수단이었던 전차는 미국과 조선 황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한성전기회사가 전차 부설권을 획득함으로써 그 첫발을 내디뎠다. 1899년 5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약 8킬로미터의 노선이 완성되어 첫 운행에 들어갔는데 당시 전차에 탑승하고 구경하는 것은 서울 사람들은 물론 지방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였다고 한다.

기차와 전차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업 중인 모습(1900년대).

전차의 도입에는 미국인 사업가인 콜브란과 보스트윅의 역할이 컸다. 애초에 이들은 인천에서 미국인 모스와 함께 경인철도 부설운동을 하다가 1898년에 서울로 옮겨온 사업가들이었다. 고종황제가 명성왕후의 능이 있던 홍릉에 행차하는 모습을 본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전차를 이용하면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히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왕실을 설득했다.

이렇게 해서 왕실로부터 거액을 출자받자 콜브란은 1898년 1월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고 의주로에서 청량리에 이르는 첫 전기철도를 부설했다. 전기를 공급할 발전소도 동대문 밖에 신축했다. 전차노선은 그 뒤 계속해서 연장되어 1900년 4월에는 종로와 용산을 잇는 노선이, 1901년 7월에는 남대문에서 서대문 밖까지 잇는 노선이 신설되었다.[3)]

한편 경인철도가 개통되고 도성 내에 전차가 깔리면서 사대문의 번잡함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당나귀와 조랑말, 우마차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다가 인력거와 구루마가 보급되면서 한양의 도로 풍경은 많이 바뀌었다.

철도의 부설과 민중의 저항

그러나 전차와 철도의 부설이 마냥 환영받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철도 공사 과정에서 풍수지리설에서 중요시하는 지맥을 끊는다 하여 커다란 저항을 받기도 했지만, 백성들의 저항은 보다 실제적인 생활상의 고통에서 비롯되었다. 일제는 철도를 부설하면서 주위의 땅과 민가를 필요 이상으로 싼 값에 매입하거나 강제로 편입시키면서 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다.

게다가 공사에 관여한 일본인들은 갖은 악행을 저질러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술국치를 맞자 나라 잃은 슬픔과 분함에 자결한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철도 부설 당시의 일본인들의 횡포를 이렇게 고발했다.

> "왜인이 경부철도를 닦을 때, 노무자들은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서 밤에는 무리 지어 도적질을 일삼고, 낮에는 지나는 장사꾼을 강탈하였다. 또 조금이라도 그 뜻에 거슬리면 죽여 버리곤 해서 그들이 지나간 곳마다 마치 전쟁이 휩쓸고 간 듯 했다. 왜인들은 또한 우리 국민을 모집 고용해서 후한 임금을 주기는 했으나 게으름 부리는 자가 있으면 때려죽인 후 골짜기에 던져서 흙으로 평평하게 메우곤 했으니 애통하고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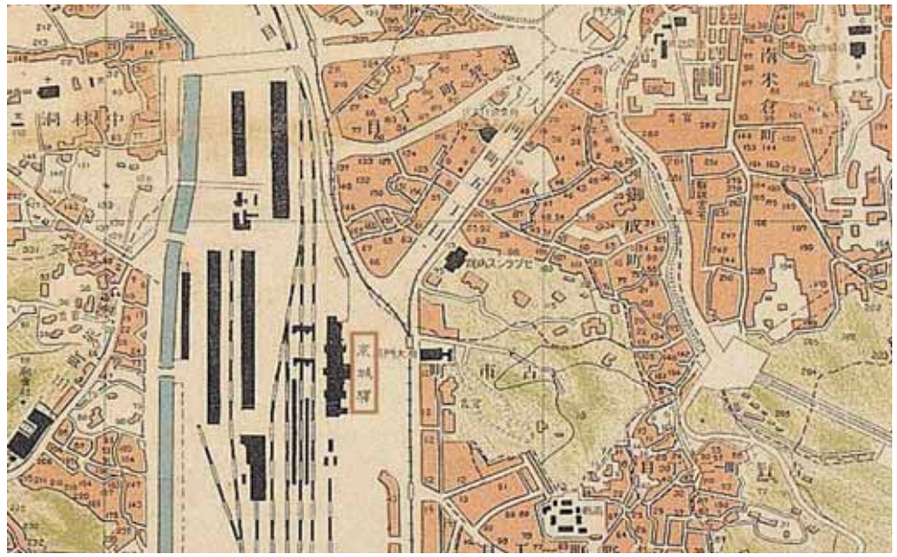
철도부설권은 온통 외국인들에게 넘어가고 철도 부지라는 명목으로 민가는 철거되고 토지마저 빼앗기니 백성들의 심사가 뒤틀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철도를 통해 조선의 쌀과 콩 등은 일본으로 유출되었고, 그 길을 따라 한반도 곳곳에 일본군이 진주했으니 철도는 곧 침략과 수탈의 촉수이자 상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4)]

2. 한국 철도사와 서울역

제국 팽창의 관문이었던 경성역

1900년 7월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 만들어진 서울역은 본래 10평 남짓한 목조 건물에서 출발하였다. 원래의 위치는 현재보다 조금 더 북쪽인 염천교 부근이었으며 명칭도 남대문정거장 혹은 남대문역으로 불렸다. 이후 1910년에 경성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25년에는 새 역사까지 갖추게 되어 옛 역사는 용산역으로 옮겨졌다.

경성역의 새 역사는 1922년 도쿄대학교 교수인 쓰카모토 야스시의 설계로 착공해 1925년에 준공되었다. 원래의 계획은 1923년에 준공하는 것이었으나 일본 관동



「경성시가도」(1927년)의 경성역 부근.

일제강점기의 경성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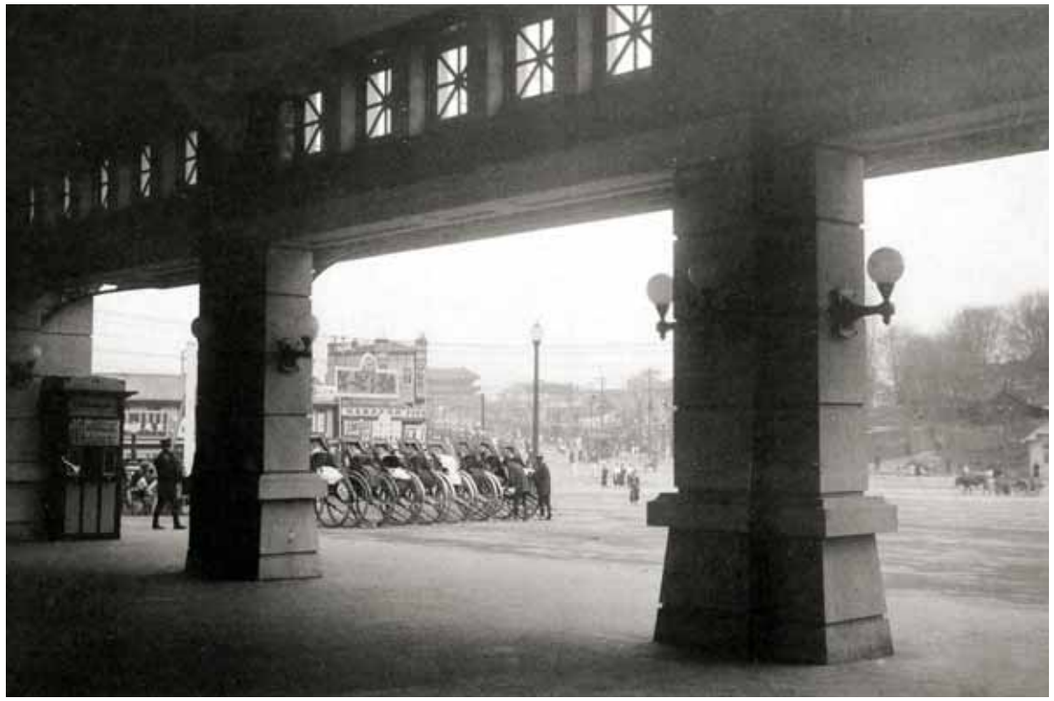
대지진으로 2년여 늦춰졌다. 건축 규모는 총면적 26만9천95㎡, 대지면적 약 1만7천200㎡,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초대형 건물로 '동양 제1역은 도쿄역, 동양 제2역은 경성역'이라 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경성역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한반도의 현관이자 식민지 경영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성역 신축을 주도한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경성역을 일본과 조선, 그리고 만주를 잇는 국제적 수준의 역사로 만들고자 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쿄와 시모노세키는 국철로 잇고, 시모노세키와 부산은 관부연락선으로 연결하며, 부산과 베이징은 직통 열차로 잇는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신축된 건물은 규모도 상당했지만 지붕의 돔과 독특한 외관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건축 자재는 주로 붉은 벽돌을 사용하였으며, 1층 중앙홀은 바닥을 화강암으로 깔고 중벽은 석재, 벽에는 인조석을 붙였다. 당시 건물 안의 귀빈실 마룻바닥은 모두 박달나무로 깔았다고 한다.

역사 1층은 대합실로, 2층은 귀빈실과 식당으로 사용했으며, 지하는 역무실로

봉래교에서 바라본 경성역(일제강점기)과 염천교에서 바라본 서울역.



일제강점기의 경성역 플랫폼과 경성역에서 바라본 남대문로.

쓰였다. 지하는 곧바로 승강장에 이어지게 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인 중앙 대합실의 상부는 비잔틴식 둥근 지붕으로 덮고 네 귀퉁이에 반원형 아치를 틀고 창을 달아 중앙홀 화강석 바닥에 빛이 닿도록 했다.[5)]

이상과 박태원이 본 1930년대 경성역

경성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선 경성역은 서구 문물의 화려함과 일본 제국주의의 압도적인 힘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살아 있는 증거였다. 요새와도 같이 단단한 몸체와 휘황한 외관을 뽐내는 이 낯설고도 매력적인 건축물은 일제가 대륙으로 군수물자를 운반하고 한반도의 자원을 약탈해 실어 나르는 수탈과 침략의 도구인 동시에, 이제 막 등장하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이 근대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하는 가장 '뜨거운' 장소이기도 했다.

스스로를 '박제가 된 천재'라 불렀던 시인 이상 또한 경성역을 안식처처럼 느꼈다. 대표작 『날개』에서 주인공 '나'가 봐서는 안 될 아내의 매춘 장면을 목격하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경성역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서울에서 가장 맘에 드는 장소를 발견한다. 대합실 한쪽에 자리 잡은 티룸이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좀 야맹증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거리로 골라서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리고는 경성역 일이등 대합실 한 곁 티룸에 들렀다. 그것은 내게는 큰 발견이었다. 거기는 우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안 온다. 설사 왔다가도 곧들 가니까 좋다.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하여 두었다.

(중략)

나는 한 부스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 총총한 가운데 여객들은 그래도 한잔 커피가 즐거운가 보다. 얼른얼른 마시고 무얼 좀 생각하는 것 같이 담벼락도 좀 쳐다보고 하다가 곧 나가버린다. 서글프다. 그러나 내게는 이 서글픈 분위기가 거리의 티룸들의 그 거추장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절실하고 마음에 들었다. 이따금 들리는 날카로운 혹은 우렁찬 기적소리가 모짜르트보다도 더 가깝다. 나는 메뉴에 적힌 몇 가지 안 되는 음식 이름을 치읽고 내

리읽고 여러 번 읽었다. 그것들은 아물아물한 것이 어딘가 내 어렸을 때 동무들 이름과 비슷한 데가 있었다."

— 이상의 『날개』 중에서.

건축가이기도 했던 이상이 경성역을 배경으로 작품을 쓴 것도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경성역은 무엇보다도 근대 도시 풍경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군중' 을 조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경성의 근대적 풍경이 없었더라면 이상의 주인공처럼 도시의 익명성에서 편안함을 느끼던 캐릭터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식민지기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로 꼽히는 박태원 또한 경성역 대합실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근대 도시 특유의 익명성과 고독을 통찰하고 있다.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중에서.

이와 같이 식민화와 근대화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 중첩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땅의 많은 작가와 지식인들은 이상과 박태원처럼 자기 분열적 세계인식에 빠져들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1936년 『날개』를 탈고한 이상은 소설 속의 '나' 가 꿈꾸었던 것처럼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날개' 를 펼쳐 보지만 그 비상은 끝내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만다. 그 해 6월을 전후하여 변동림과 혼인한 뒤 동경으로 건너간 이상은 1937년 사상불온혐의로 구속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된 이상은 동년 4월 동경대학 부속병원에서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6)]

2003년 고속철 개통과 함께 옛 서울역사는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다.

해방이후의 서울역

일제가 패망한 이후 경성역은 미군정 당국의 "남한의 사설철도 및 부대사업 일체를 국유화한다"는 지침 아래 몰수되어 이름도 서울역으로 바뀌었다. 1947년 11월 1일의 일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서울역은 대한민국 교통부 관할로 이관되었다. 서울역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역사의 일부가 파괴되기도 하였으나 휴전 후 다시 복구하였다. 이후 경부선과 경의선 등 철도 주요 간선 열차의 시발역인 동시에 종착역으로 대한민국 교통과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1960년대에 남부 · 서부 역사를 신설해 본 역사와 구분해 사용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건축물의 하나인 옛 서울역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준공된 이래 오랫동안 수도 서울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역 역사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대합실이 만들어지면서 역사의 주요 기능을 새 공간에 넘겨주게 되었다. 2003년 11월에는 역사 남쪽에 고속철(KTX) 민자역사가 들어서면서 마침내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다.[7)]

3. '문화역서울 284'의 탄생

복합문화공간이 된 서울역사

고속철 민자 역사가 신축된 후 옛 서울역사 건물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관리권이 넘어갔다가, 여러 논의 끝에 '구 서울역사 원형복원 및 문화공간화 사업'이 추진되어 2011년 8월 마침내 '문화역서울 284'로 재탄생하였다. '284'라는 숫자는 이 건물이 1981년 9월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4월 개관한 문화역서울 284는 대안적이고 실험적 전시, 공연, 강연,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상설 전시되고 있는 '유연한 역사驛舍 The Flexible Station' 전은 문화역서울 284가 동시대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유연한 서울역'이라는 전체 주제 하에 펼쳐지는 세부 전시들은 옛 서울역의 장소적 맥락에 대한 색다른 이해를 도모하고('유연한 풍경 展'), 다채로운 대중을 향한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내는('유연한 사람들 展') 동시에, 옛

문화역서울 284 로고.

2003년 신축된 고속철 민자 역사와 2012년 개관된 문화역서울 284.

문화역서울 284에서 전시 중인 설치미술 작품.

서울역 공간에 대한 단상을 낯설게 조우시킨다(‘유연한 공간 展’). 전체적으로 문화역서울 284의 지향과 정체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8)]

한편 문화역서울 284는 2013년 8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인 ‘타이포잔치 2013’을 개최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연말까지는 ‘근대성의 새발견’ 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문화역서울 284가 앞서 개최하였던 ‘여가의 새발견’ 전과 ‘대중의 새발견’ 전에 이은 ‘새발견’ 시리즈의 세 번째 기획전으로, 1925년 건립된 옛 서울역사의 역사적, 장소적 맥락인 근대성을 화두로 하여 근대성을 구현시킨 다종다양한 테크놀로지에 주목하는 전시이다.

이렇듯 옛 서울역사는 일제의 대륙 침략 발판으로 출발하였지만 근현대에는 대한민국 발전의 주 무대이자 교통과 교류의 중심이었고, 지금은 언제든 찾아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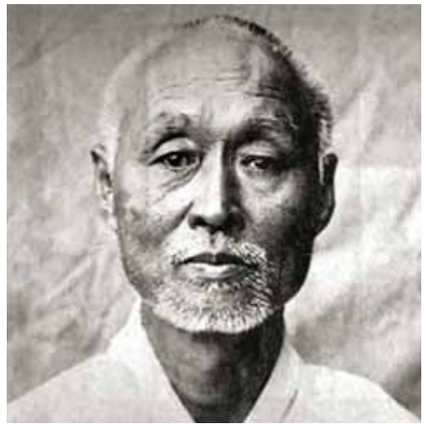
4. 주변 유적과 볼거리

강우규 의사 동상

2011년 9월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 앞 광장 한쪽에 낯선 동상 하나가 새로 세워졌다. 1919년 일제 신임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 일행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다. 강우규(姜宇奎, 1855년 4월 20일~1920년 11월 29일) 의사는 대한제국의 교육자이자 한의사였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가다.

1885년 함경남도 홍원(덕천)에서 태어난 강우규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멸망한 후 가솔을 이끌고 북간도로 건너가 한인촌을 건설하고 학교를 세우는 등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 직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노인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의 일익을 담당했다.

신임 총독이 부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강우규는 러시아로부터 영국제 폭탄을 구입하고, 1919년 6월 11일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하여, 8월 4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9월 2일에 거사하였다. 의거 당일 강우규 의사는 폭탄을 명주수건에 싸서 허리춤에 차고 군중 사이에 섞여 있다가 신임 사이토 총독이 역에서 나와 차에 오르려는 순간 폭탄을 던졌으나 폭탄이 다른 곳에 떨어져 실패하였다.



거사 직후의 강우규 의사 초상.

사이토는 무사했으나 경비대를 비롯

한 일본인 3명이 죽고, 34명이 부상하였다. 거사 뒤 현장에서 빠져나와 은거하던 강우규 의사는 9월 17일 일제의 앞잡이 김태석(金泰錫)에게 붙잡혔다가 이듬해 11월 2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하였다.

순국 직전 "단두대 위에도 봄바람은 있는데, 몸은 있어도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겠는가(斷頭臺上 猶在春風 有身無國 豈無感想)"라는 시를 남겼다. 유해는 광복 뒤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감옥공동묘지로부터 서울 우이동으로 이장하였다가, 다시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치되었다. 1962년 3월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9)]

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에서 세운 동상.

서울역 파발마

역과 정류장에는 항상 만남의 장소가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면 때론 광장이 되기도 한다. 그곳에는 또한 틀림없이 시계가 있다. 기차나 버스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시각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시계가 귀하던 시절 사람들은 역사의 벽시계 앞이나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곤 했다.

서울역 벽시계는 다른 기차역의 벽시계와 달리 '파발마(擺撥馬)'라는 특별한 애칭을 가지고 있다. 옛 서울역사 정면에 있는 지름 1.6미터 크기의 대형시계인 파발마의 별칭은 1968년 당시 서울역 부역장이던 최종철 씨가 붙여준 것이다. 파말마는

'파발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서울역 벽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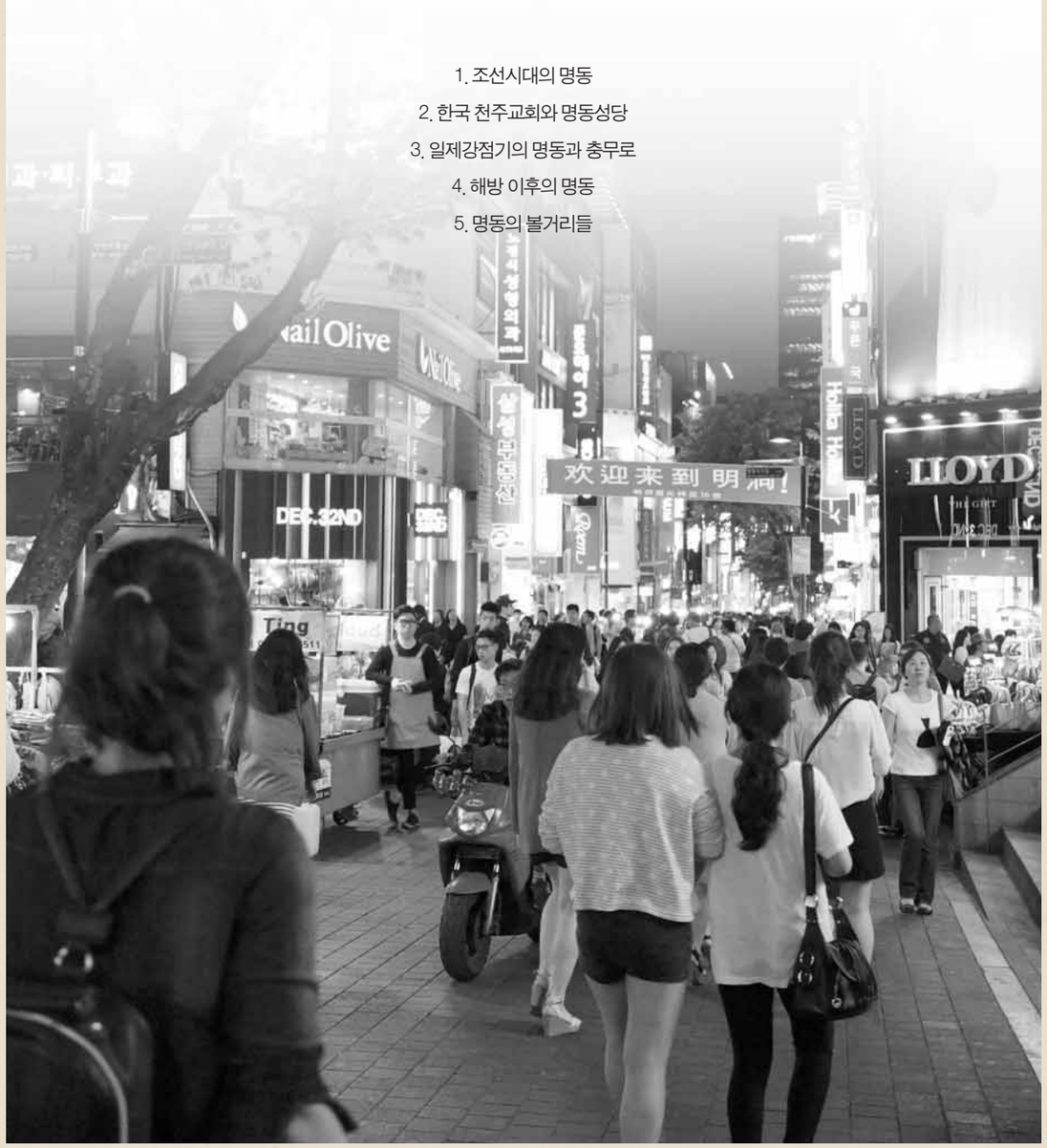
역참을 달리던 역마인데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시계가 부지런한 파발마 같다는 뜻을 담고 국민 모두가 탑시계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었다고 한다.

서울역 파발마는 1926년 10월에 처음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당시 3개월간 멈춘 것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10)]

제7장

글로벌 쇼핑거리 명동

1. 조선시대의 명동
2. 한국 천주교회와 명동성당
3. 일제강점기의 명동과 충무로
4. 해방 이후의 명동
5. 명동의 볼거리들



오늘날 명동은 서울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쇼핑 명소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며 유동인구가 많아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붐비는 곳. 조선시대에 명동은 한성부 남부 '명례방(明禮坊)' 에 속했는데, 명동의 '명(明)' 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한성부가 경기도 경성부로 바뀌면서 경성부 명동이 되었다가 1914년 명치정 1정목이라는 일본식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1. 조선시대의 명동

명례방에서 명동으로

오늘날 명동은 서울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쇼핑 명소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며 유동인구가 많아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붐비는 곳. 조선시대에 명동은 한성부 남부 '명례방(明禮坊)'에 속했는데, 명동의 '명(明)'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한성부가 경기도 경성부로 바뀌면서 경성부 명동이 되었다가 1914년 명치정 1정목이라는 일본식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이후 1943년 구(區)제도를 실시하면서 중구에 속하게 되었다가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우리말 동명으로 개정하여 명동1가라는 제 이름을 찾게 되었다.

오늘날 명동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정동인 명동1가와 명동2가를 통칭한 지명이다. 법정동이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말한다. 한편 '명동'이라는 이름으로 관할하는 행정동 구역은 장교동,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 · 2가, 회현동1 · 2가 일부 및 회현동3가, 남대문로1 · 2가 일부, 삼각동, 수하동, 수표동, 명동1 · 2가, 충무로1 · 2가, 저동1가, 남산동1 · 2 · 3가, 예장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된다. 행정동은 행정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정동과 달리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서 설치 또는 폐지된다.[1)]

오늘날 명동성당이 자리한 종현(鍾峴)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수양대군(후일 세조)의 집인 명례궁(明禮宮)이라는 별궁이 있었다. 명례방 안에 명동(明洞), 종현동(鐘峴洞), 저동(苧洞), 장악원동(掌樂院洞), 남산동(南山洞) 등이 속해 있었다. 명동성당 주변 언덕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진주해 남산 쪽 왜성대의 일본군과 대치했

『동여도』 중 「도성도」(19세기 중반)에 표시된 명례방 주변.

「서울상계약도」(1955년)의 명동 주변.

던 곳인데, 종현동이란 이름은 원군으로 온 명나라 군사들이 숭례문에 걸려 있던 종을 떼어다 이곳 진지에 걸어두었다 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명례방은 1784년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던 초창기부터 신앙공동체가 생겨난 곳이기도 하다. 프랑스교회 측은 이 유서 깊은 곳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교회 부지를 물색했는데,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희생자인 역관 김범우(金範禹)의 집터 인근에 20여 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입하였다. 김범우의 집은 정약전(丁若銓), 정약종(丁若鍾), 정약용(丁若鏞) 3형제와 한국 천주교 창설의 주역인 이벽(李檗)과 권일신(權日身) 등 남인(南人) 학자 수십 명이 모여 예배를 보던 장소였다. 이 명례방 공동체는 1785년 집회가 발각되어 김범우가 고문을 받고 유배되고 만다. 연행된 다른 교도들은 양반 가문이어서 모두 방면되었다. 이 사건으로 명례방 공동체는 와해되었고 김범우는 얼마 안 가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2)]

명례방 공동체와 한국 천주교회

명동성당은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이자 총본산으로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에 자리하고 있다. 명동성당의 공식 명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으로 서 사적 제258호로 지정되어 있다.

흔히 한국 천주교의 출발을 1784년 봄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은 뒤 귀국한 이후부터 잡곤 하지만 그보다 4년 앞선 1780년 1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천진암에서 권철신을 중심으로 하는 강학회(講學會)가 열렸다. 당시의 저명한 학자들은 여기에서 천주학을 접하였다. 그해 가을, 서울 명례방에 살던 통역관 김범우(토마스)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 천주교에 입교하여 자신의 집에서 교회 의식을 거행하고 교리 강좌를 열었다.

후일 한양 전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남산 자락 한복판에 한국 천주교의 총본산인 명동성당이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이 김범우와 관련이 있다. 이승훈, 정약전 3형제, 권일신 형제 등이 이벽을 지도자로 삼아 종현에서 종교 집회를 가짐으로써 한국 천주교회가 비로소 첫발을 내딛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앙 공동체는 이듬해 형조 금리(刑曹禁吏)에게 발각되어 김범우가 경상도 단장으로 유배되면서 곧 해체되고 만다.

그 후 한 세기의 시간이 흘러 1882년경 프랑스인 교구장 블랑(Blanc) 주교가 종현 일대의 대지를 구입하면서 명동성당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종현 일대의 터는 이조판서를 지낸 윤정현의 저택이 있던 곳이라 한다. 블랑 주교는 바깥채만 60여 칸에 달하는 큰 저택과 함께 김범우 명의의 명례방 터를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신학생 교육을 위해 종현서당을 설립하여 운영했는데, 한불수호통상조약(1886)이 체결된 이듬해인 1887년 5월에는 주변 땅을 더 확보하여 그해 겨울부터 언덕을 깎아내는 터 닦기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열성적으로 도왔다고 한다.[3)]

2. 한국 천주교회와 명동성당

명동성당의 건축

명동성당의 건립 작업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풍수지리설을 내세운 조선 정부와의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4년이 지난 1892년 5월에야 비로소 기공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 조정은 태조와 영조를 비롯한 역대 여섯 임금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때마다 왕이 직접 제사를 올리는 영희전(永禧殿)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서양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하다고 반대하였다. 하지만 프랑스공사관의 오랜 중재로 결국 성당 건축이 성사되었다. 그사이 초대 주임이었던 블랑 주교가 1890년 선종하고 두세(Doucet) 신부가 2대 주임으로 부임했다. 성당 설계와 공사의 지휘 감독은 코스트(Coste) 신부가 맡았는데 그는 약현성당과 용산신학교의 설계 감독도 맡은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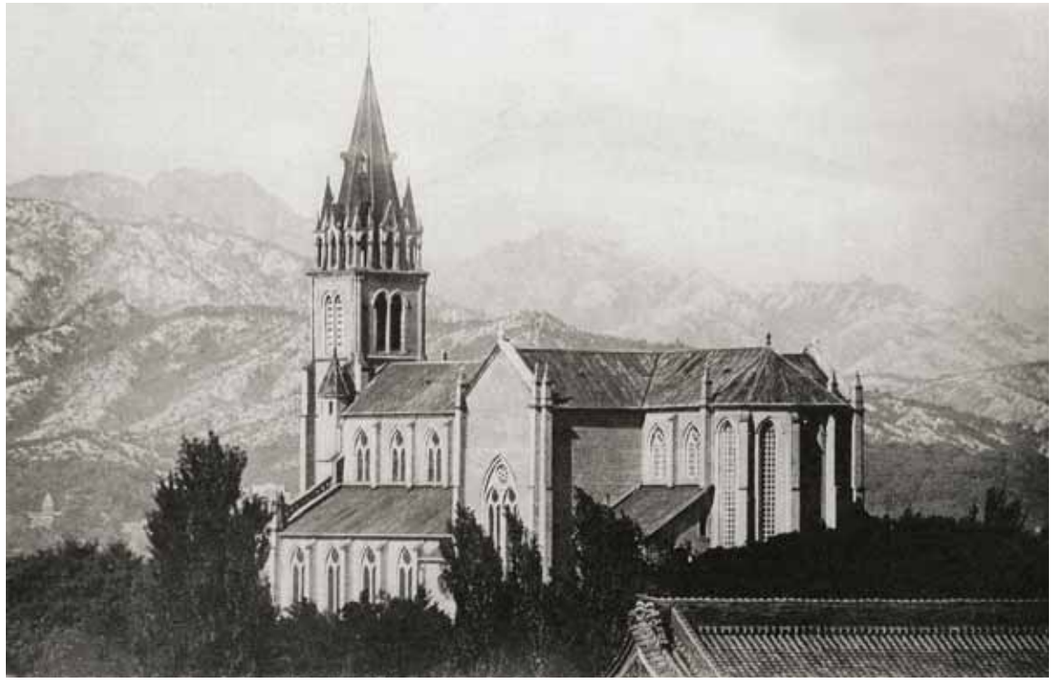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양옥 건축 기술자가 없었으므로 벽돌공 · 미장이 · 목수 등을 중국에서 데려다가 일을 맡겼고, 도중에 재정난과 청일전쟁으로 공사를 한동안 중단하기도 했다. 1896년 벽체 공사가 끝날 무렵 코스트 신부가 선종하자 잠시 공사를 중단했다가 코스트 신부를 돕던 푸아넬(Poisnel) 신부가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최종 공사를 감독해 마침내 준공에 이르렀다. 실내 건축의 대부분은 푸아넬 신부가 마무리하였다. 청나라 기술자들은 용산 가마터에서 구운 20여 종의 붉은색 및 회색 벽돌로 본체를 짓고, 1000여 명의 조선인 신도들의 자원 봉사와 헌금으로 이루어낸 대역사였다.

푸아넬 신부가 성당을 완공하자, 5월 29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조선 교구장 뮈

1890년대의 명동성당과 주교관.

텔(Mutel) 주교의 집전으로 역사적인 축성식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종현성당(鐘峴聖堂)'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최초의 본당(本堂)이 된 명동성당의 시작이었다. 46미터에 달하는 종탑을 올린 고딕식 성당은 그 높이가 70미터에 달했다. 더욱이 높다란 언덕 위에 위치해 도성의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후 프랑스 성직자는 40명으로 늘어났고 천주교회도 40곳을 넘어섰으며, 신자는 4만 명을 넘어섰다. 예배당이 굽어보는 것조차 꺼렸던 영희전은 천주교회가 완공된 지 11년만인 1909년 철거되었다. 헐려나간 영희전 주위에는 남촌의 치안을 담당하는 일제의 본정(本町)경찰서가 들어섰다.[4)]

기공 후 12년 만에 완공된 명동성당은 순수한 고딕 양식 건물로 그 문화적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명동성당이 준공된 후 그 지하 묘역에는 기해박해와 병인박해 때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유해를 안치했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기해년 1839년 9월 12일 순교한 앵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 샤스탕



서울 전체를 굽어보는 자리에 높다랗게 솟은 명동성당.

신부는 새남터에서 군문효수의 형을 받은 후 한강변 모래밭에 매장되었는데, 순교한 지 약 20일 후 신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유해를 거두어 노고산에 4년간 매장했다. 그 후 유해는 1843년에 삼성산으로 이장되었다가 1901년에 이곳으로 모셔졌다. 종현성당은 1945년 광복을 기해 명동대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명동성당의 건축사적 의미

명동성당은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첫 번째 고딕 양식 건축물로서, 1977년에 사적 제258호로 지정되었다. 총 부지 면적이 1만 4421㎡, 건평 1,498㎡이며, 평면은 길쭉하여 길이 69미터에 너비 28미터, 지붕의 높이는 23미터, 종탑 높이는 45미터이며, 지붕 재료는 동판으로 되어 있다. 명동성당은 특히 고딕 양식의 정수인 석조가 아니라, 한국식 연와조로 지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딕 양식의 장중함은 덜하지만 우리나라 유일의 순수한 고딕 양식 건축물로 가치가 높다.

명동성당 전경과 본당 내부.

명동성당 본당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

또 성당 건립 과정에 무보수로 공사에 참여하거나 헌금을 한 조선인 신도 1천여 명과 조선에서 사역한 선교사의 명단을 이 성당의 머릿돌과 함께 묻었다. 1898년 준공 당시 명동성당은 '뾰족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장안의 명물이 되어 매일 많은 구경꾼이 몰려왔다고 한다.

명동성당의 평면은 위에서는 라틴 십자가형 삼랑식(三廊式)의 장중한 고딕형이며, 내부에는 왼쪽에 1952년에 설치한 79위(位) 복자 제대(祭臺) 및 복자 상본(像本)과 김대건 신부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세례를 위한 세두대(洗頭臺) 대리석과 건축가의 주보성인 성 베네딕토 상이 있다. 교구장석 강론대(講論臺)는 푸아넬 신부의 고향에 있는 성당의 강론대를 모방한 것이라 한다. 후일 뒷면 성가대석에 한국 최초의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인 명동성당의 관람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8시에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다.[5)]

3. 일제강점기의 명동과 충무로

일제가 차지한 명동과 충무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명례방 일대와 남촌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았다. 그해 8월에 조선과 청 사이에 맺어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의해 급속히 세력을 키워가던 청상(淸商)은 오늘날의 낙동, 현 중국대사관 자리에 상업회의소 격인 중화회관과 영사관 격인 상무공서를 두고 그 주변에 청상 점포들을 설치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 세력 또한 남산 기슭 왜성대 지역에 새 공사관을 두고 급속히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남산 왜성대에서 바라본 본정(1910년대).

「경성정밀지도」(1933년)에 표시된 본정과 명치정 일대.

서울에 거주하는 청국인과 일본인, 서양인이 늘어나자 조선 정부는 각국 공사와 협의하여 이들의 거류지를 지정하기에 이른다. 이후 청일전쟁에 패한 청상이 대거 철수하고 일본인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명례방 일대 또한 일본인이 장악하였다. 1897년 남대문로와 진고개의 교차점에 일본영사관과 거류민 총대역장, 상업회의소가 자리 잡음으로써 이곳은 일본인 거류지의 중심이 되었다. 마침내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식민지 경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시기 일본인이 자리를 잡고 독점적인 거류지를 형성했던 곳은 남산 기슭, 특히 진고개 일대였다. 일본인들은 이곳을 본정이라 불렀는데, 본정 1정목과 본정 2정목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권세가 없는 양반이 사는 보잘 것 없던 곳이었던 이 지역에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면서 백화점을 비롯하여 양품점과 다방 등이 들어선 근대적인 상권으로 변하였다.

그 결과 본정은 식민지 조선의 경제와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무대로 등장하였다. 해방 후 이곳은 인근에 이순신 장군 생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충무로1가와 충무로2가로 명명되었다. 한편 명동이라는 지금의 법정동에 해당하는 지역인 명치정은 1930년대에 이르러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본정의 배후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명동1가와 명동2가 일대를 중심으로 양장점과 미장원, 양복점 같은 소비 공간이 등장하면서 충무로1가와 충무로2가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었다. 명동의 공간적 중심지가 충무로에서 명동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후로 명동은 충무로 일대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지칭하게 되었다.[6)]

조선의 파라다이스 본정과 명치정

명동은 식민지 시기 일본인에 의해 새로운 소비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무대로 등장하였다. 1920년경까지만 해도 명동은 주거 중심지였으나 20년대 중반 이후로 급속히 상업지구화하였다. 1926년 경성부 청사가 이전하

일제강점기 관광 엽서에 실린 본정의 미츠코시 백화점과 남대문로의 조지야 백화점.

본정 거리 풍경(일제강점기).

황금정 거리 풍경(일제강점기).

고 저동과 회현동 일대에 신규 생활용품 상가가 형성됨에 따라 본정 일대는 상대적으로 의류품과 문화용품 상가로 특화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이후 대형 백화점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미츠코시 오복점이 옛 경성부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새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은 1927년의 일이었다. 1934년 입점한 미츠코시 백화점은 본정의 대표적인 백화점이 되었다. 그에 앞서 1932년에는 본정 1정목에 미나카이 백화점도 신축되었으며 30년대 말에는 남대문로에 조지야 백화점도 새 건물을 완공하였다. 이렇듯 남촌의 4대 백화점 중 3곳이 본정 1정목에 자리잡음으로써 이곳은 경성의 대표적인 상업가가 되었다. 경성부는 이에 발맞추어 명동 입구에서 명동성당에 이르는 현재의 중앙로를 10미터 폭으로 확장하였다.

명치정과 본정은 새로운 도시 경성의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했다. 대로변에는 약품회사, 양복점, 포목점, 금은방이 줄지어 들어섰다. 광교 남쪽에서 남대문 1정목이 시작되는데 모퉁이의 한성은행(漢城銀行)을 시작으로 광통관(廣通館)을 비롯한 유럽풍의 최신 건물들이 도열하였다. 남쪽으로는 다시 남대문통(南大門通)과 황금정(黃金町)이 마주치는 네거리인데, 황금정 1정목 네거리를 건너서 남쪽 코너에 일본생명(日本生命) 빌딩이, 그 뒤로는 5층짜리 경성전기주식회사가 위용을 과시하였다. 그 아래 남쪽의 명치정(明治町)에는 일본생명과 식산은행(殖産銀行) 건물이 마치 남촌의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버티고 섰다.[7)]

명치정과 본정 일대가 이렇듯 대규모 상업 및 금융가로 변모하자 다방과 카페, 요릿집 등 관련 서비스업도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미 1923년 명동에는 후타미(二見)라는 다방이 문을 열었는데, 이것이 경성 최초의 근대식 다방이었다. 1930년대에 이르자 다방 문화가 본격적으로 퍼져 명동 일대에 다방이 밀집하기 시작했는데, 성림, 에리자, 프린스, 백룡 등이 유명했다. 중화 요릿집으로는 봉래각과 중화정이 유명했으며 일식 요리점으로는 에도가와가 유명했다.

1935년에는 초현대식 극장인 명치좌(明治座)가 건립되면서 명동은 경성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명치좌는 규모나 건축 양식에 있어서 당시 남촌의 대표적인 극장이었던 고카네자(黃金座, 전 국도극장)와 와카쿠사자(若草座, 전 스카라극장)를 압도하였다.

하지만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1940년대에 접어들자 명치정과 본정 일대는 큰 타격을 받았다. 식민지 조선의 경제를 전쟁 물자 동원과 군수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자 소비재는 품귀 현상을 빚었고 인플레이션이 폭증했다. 전쟁 말기가 되면 더욱 조급해진 일제는 다방과 술집을 퇴폐업소로 지목하여 폐쇄하고, 영어 간판도 모두 바꾸도록 했다. 화려한 네온사인을 자랑하던 본정과 명치정의 휘황찬란한 거리도 곧 전쟁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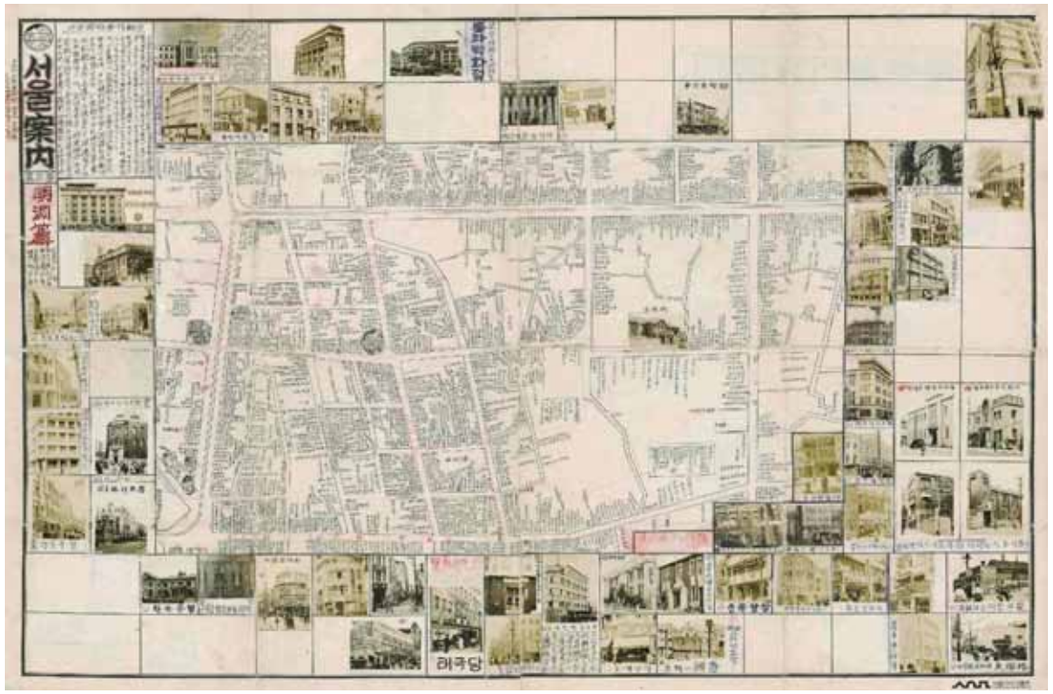
4. 해방 이후의 명동

전쟁의 상흔과 명동의 부상

해방 이후 명동과 남촌 일대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패망한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남촌의 빌딩들과 소위 '문화주택'은 미군정의 '적산(敵産)'이 되었다가 그들에게 끈을 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배정되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월남한 평안도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손쉽게 기회를 잡았다. 당시 명동에서 가장 먼저 활기를 띈 업종들은 다방과 술집이었다. 미군정청에 선을 대어 미군 PX에서 술과 커피를 빼내 파는 것이 가장 수지맞는 장사였던 것이다.

한동안 활기를 되찾는가 싶던 명동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다시금 찬바람을 맞

해방 직후의 명동 일대.



「서울안내 – 명동편」(1961년). 명동 주변의 상점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만든 「상계약도」의 원본이다.

는다. 북한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사기를 꺾기 위해 연일 퍼부어진 폭격에 서울역과 용산역, 명동과 충무로 일대가 쑥대밭이 되었던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충무로가 더 크게 입었는데, 이는 전쟁이 끝난 후 충무로의 기능을 일부 수용한 명동이 서울의 도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휴전 이후 1960년대 말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남대문로2가와 을지로2가의 금융업무 활동이 활발해지자 명동은 본격적인 금융가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가장 먼저 활기를 띄기 시작한 업종은 다방이었다. 전쟁 직후의 다방은 마땅한 근거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무실이자 직업소개소였고, 전쟁 통에 헤어진 친구나 가족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다. 예술인들 또한 명동 골목골목에 포진한 다방에 모여 창작활동과 사교를 병행하자 명동은 어느새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떠올랐다. '명동백작'이라 불린 이봉구는 그 시절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기자 생활을 하며 당시의 명동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9)]

1960년대 명동의 거리 풍경.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가 된 명동

이 시절의 다방은 사교적 기능 외에도 문인들의 회합과 각종 강연회, 출판 모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복합 문화공간이었다. 대표적으로 동방문화회관, 문예싸롱, 갈채, 모나리자, 돌체, 포엠 등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예술을 논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자주 찾던 곳이다. 또한 명동 초입에 자리 잡은 중국대사관 근처의 '달러 골목'에서는 각종 외국서적과 잡지들이 판매되었고, 양품점, 양복점, 양장점 등이 밀집하여 점차 서울의 패션을 주도하는 거리로 발전해 나갔다.

1960년대 이후 명동 지역의 주점들은 서린동, 청진동 지역으로 이주해가기 시작했다. 도심이 재개발되면서 명동에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대형백화점, 고급양장점, 양화점, 의상실, 각종 사무실 등 고급 쇼핑센터 및 전문점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재개발로 다방들이 사라지고 국립극장마저 남산으로 이전하면서 예술인들은 갈 곳을 잃었고 문화예술도 점차 시들해지고 말았다. 대신 쎄시봉, 금수강산, 오비스캐빈

등을 추축으로 통기타 음악과 공연이 젊은이들의 관심거리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또한 카페와 극장이 결합한 소극장들이 생기면서 실험적인 연극들이 탄생하였다.

청년문화의 산실에서 민주화의 성지로

명동의 1960년대가 문인들의 시대였다면 1970년대 명동은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청년문화의 시대였다. 담배를 꼬나문 문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어두컴컴한 다방도 라이브 음악다방으로 모습을 바꾸고 청춘남녀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였다. 최근 옛 추억을 되살리는 공연 기획으로 재조명받은 바 있는 '세시봉'의 송창식,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 양희은 등 통기타 가수들은 당대의 청년문화를 선도하는 기린아들이었다.

한편 1970년대 명동성당 주변에는 유신 독재를 비판하는 청년들과 재야 세력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973년 결성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엄혹한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였고, 명동성당은 항쟁의 중심이자 운동의 성지로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빈민운동 등 사회운동의 거점 구실을 하였다. 1979년 11월 명동 YWCA에서는 결혼식을 가장하여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정권 장악 음모를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1987년 6월항쟁 기간 동안 명동성당은 시민항쟁의 사령탑이자 성지가 되었다. 불같이 타오르는 민주화 열기는 가두시위와 농성투쟁으로 번져나갔고 마침내 정권으로부터 6월 29일 직선제 개헌 수용 선언을 끌어냈다. 이후로도 명동성당은 민주화 세력의 거점 구실을 톡톡히 해나갔다.[10)]

"호헌철폐, 독재타도!" 1987년 6월 명동성당에 모여든 시위대.

5. 명동의 볼거리들

명동관광특구

명동 지역은 명동 · 남대문 · 북창동 · 다동 · 무교동 관광특구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는 곳이다. 명동은 서울의 중심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상업 · 금융 중심지로서 관광 및 사업상의 이유로 수많은 외국인이 찾고 있다. 명동은 대한민국 쇼핑1번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비롯해 즐비하게 들어선 크고 작은 각종 전문 상점에 이르기까지 고급 명품에서부터 저렴한

제50회 글로벌 명동 페스티벌에서 펼쳐진 전통 혼례 모습.

명동 거리 곳곳에서는 연중 다채로운 이벤트와 축제가 펼쳐진다.

소품까지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명동은 쇼핑과 관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서 날로 발전해가고 있다.

1일 유동인구가 평일 150만 명에서 주말 200만 명에 이르고 다양한 맛집과 은행, 증권회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제 기능 밀집 지역이라는 이점을 살려, 명동에서는 상권 활성화와 세계적 쇼핑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 1985년부터 매년 봄 · 가을에 축제가 열리고 있다.

명동 축제에서는 화려한 개막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스 명동 선발대회, 민속놀이, 전통 혼례식, 국악 공연, 패션쇼, 메이크업 쇼 등 관람객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축제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세일 행사도 함께 열려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2013년 가을에도 글로벌 명동 페스티벌이 열려 가수들의 공연 및 연주, 외국인 관광객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졌다.[11)]

일제강점기의 미츠코시 백화점과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한국 최초의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 본점

우리나라에 근대적 백화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있는 자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던 남촌의 대표적인 건물로서 서울시청의 전신격인 경성부청이 있던 자리다. 1930년 이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세우고 정식 개관한 미츠코시 백화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으로, 맞은편에 위치한 조선은행, 경성우편국과 더불어 행정 및 상업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미츠코시 백화점은 1906년 지금의 명동 사보이호텔 자리에 있던 미츠코시 오복점으로 출발하였다. 일본 의상인 오복(吳服)을 주로 팔았는데, 일본 미츠코시 백화점이 경성에 설치한 출장소 형태였다. 그러다가 1929년 지점으로 승격되고 1930년 10월 24일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있는 충무로에 건물을 완성하였다.

당시 1층에는 약국과 선물 및 화장품 판매점이 있었고 2층에는 오복 판매점이 들어섰다. 3층에는 신사 양복, 여성 양장 코너가 있었고 매장 안에 재단사와 옷 만드는 공장이 있어 맞춤복 봉제도 했다. 4층에는 귀금속, 가구 매장과 커피숍 및 대형식당이 있었다. 오전에는 모닝커피를 즐기는 손님으로 가득 찼고 점심 · 저녁 시간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12)]

해방 직후 미군에 접수되었던 미츠코시 백화점은 이후 동화백화점으로 바뀌었

다가, 1963년 삼성그룹에 흡수되어 상호를 신세계백화점으로 바꾸었다. 신세계백화점은 1991년 삼성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1997년 공식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동예술극장

우리나라에 들어선 최초의 근대식 극장은 1920년에 개관한 협률사(協律社)였다. 협률사 개관을 계기로 광무대, 단성사, 연흥사, 장안사 등 나름대로 무대시설을 갖춘 극장들이 잇따라 문을 열기 시작했다. 1934년 일본 타마다 건축사무소의 이시바시(石橋)는 현재 명동예술극장의 위치에 바로크 양식의 영화관 건물인 명치좌(明治座)를 신축하였다.

객석 1,178석 규모의 3층 건물이었던 명치좌는 영화관뿐 아니라 대극장 공연장으로도 사용되었다. 해방 후 1961년까지는 서울시가 시공관(市公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베르디 오페라 「춘희」, 셰익스피어의 「햄릿」 등이 초연되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흩어졌던 연극계의 축이 국립극단 조직으로 다시 형성되어 1959년부터 이곳에 국립극장이 둥지를 틀게 되었다.

1973년 국립극장이 남산 자락으로 이전하기까지 명동은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1번지였다. 명동에는 문인들이 모여들던 주점이나 카페, 고전음악감상실 같은 문화공간이 있어 많은 예술가들의 거점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 명동예술극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립극장 이전 뒤 이 건물은 1975년까지만 예술극장으로 존속되었다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한투자금융, 대한투자신탁 등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다. 문화예술의 중심축도 자연히 새로 들어선 다른 문화공간을 따라 옮겨갔다.

명동예술극장은 2004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건물을 매입할 때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건물이 헐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문화관광부는 공연장을 복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공연장의 모습을 갖춘 명동예술극장의 외부 벽면은 옛 모습을 그대로 되찾았다. 반면 내부는 전면 리모델링하여 국내 최고의 무대시설을 갖추고 연극 전문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13)]

한편, 건물 1층에는 명동 거리와 바로 연결된 카페가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커피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왈츠 앤 닥터만 커피'의 분점이다. 또 5층에는 왈

일제강점기의 명치좌와 현재의 명동예술극장.

츠 앤 닥터만 야외가든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음악회로 전문가의 해설까지 들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어서 관객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고풍스러운 극장에서 상연하는 작품성 높은 연극, 편안하게 즐기는 클래식 음악회 그리고 커피 향기까지. 명동예술극장의 복원으로 소비 중심지 명동이 문화예술 1번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

서울 중구 반포로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지하 2층에는 우표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1840년 영국에서 처음 탄생한 우표는 기본적인 통신 수단의 기능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한 국가의 역사 · 문화 · 정치 · 경제 · 자연을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서 진화해왔다.

우리나라에는 1884년 근대식 우편제도의 도입과 함께 우표가 발행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700여 종의 우표가 발행되었다. 우표박물관은 이러한 우표의 역사 및

일제강점기의 경성우편국.

현재의 서울중앙우체국.

우표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들, 그리고 다양한 체험시설로 꾸며져 있다.

전시장은 총 4곳으로, 한국 우정의 역사를 보여 주는 우정역사마당, 우표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통해 우표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우표체험마당, 우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우표 수집 방법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우표정보마당, 그리고 단체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우표문화교실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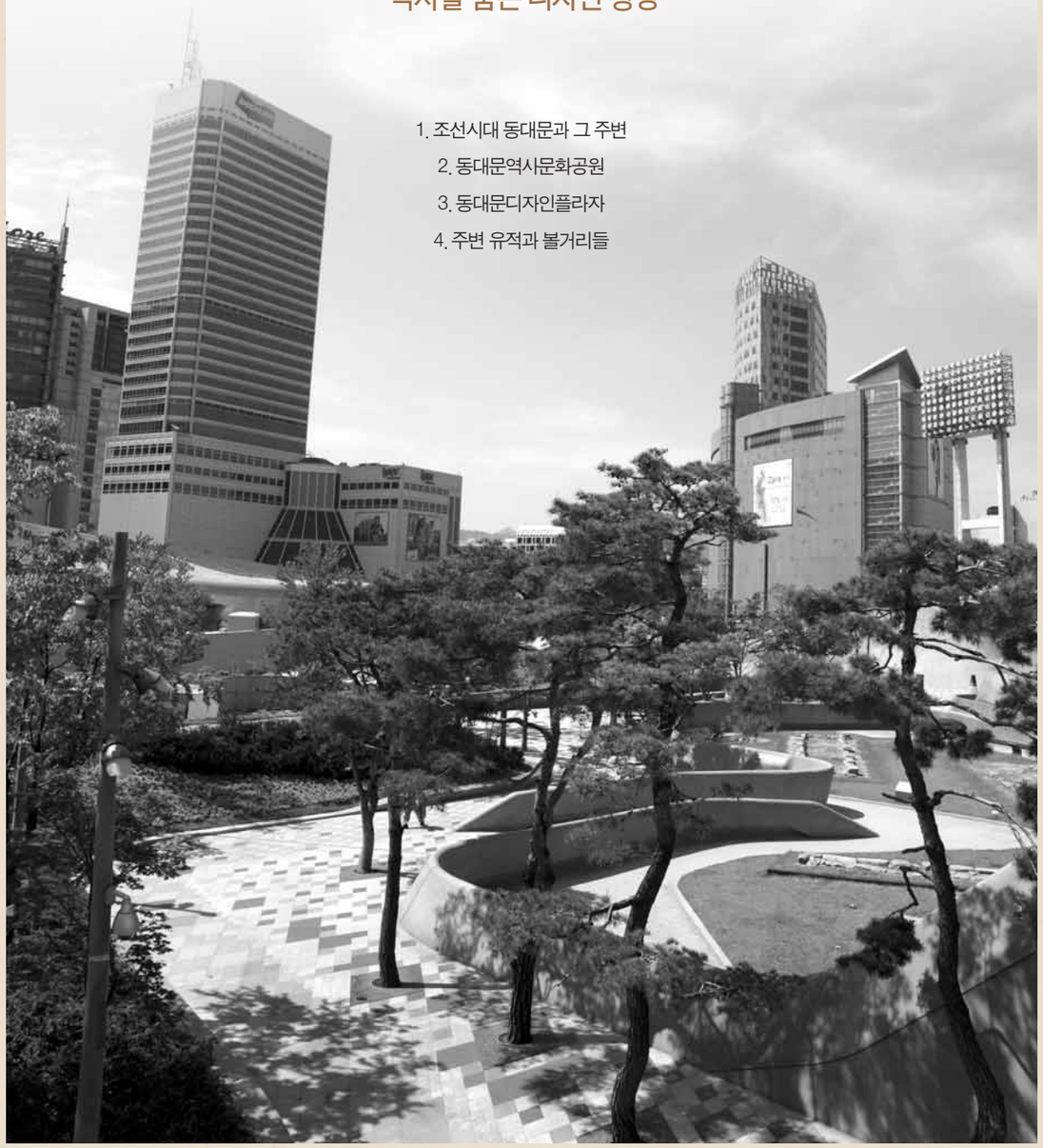
이외에도 나만의 우표를 만들어볼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우표 및 우표 수집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뮤지엄숍도 운영 중이다.[14)]

제8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DDP

역사를 품은 디자인 광장

1. 조선시대 동대문과 그 주변
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3.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 주변 유적과 볼거리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동대문운동장으로 기억하는 자리에는 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들어서 있다. 1925년에 일제가 세운 경성운동장이 1945년 광복을 맞으면서 서울운동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1984년에 새롭게 지어진 잠실종합운동장이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운동장이 되면서 동대문운동장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 후 2008년에 철거되기까지가 바로 동대문운동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오르면 조선시대에 이곳에는 중요한 관청들이 모여 있었고, 동대문에 이어진 성곽이 이어져 있었다.

1. 조선시대 동대문과 그 주변

'흥인지문'이란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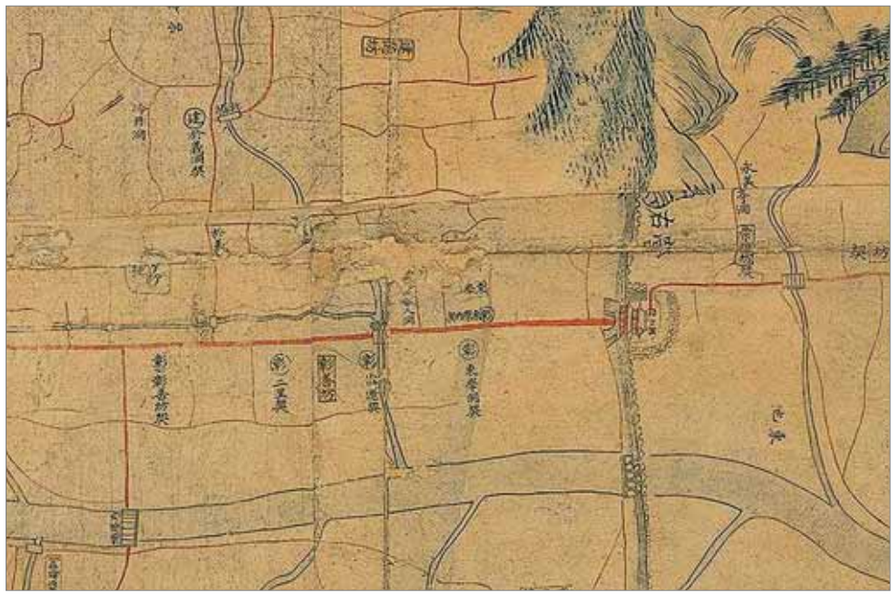
조선의 개국 세력들이 새 왕조의 도읍으로 한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지리적 이점에 있었다. 한양은 사통팔달한 도로와 수운이 용이한 강을 지니고 있어 외부로부터 쉽게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적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했다. 한 나라의 수도가 지녀야 할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 요충지라는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한양은 고려 말 이래 풍미했던 풍수지리 사상에 입각해서도 수도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다. 북으로 북악산, 남으로 한강이 흐르는 한양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었다. 풍수지리 사상에 따르면, 명당은 바람을 피하고 물을 얻을 수 있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분지를 둘러싼 사산(四山)과 객수(客水)인 한강이 있어서 한양은 장풍득수의 조건을 훌륭하게 충족시킨다.[1)]

조선의 건국자들은 이렇듯 사회경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풍수지리 사상과 음양사상에 입각하여 도성의 위치를 정하고 궁궐을 세웠다. 사람과 물화가 오가는 성문과 도로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팔괘(八卦)에 상응하는 여덟 방위에 문을 열고 길을 닦았다. 동서남북에 네 개의 대문을 열고 그 사이에 소문을 두어 모두 여덟 개의 문을 둔 것이다.

그중 한양의 동쪽 문인 흥인지문(興仁之門)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상(五常) 중 '인(仁)'을 취하여 이름을 붙였는데, 다른 문과 달리 네 글자로 되어 있다. 국초에는 '흥인문(興仁門)'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였는데, '흥인지문'이라는 명칭으로 바

1900년경의 동대문 안쪽 풍경과 1904년경의 동대문. 전신주가 세워져 있고 전차 노선이 깔렸다.



「도성대지도」(18세기 후반)에 그려진 동대문 주변.

뀐 것이 언제인지, 또 '지(之)'를 더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그 내력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대개는 풍수지리 사상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실제로 한양의 성문들 가운데 동대문만 유독 옹성으로 축조하였는데, 이는 낙산의 산세가 낮아 적을 방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악산, 남산, 인왕산에 비해 규모가 작고 높이가 낮은 낙산의 기운을 비보(裨補)하기 위해 산이 내달리는 모양의 '之'를 더하여 '흥인지문'이라 했다는 것이다.[2)]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터전

한편 동대문 일대는 한양의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다. 동대문 자체가 이미 축조할 때부터 말썽이었다. 청계천의 물길이 도성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곳인 데다 도성 내에서도 지대가 현저히 낮은 습지에 세워야 했으므로 다른 성문과 달리 말뚝을 먼저 박은 후 돌을 쌓아야 했다. 인접한 오간수문(五間水門) 때문에 공사가 더욱 어려워 다른 성문에 비해 공사 기간 또한 배나 걸렸다고 한다.

동대문에서 을지로6가 쪽으로 이어진 청계천에 오간수문이 있었고 그 남쪽에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이간수문.

이간수문(二間水門)이 있었다. 한양 성내의 물이 빠져나가는 수문 근처는 도성 내의 각종 오물이 흘러 내려가다가 쌓이는 곳이었다. 또한 도적이나 무뢰배들이 한밤중에 몰래 수문을 통해 도성을 드나들기도 했다. 행정과 치안의 사각 지대라는 특성 때문에 동대문과 수문 일대는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서울이 상업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일거리를 찾지 못하여 걸인으로 연명해야 하였다. 수백 명에 달하는 걸인들의 근거지는 주로 청계천 다리 밑과 청계천 준천 이후 생긴 가산(假山)의 토굴이었다. 서울에서 거지를 땅꾼이라 부른 것은 이들이 가산에 땅굴을 파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 가산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무너지거나 일제 때 종로를 돋우거나 건물을 지으면서 평지로 변했다. 현재 동대문종합상가 부근 북쪽 조산은 1898년에 전차 차고(車庫)를 세우면서 대부분 헐렸다. 평화시장 뒷골목에서 국립의료원을 거쳐

동대문 패션타운은 연중 수많은 관광객과 쇼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방산동 일대 청계천 남쪽의 조산은 1917년에 동대문초등학교를 세울 때 사용하였다. 그 이듬해인 1918년에 현 국립의료원 자리에 조선약학교(朝鮮藥學校)를 짓고, 1921년에는 그 서편에 경성사범학교를 세울 때 모두 파서 쓰고, 나머지 흙은 종로의 도로를 높일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3)]

이렇듯 일찍부터 동대문 주변은 일반 백성들이 삶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이었다. 궁궐과 관청 등 도성의 일차적 기능인 행정에 필요한 건축물이 중심이었으므로, 인구가 증가할수록 도성 내의 거주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도성의 출입이 용이했던 성문 가까이에 인구가 밀집한 거주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배오개장에서 동대문시장으로

한편 인구가 밀집하자 시장 또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남대문시장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자리 잡은 동대문시장은 배오개 또는 배우개장으로 불리던 곳으로 원래 미곡이나 어물, 잡화 등을 취급하는 난전이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상품화폐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의 발달함에 따라 점차 세력을 키워오던 난전 상인들은 배오개와 동대문 일대에서 나름의 상권을 형성하였다.

1890년 전후로 서울 상권은 전통적인 시전과 이에 맞서는 새로운 서민 상권으로 나뉘었는데 1899년에는 서대문에서 동대문을 거쳐 청량리에 이르는 전차노선이 완공되어 현재와 같은 거대 상권을 형성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한편 1900년 이후 물밀듯 들이닥친 일본 상인들이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배오개의 거상 박승직(두산그룹의 설립자)을 포함한 4인이 종로와 동대문 일대의 상인 26명과 함께 자본금 7만 8,000원으로 1905년 '광장주식회사' 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당시 광장시장의 규모는 단층 기와집 245칸, 함석지붕 53칸으로서 입주 점포 188개로 192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였다.[4)]

광장시장을 비롯하여 동대문 일대가 시장으로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당시 장안의 명물이었던 전차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했던 것이다. 1930년대 이후 면직물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동대문 포목상들은 도소

동대문 쇼핑몰 의류상가.

매를 겸하여 호황기를 누렸다. 일제 말기의 전시경제체제 속에서도 동대문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쟁의 폐허를 속에서도 동대문시장은 구호물자 판매를 통해 명맥을 유지하였다.

6·25전쟁 뒤에는 구호의류가 시장에 흘러들어 오면서 포목, 양장, 양품, 옷감 등을 취급하는 의류도매시장으로 바뀌게 된다. 1958년 대형 화재로 큰 피해을 입었지만 청계천 복개공사가 끝난 1961년 연건평 7,400평의 근대적 상가인 평화시장이 세워져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승승장구하였다.

한편 평화시장의 성공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상가 설립 붐을 불러와 동대문 일대가 거대 산업단지로 거듭나게 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대규모 도소매상권을 이루게 하였다. 또한 '영업시간 파괴'와 공격적인 판촉행사, 색다른 이벤트 등을 선보이며 오픈한 두산타워와 밀리오레 등은 동대문 쇼핑몰을 한국 패션유통의 새로운 모델로 우뚝 서게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5)]

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대문운동장

많은 사람들이 흔히 동대문운동장으로 기억하는 자리에는 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들어서 있다. 1925년에 일제가 세운 경성운동장이 1945년 광복을 맞으면서 서울운동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1984년에 새롭게 지어진 잠실종합운동장이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운동장이 되면서 동대문운동장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 후 2008년에 철거되기까지가 바로 동대문운동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오르면 조선시대에 이곳에는 중요한 관청들이 모여 있었고, 동대문에 이어진 성곽이 이어져 있었다. 다행히도 2008년에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되면서 땅 속에 파묻혔던 역사의 흔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공사 중 발굴 조사된 동대문운동장 지역의 매장 유물을 보전 전시하기 위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에 건립되었다. 발굴유물전시실에는 총 2575건, 2778점에 이르는 조선 전기에서 근대까지의 다양한 발굴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동대문운동장 토층 탐험 전시를 통해 동대문운동장 및 야구장 부지의 각 층에서 발굴된 대표 유물을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도감과 이간수문 3D 복원 영상관'에서는 하도감 터와 이간수문이 발굴지에서부터 과거의 모습이 복원되는 3D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고, 미디어테이블 위에 12가지 유물 파편을 올려놓으면 각 유물의 발굴지와 3D 복원 영상이 상영되는 첨단 기술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건물 내부에 비스듬히 서 있는 '역사의 기둥'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에 기념비적인 날들을 담았다. 8면 바닥영상은 사람이 다가가면 이간수문 주변의 사계절이 화면에 펼쳐지고, 모니터를 밟으면 화면의 물고기가 도망가고 나비가 날아가고 얼음이 깨지는 반응 영상이 펼쳐진다. 또한 '놀면서 배우자' 코너에서는 인터렉티브 체험 키오스크를 통해 동대문 일대의 유래와 발굴지 조사, 문화재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대문역사관은 비단 유물의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 문화콘텐츠 제공을 통해 체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6)]

동대문운동장기념관

과거 동대문운동장 터 위에 자리하고 있는 이 기념관은 1925년부터 2008년까지 동대문운동장의 83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동대문운동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체육시설로서 1925년 일제가 일본 왕세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경성운동장'이라 불리었으나, 1945년 광복과 함께 '서울운동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 초 격동의 시절에 서울운동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84회 생일 축하 행사(1956년 3월 26일)가 열린 지 불과 2년 뒤인 1961년에 4·19혁명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그 이듬해에는 5·16 1주년 행사가 열리는 등, 가히 운동장이 시대의 거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 후 1984년 잠실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서 서울운동장은 '동대문운동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와 동시에 종합운동장으로서의 대표적인 지위 역시 잠실로 넘겨주게 되었다. 2008년 동대문운동장 전광판 시계 철거 등을 끝으로 동대문운동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철거 당시 운동장 밑의 땅속에서 조선 초기의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었다. 각종 자기와 기와, 동전 등과 함께 조선시대 수문인 이간수문이 발견되었고, 서울 성곽 뼈대의 일부도 남아 있었다. 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는 동대문운동장에 세워졌던 5기의 조명탑 중 2기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의 흔적을 간직한 유적과 함께 20세기의 흔적인 조명탑을 함께 남겨놓음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위함이다.

동대문역사관과 동대문운동장기념관 전경.

일제강점기의 경성운동장과 철거되기 전의 동대문 야구장.

동대문유구전시장.

동대문운동장기념관에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이용되었던 시설들과 이곳에서 열렸던 다양한 운동경기와 각종 문화행사 관련 포스터와 책자들 및 각종 모형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동대문운동장과 관련된 오래된 기사들도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다.[7)]

동대문유구전시장

동대문운동장 부지 내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건축물 유구를 야외에 전시한 노천 전시장으로, 과거 축구장 부지와 야구장 부지에 한 군데씩 두 곳의 유구전시장이 있다. 유구(遺構)란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를 이르는데, 동대문유구전시장에는 축구장 부지 내에서 조사된 건물지 6기, 집수기 2기, 우물지 3기 등 각종 건축 유구와, 야구장 부지 내에서 발견된 건물지 4기, 우물지 1기, 소성시설(아궁이시설), 기와보도 등이 발굴 당시의 모습 그대로 이전되어 전시되어 있다.

애초에 동대문운동장 시설이 철거된 자리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를 건립하

동대문운동장기념관 전시관 내부.

려던 계획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으로 변경된 것도 바로 동대문운동장을 헐어낸 자리에서 조선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발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그 결과 이간수문과 치성 등 서울 성곽의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야구장과 축구장 부지에서는 조선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건물지 유구 44기를 비롯하여 조선 백자와 분청사기 등 조선 전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주요 유물 1천여 점이 출토되었다.

이처럼 시기와 계층을 망라한 유적과 유물이 대거 발견되고, 과거 건축물의 구조와 배치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구가 전시됨으로써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동대문의 옛 역사를 조명하여 현재에 알리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8)]

3.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창의적 디자인의 발신지 DDP

2014년 3월 개관할 예정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디자인-창조·지식의 발신지' 이자 서울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국내 최대 비정형 건축물이다. 지하 3층, 지상 4층의 이 건물은 이라크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것으로, 전위적인 형태의 금속 질감이 돋보이는 독특한 외형이 그 특징이다. 자하 하디드는 2004년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저명한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으며, 도시와 건축 그리고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지난 30년여 간의 혁명적인 실험과 연구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환유의 풍경'

자하 하이드가 설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건축 콘셉트는 '환유(換喩)의 풍경(風景)'으로 대변되는데, '환유'는 특정의 사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수사학적 표현을 의미하며 '풍경'은 인간과 그 환경 사이의 관계를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가지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도시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환유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풍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건물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건축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액체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건축물과 공원의 공간적 유연성을 추구함으로써 도시의 공공적 성격과 디자인 목표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디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경.

이너들과 대중을 위한 교육적 자원이 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문화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9)]

DDP의 내부 구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모두 5개 시설, 15개 공간을 지닌 복합문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오픈스튜디오, 연회장, 대회의실로 구성된 아트홀, 디자인박물관, 기획전시관, 상상체험관, 디자인둘레길로 구성된 디자인뮤지엄, 트렌드랩, 비즈스트리트, 교육공간, 디자이너스라운지로 이루어진 비즈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채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설치될 스카이라운지는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서, 건물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의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디자인미래관 · 체험관에는 미래 디자인이 전시되어 디자이너는

물론 일반 시민 고객에게 미래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첨단 미래디자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체험관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세계인의 미래가 만나는 꿈과 감성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 동대문이 아시아의 디자인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10)]

4. 주변 유적과 볼거리들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 패션타운은 전통 재래시장과 현대식 쇼핑몰이 공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산업 집적지로서, 24시간 도 · 소매 쇼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내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과 관광의 명소이다. 2002년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로 지정되었으며, 전통 재래시장 10개, 신흥 도매상가 13개, 복합쇼핑몰 8개의 규모에 전체 점포 수 35,000개, 종사자 수 약 15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복합 패션타운이다.

1일 평균 유동 인구 100만 명, 외국인 방문객 수 연간 250만 명의 규모에 걸맞게 1일 평균 총 매출액 약 500억 원, 연간 약 15조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의류 관련 국제 상거래의 주요 거점지 역할을 하여 연간 약 30억 불의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동대문 패션타운은 기획-생산-판매의 전 과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 저렴하고 새로운 디자인 패션을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어, 젊은 디자이너들의 감각이 돋보이는 다양한 고유 브랜드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이러한 장점 덕에 새로운 패션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연중 활기를 띠고 있기도 하다.

동대문 패션타운은 패션축제 및 복합쇼핑몰의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통해 역동적인 젊은이들의 패션문화거리를 형성하고, 패션과 쇼핑, 관광클러스터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명소로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듭나고 있다.[10)]

청계천 헌책방거리 풍경.

청계천 헌책방거리

청계천 헌책방거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헌책방이 영업을 하고 있다. 평화시장 건물 1층에 자리한 이곳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에 현재 동대문종합시장 근처의 청계천변에 헌책방 30여 곳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1960년대에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철거되고 현재의 평화시장 근처로 헌책방들이 옮겨가게 되었다. 1970~1980년대에 청계천 헌책방거리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서적과 잡지, 참고서, 만화책 등을 찾아 전성기를 누렸으나, 1990년대 이후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들의 등장으로 헌책방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채 30곳이 되지 않는 헌책방이 영업 중이지만, 여전히 헌책방만의 매력에 이끌려 이 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헌책방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의 헌책방 100여 개의 정보를 서울도서관 홈페이지(http://lib.seoul.go.kr/bookstore/main)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각 구별로 가까운 헌책방의 위치 지도와 주소, 전화번호, 이용 시간 등을 살펴볼 수 있다.[11)]

전쟁 후 실향민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평화시장.

평화시장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에 위치한 평화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의류 전문 도매시장으로서 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평화시장은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피난민들이 이 지역에서 미싱 한두 대로 옷을 만들거나 미군복을 염색, 탈색해 판매하던 것이 모태가 되었다. 판자촌으로 출발한 시장은 전쟁 이후 청계천변에 노점상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본격적인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당시 상인들의 60%가량은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었다.

그러나 1958년 이 일대의 대화재 이후 판자촌들은 사라졌고 1962년 지금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다. 시장 이름은 평화 통일을 기리는 실향민들의 염원에 따라 붙여진 것이다. 현재 평화시장은 총 점포 수 2,070개에 전체 종사자 5,300여 명에 이르며, 오랜 역사만큼이나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12)]

훈련원공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에 있는 공원으로, 조선시대 병사의 무술 훈련과 병서, 전투대형 등의 강습을 하던 훈련원이 있던 곳이다. 훈련원은 조선 태조 원년인 1392년에 현재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부근의 명철방에 훈련관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다가, 태종 때 이곳으로 옮겨서 청사 남쪽에 활쏘기 등의 무예를 연습하고 무과시험을 보는 대청인 사청을 지었으며, 세조 12년인 1466년에 훈련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많은 무장들이 훈련원에서 시험과 봉직 과정을 거쳤는데, 충무공 이순신이 별과시험에서 말을 달리다가 실수로 낙마하여 부상을 입은 곳도 바로 이 훈련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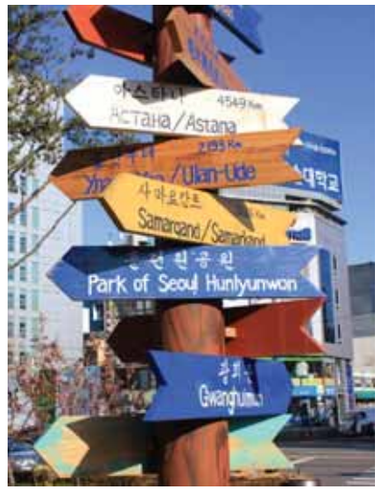
500여 년간 이어져오던 훈련원도 근대에 들어 나라의 운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 명을 다하게 되었다. 1907년 맺어진 한일신협약에 의해 훈련원에서 군대가 해산되었고, 군인들에 대한 무장 해제가 이루어졌다.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군인들은 비분강개하여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의병전쟁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후 간도와 러시아 등의 외국으로 나가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한 이들도 있었다.

훈련원 터는 군대의 해산 이후 경성사범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및 부속 중고등학교, 농협중앙회, 헌법재판소 등으로 사용되다가 1994년 훈련원공원 공사를 착공하여 1997년 6월에 개장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총 면적 1만 6,732㎡이며, 편의시설로 화장실과 벤치 등이 있고, 조경시설로 수목 26종 2만 여 그루, 화초 9,600포기와 잔디, 그늘막, 음수대, 계류천, 벽천, 안개분수 등이 있다.

중구는 이곳에 생활체육의 중심이 될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2014년 상반기까지 건립될 종합체육관의 규모는 대지 695.59㎡, 연면적 2,395.25㎡에 지상 2층, 지하 2층이며, 지상 1층에는 3면 규모의 배드민턴장과 공중화장실이 들어서고 지하 2층에는 다목적경기장과 관람석이 마련될 예정이다.[13)]

중앙아시아촌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촌은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내리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이곳은 88서울올림픽 이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보따리상



훈련원공원과 중앙아시아촌 이정표.

들이 동대문시장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다.

이주해 온 외국인들은 동대문시장에서 무스탕과 가죽 무역을 주로 해왔는데, 초반에는 이곳에 2000명 이상이 살았을 정도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터를 잡았지만 현재는 몽골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몽골인들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발달되어 있다. 러시아어와 몽골어로 적힌 상점과 회사의 간판과 다양한 음식점 등의 풍경이 이국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14)]

제9장

충무아트홀과 황학동 풍물거리

1. 고품격 공연예술의 허브 충무아트홀
2.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3. 서울중앙시장과 신당동 떡볶이타운
4. 황학동 풍물거리

중구문화재단은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여 충무아트홀을 국내 최고의 공연예술 허브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중구 문화 창조의 산실로 가꾸어가고 있다. 우선 뮤지컬 전문 공연장으로 시작한 만큼 그 특색을 살려 세계적인 뮤지컬 등 수준 높은 작품을 통해 국내의 공연 시장을 주도하고, 창작 뮤지컬 육성으로 국내 뮤지컬계의 토대를 강화하며, 서울뮤지컬페스티벌 등의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고품격 공연예술의 허브 충무아트홀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87길에 위치한 충무아트홀은 공공 공연장 최초의 뮤지컬 전문 공연장으로 출발하여 국내 최고의 명품 아트센터로 발돋움하고 있는 품격 높은 문화 공간이다. 중구문화체육센터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2005년 3월 개관한 충무아트홀은 최첨단 무대 시스템과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대극장(1,255석)과 다채로운 예술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원형 구조의 중극장 블랙(327석), 창작 스튜디오 개념의 소극장 블루(218석), 그리고 다양한 연습실을 갖춘 창작소이자 사랑방으로서 명실상부한 한국 공연예술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구문화재단은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여 충무아트홀을 국내 최고의 공연예술 허브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중구 문화 창조의 산실로 가꾸어가고 있다. 우선 뮤지컬 전문 공연장으로 시작한 만큼 그 특색을 살려 세계적인 뮤지컬 등 수준 높은 작품을 통해 국내의 공연 시장을 주도하고, 창작 뮤지컬 육성으로 국내 뮤지컬계의 토대를 강화하며, 서울뮤지컬페스티벌 등의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뮤지컬뿐만 아니라 클래식, 발레, 오페라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색깔 있는 문화 사업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의 생명력을 북돋우고 중구를 생활 속의 문화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1)]

충무아트홀은 갤러리 및 컨벤션센터, 연습실 등의 문화 공간은 물론 다양한 예술

서울뮤지컬페스티벌 포스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예술가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문화와 문화 복지를 창조해가고 있다. 이처럼 충무아트홀은 단순한 문화 소비와 향유의 공간을 넘어, 누구나 마음껏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어울림의 전당을 지향함으로써 유서 깊은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중구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다.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충무아트홀의 상주 예술 단체로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시나위가 있다. 유라시안 필하모닉은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오케스트라로서, 2011년 12월 충무아트홀 내 상주 단체로 선정되어 활발할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7년 서울 국제음악제로 데뷔한 유라시아 필하모닉은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하여 2005년 40개 지역 136회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명실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사랑받고 있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악감독 금난새의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연주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조화 있는 연주는 매 공연 청중을 클래식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늘 신선한 발상으로 다양한 연주회를 기획, 연주해오고 있는 유라시안 필하모닉은 기업과 예술단체 간 협력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신선한 내용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1999년 포스코센터 로비에서 열린 재야 음악회를 시작으로 매년 같은 장소에서 심포니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국내 유수 대학을 찾아가 젊은이들을 교향악의 세계로 안내하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수 기업들의 후원으로 펼쳐지는 음악 축제를 비롯하여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

크로스오버 국악 그룹인 앙상블시나위. 앙상블시나위는 1집 '영혼을 위한 카덴차'로 KBS 국악대상 연주단체상을 수상하였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그 기량을 인정받은 유라시안 필하모닉은 2003년 중국 연주 투어를 진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파리 베르사유 궁 연주와 류블리아나 섬머페스티벌에서의 초청 연주를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2006년 기타리스트 앙헬 로메로 내한 공연, 2008년 테너 호세 카레라스 내한 공연, 2009년 피아니스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소프라노 제시 노먼 내한 공연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 유라시안 필하모닉은 앞으로도 다수의 국내 연주를 비롯하여 해외 연주 투어를 계획 중에 있으며, 글로벌 오케스트라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계획이다.

앙상블 시나위

앙상블 시나위는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크로스오버 국악 그룹으로서, 충무아트홀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앙상블 시나위는 전통음악의 멋과 깊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기 위해 탁월한 기량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팀이다. 산조, 무속, 장단, 판소리 등 전통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즉흥 음악인 시나위로 풀어내어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매체와의 접목 및 해외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무아트홀과의 공동 기획 공연 시리즈로 2011년 9월 '전통에서 길을 찾다' 공연을 시작으로 2012년 2월 '전통에서 말을 하다', 같은 해 3월 '전통에서 춤을 추다', 9월 '길 위의 시나위', 10월 '영혼을 위한 카덴차'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13년에는 교환 사업 공연으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시간 속으로 - 판소리, 통섭의 가능성'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앙상블 시나위는 2011년 1집 앨범 「영혼을 위한 카덴차」를 발표하여 2012년 KBS 국악대상 연주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그 기량을 인정받았으며, 전통음악의 대중화와 현대적 크로스오버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발전하고 있다.[3)]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충무아트홀은 중구의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곳곳에 문화예술을 확산하여 생활 속의 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2012년부터는 충무문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청소년 학교 폭력 문제, 소득 격차로 인한 기회 불균형의 문제 등을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청소년들이 문화 마인드를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2012년 처음으로 개최된 충무문화포럼은 '서로 다른 행성, 충돌하지 않고 소통하다'라는 이름 아래,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5명과 지역사회 패널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자료집으로 발간되어 이후 각종 사업 수행에 활용되고 있으며, 포럼 참여 인사들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사례와 중구 지역의 특성을 접목함으로써 앞으로의 문화사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무예술아카데미

충무아트홀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는 우선 충무예술아카데미를 꼽을 수 있다. 충무예술아카데미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문화창조력과 예술생산성을 발휘하는 생활예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을 문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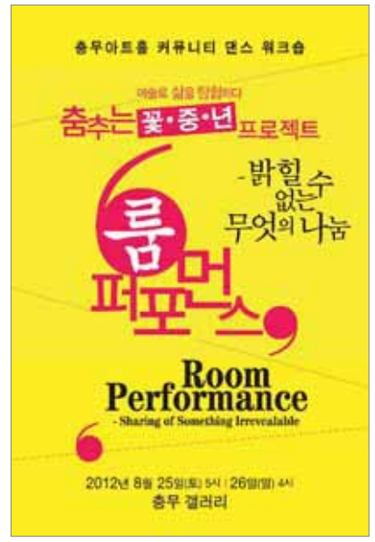
국립발레단에서 진행한 충무아트홀 발레아카데미.

매개하는 문화창조 프로그램, 생활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양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충무아트홀-국립발레단 발레아카데미를 신설하여 강북 지역 고급 발레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문아카데미를 신설하여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무예술아카데미의 강좌는 매년 3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또한 충무아트홀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위해, 다양한 '문화콘서트'와 '사랑방콘서트'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콘서트는 시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형식의 콘서트로서, 2006년 클래식, 재즈,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 '굿모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한 '7080 콘서트'와 '열린음악회', 2009년 지역 특산물 장터와 문화를 접목한 '장터콘서트'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충무로 영화의 거리'를 추억하며 전성기의 영화 주제가와 영화 영상, 대표 배우와 영화감독의 이야기를 담은 '시네마 토크 콘서트'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사랑방콘서트는 지역밀착형 문화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구의 생활공간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춤추는 꽃중년 프로젝트'.

으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공연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랑방콘서트는 직접 사연을 신청하고, 선정된 결과에 따라 공연이 이루어진다. 상주 예술단체인 앙상블 시나위를 비롯하여 서울클래시컬플레이어즈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연주 무대를 동네 도서관과 자치센터 등에서 감상하는 특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4)]

커뮤니티 댄스프로그램

충무아트홀의 특색 있는 문화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춤'을 매개로 직접 참여하고 창조하는 주체적인 지역문화 예술매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춤추는 꽃중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최근 지역문화 복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커뮤니티 아트의 형태 중 충무아트홀은 중구 지역에 기반한 프로젝트로 '춤'을 선택하였다. 여기서의 춤이란 스스로 제멋에 겨워 추는 춤이자,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춤을 의미한다. 춤은 개인적이면서도 집단 내에서의 관계 형성과 공감, 소통에 효과적인 매개로서 커뮤니티 아트 장르로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충무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책 드라마 페스티벌' 포스터.

충무아트홀이 자체 개발한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은 2012년 3월부터 예술입문강좌, 춤워크숍 등 6개월의 교육 과정 후 공연과 전시를 통해 참가자 모두 예술가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물로 2012년 8월 시즌 1 꿈꾸는 꽃중년 프로젝트 발표공연 '룸 퍼포먼스-밝힐 수 없는 무엇의 나눔'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즌 2 '춤, 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5)]

중구 청소년 문화캠프

충무아트홀은 중구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무 청소년 문화캠프'를 주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극과 뮤지컬 공연의 제작 과정에 청소년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창작과 표현의 즐거움을 느끼고 희곡 읽는 법, 캐릭터 나타내는 법 등을 익혀 창조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2011년에는 연극배우 안석환 씨가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와 한양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극을 지도하여 살아 있는 연극의 묘미를 알려주었으며, 2012년에는 배우이자 연출가이며 문화부장관을 역임한 김명곤 씨가 예술감독으로 나서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2013년 충무 청소년 문화캠프는 'I SEE YOU'라는 고등학생 대상의 맞춤형 통합예술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전문 뮤지컬 연출가와 작곡가의 지도는 물론, 인문학 강의와 심리 상담, 뮤지컬 전공 대학생들과의 멘토링 시스템이 결합되어 청소년들의 인성 발달과 소통 능력 향상에 더욱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충무아트홀은 상주 예술교육단체인 '문화예술교육 더 베프'와 공동 주관으로 매년 봄, 가을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책 드라마 페스티벌', 9월에는 '국제장애어린이축제'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문화로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펼치고 있다.[6)]

사회공헌 협력사업

충무아트홀은 문화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회공헌 협력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인 '뷰티플마인드 뮤직 아카데미'는 충무아트홀과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장애우,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 음악 프로그램이다.

뷰티플마인드 뮤직 아카데미는 음악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내면적, 정서적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음악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계발하여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충무아트홀은 지역 자치단체 공공재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문화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쾌적한 시절을 자랑하는 스포츠센터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규모 및 현황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2008년 1월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체육 시설이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8월 중구청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그동안 중구청에서 관리해오던 공공시설물을 수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에 총 면적이 11,408.53㎡에 달한다. 층별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 2층에는 수영장(성인 8, 유아 3 레인)과 강사실, 다목적체육관이 위치하며 지하 2층에는 안내 및 접수처와 요가장, 사랑방, 놀이방이 있다.

또한 지상 1층에는 레스토랑과 커피숍, 강당 등이 있고 2층에는 대체육관과 소체육관, 3층에는 헬스장과 건강놀이터가 갖추어져 있다.

4층에는 사무실 및 창고, 기계실 등이 들어서 있고 5층에는 실내 19타석, 실외 9타석의 골프연습장이, 6층에는 실외 9타석의 골프연습장이 운영 중이다.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인 사물함 대여와 놀이방, 주차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4호차까지 셔틀버스가 운영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는 성인 남녀 수영(아침수영 · 즐거운 저녁수영 · 건강수영 · 효도수영)과 아쿠아로빅, 아쿠아워킹, 그리고 수영장 강습회원을 위한 1일 3회 자유수영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이 운영 중이며, 성인 여성과 남성을 위한 댄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 여성을 위해서는 밸리댄스와 에이로빅, 성인 남녀를 위해서는 나이트댄스와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방송댄스까지 다양한 강좌가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요가와 필라테스 강습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프로그램으로 배드민턴과 탁구 교실도 운영 중이다. 어린이와 유아를 위해서는 수영과 발레 교육이 이루어진다.[7)]

3. 서울중앙시장과 신당동 떡볶이타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시장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신당동 중앙시장의 공식 명칭은 '서울중앙시장'이지만 지하철 신당역과 인접하여 흔히 신당동 중앙시장으로 불린다. 신당동 중앙시장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과 함께 서울의 3대 재래시장으로 꼽히며, 지난 1960년대 초 황학동 지역에 자연스럽게 들어선 복합시장이다.

이곳은 본래 양곡 · 건고추 · 잡곡 도소매와 함께 닭 부산물, 축산 부산물 등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한때 서울 시민의 전체 양곡 소비량 가운데 70% 이상이 이곳에서 거래될 만큼 번성했으나 시설이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점차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 상권을 빼앗겨오다가, 2004년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비가리개, 전등 · 전기공사, 소방시설 설비공사, 도로포장, 아케이드 공사, 간판 정비 등 대대적인 개선과 정비 작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유통시장과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비록 예전만큼의 번성함은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근래 황학동 지역에 대형 주상복합건물과 극장 등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다. 2009년 10월에는 중앙시장 지하쇼핑센터 내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신당창작아케이드를 조성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하였다. 신당동 중앙시장은 쾌적한 현대식 시설에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이 넘치는 전통적인 시장 고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8)]

서울중앙시장 입구.

신당동 떡볶이타운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신당동 떡볶이타운은 지하철 신당역 8번 출구로 나오면 만날 수 있는 독특한 먹거리 골목이다. 이 떡볶이 거리의 역사는 6·25 때 피난민들의 동네였던 신당동 골목에 연탄불을 피우고 저렴한 떡볶이로 한 끼를 때우던 195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로 떡볶이는 점차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서민의 먹거리가 되었고,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지금처럼 떡볶이 골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에 떡볶이 집마다 'DJ 박스'가 생겨나면서 사연과 함께 음악을 틀어주는 DJ는 이 골목의 명물이자 상징이 되었다. 또한 당시는 고교야구의 전성기여서 동대문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한 학생들이 떡볶이 골목으로 몰려들기도 했다.

1950년대에 판매되던 초창기 떡볶이는 고추장만 넣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음식이었으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심심풀이 간식이 아닌 엄연한 한 끼 식사가 가

신당동의 떡볶이 타운 거리축제 모습. 떡볶이 타운은 관광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북적이는 신당동의 명소이다.

능한 요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요즘은 떡볶이에 삶은 달걀, 어묵, 쫄면, 라면사리 등을 기본으로 오징어와 새우, 치즈까지 곁들여진 다양한 메뉴가 개발되어 이곳을 찾는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지금도 신당동 떡볶이타운에는 저마다 원조임을 내세우는 10개의 가게가 자리하고 있으며, 신당동 떡볶이 특유의 맛을 찾아 전국 각지와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늘 북적인다.

이러한 신당동 떡볶이타운을 보다 특화된 명소로 만들기 위해, 해마다 가을이면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축제가 열린다. 2013년으로 15년째를 맞은 이 축제에서는 떡볶이 퀴즈와 떡볶이 요리 경연대회, 떡볶이 빨리 먹기 대회 및 장기자랑과 무료 시식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9)]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시민과 예술가의 행복을 위해 서울시에서 조성한 11개 창작 공간 중 하나이다. 서울시 창작 공간은 도시 곳곳의 유휴 공공청사, 구 공업지역의 폐공장, 상권이 쇠락한 지하상가 등 낙후된 지역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하여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즐거움을 누리게 함으로써 경계를 허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신당창작아케이드는 1971년에 조성된 황학동 중앙시장 신당지하쇼핑센터 내 52개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마련된 공간이다. 중앙시장 지하상가는 한때 성업하였으나 근래에는 몇 개의 점포만 남아 명맥만 유지해왔는데, 바로 이 노후한 상가 시설이 제각기 독특한 개성이 살아 숨 쉬는 창작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2009년 10월에 개관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특히 도자 · 섬유 · 금속 · 유리 · 한지 · 칠보 등의 공예작품과 판화, 북아트, 사진, 일러스트, 디자인, 미디어 영상들을 창작하는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총 1,352㎡의 면적에 39실의 창작공방과 9실의 공용 공간, 그리고 전시준비실 등이 운영 중이다.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인큐베이팅 공간이자,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특

서울중앙시장 지하쇼핑센터 내에 마련된 신당창작아케이드.

성을 살려 재래시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며, '동대문-신당-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마다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기획전시가 진행되며, 2013년 가을에는 입주 작가 협동조합이 출범하여 공동 생산과 판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4. 황학동 풍물거리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서울풍물시장으로

청계천8가 황학교 주변에는 2층 건물로 이루어진 서울풍물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풍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게 꾸며진 대표적인 장터인 이곳의 전신은 1950년대를 전후해 형성된 황학동 풍물시장이다.

본래 청계천 7가, 8가 사이 삼일아파트 뒤편에 위치했던 황학동 풍물시장은 황학동 벼룩시장, 도깨비시장, 개미시장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전국 구석구석을 벼룩 뛰듯 돌아다니며 모아온 희귀한 물건들이 가득하다 하여 벼룩시장이란 이름으로 친근하게 알려졌다.

그 이름에 걸맞게 옛날 시골집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낡은 물건들이며 헌옷가지와 인테리어 소품들, 골동품을 비롯한 중고 가구, 가전제품, 보석, 악기, 카메라 및 각종 기계, 공구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만물상이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또한 아무리 오래되고 망가진 물건일지라도 이곳 상인들 손만 거쳤다하면 감쪽같이 새것이 되고 재활용품이 된다 하여 도깨비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2004년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황학동 풍물시장 상인들과 주변 노점상들이 대거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하여 동대문풍물벼룩시장으로 이어져오다가, 2008년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으로 다시 정착한 곳이 신설동에 위치한 지금의 서울풍물시장이다. 근래에는 예전의 황학동 풍물시장 상인들 중 일부가 동묘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풍물거리를 이루고 있다.[10)]

황학동 주방기구 · 가구거리 한마음 축제와 풍물거리의 명물인 만물상.

황학동 가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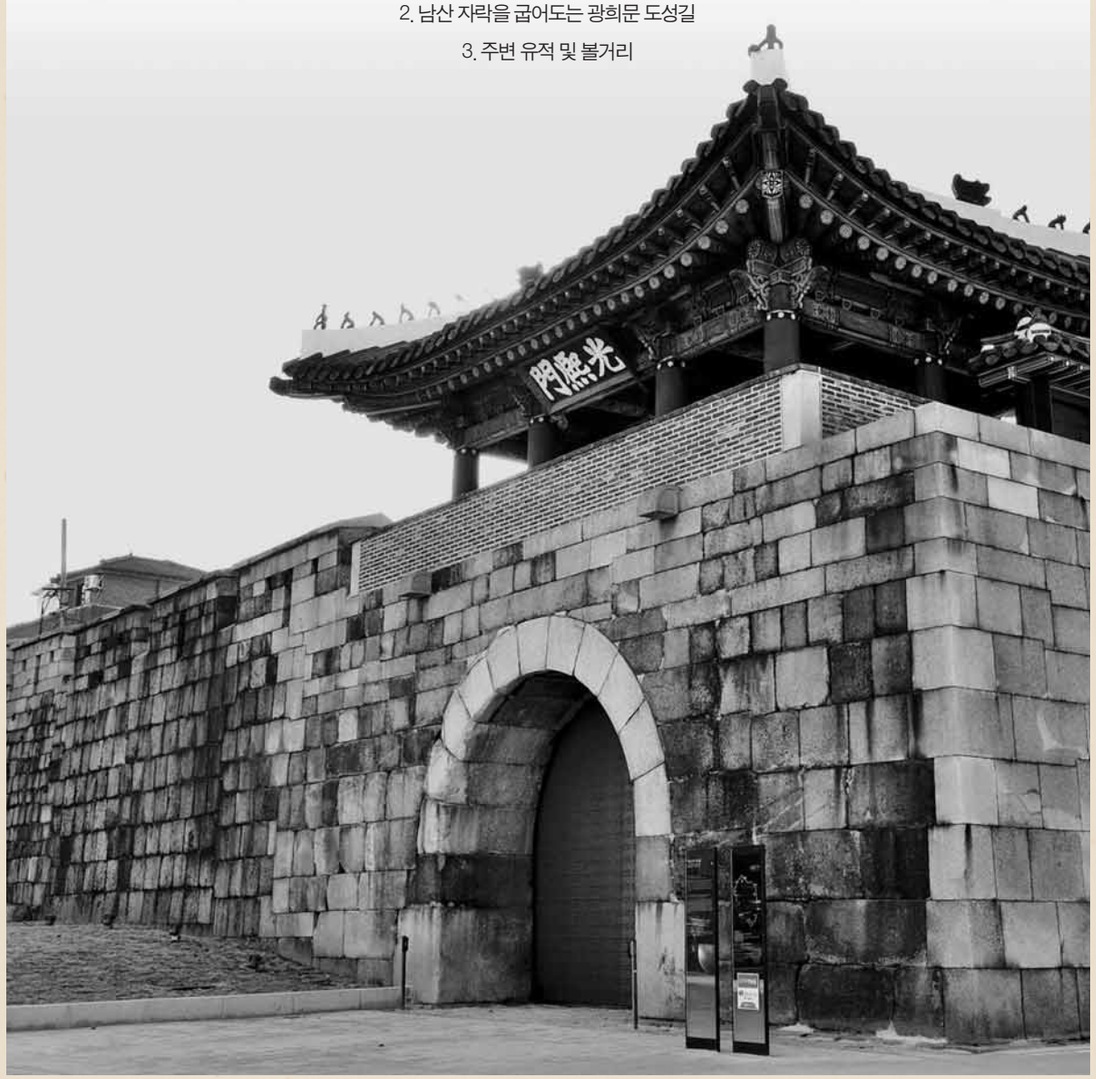
지하철 신당역 1번 출구로 나가면 황학동 주방기구 · 가구거리가 위치하고 있다. 3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거리에는 400개 이상의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전국 외식업소 주방용기의 80%가 이곳에서 조달될 정도로 최대의 규모이다. 외식업소 창업자들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리에서는 업종별 주방그릇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방설비에 관한 상담부터 실제적인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황학동 주방기구 · 가구거리 한마음 축제를 열어 각종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고, 주방기구 · 가구 특화상품 개발 및 동대문 · 청계천과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0장

광희문 지나
한양도성 따라 걷다

1. 광희문에 깃든 역사
2. 남산 자락을 굽어도는 광희문 도성길
3. 주변 유적 및 볼거리



광희문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한양도성의 남동쪽 방향에 나 있는 성문이다. 남대문과 동대문 사이에 있어 남소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오늘날 장충단길 언덕 자리에 별도의 남소문이 있었기에 그렇게 불린 적은 없었고 대신 수구문(水口門)이란 별칭으로 불렸다. 남산에서 흘러내려온 계곡물이 이곳 가까운 곳으로 빠져나갔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태조 5년(1396) 도성을 건설할 때 도성 사소문 중 하나로 세워졌는데, 광희문(光熙門)이라는 이름은 '광명(光明)의 문'을 뜻했다.

1. 광희문에 깃든 역사

한양도성과 광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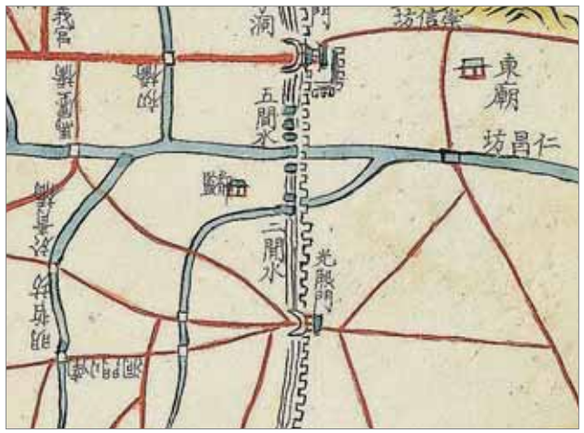
광희문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한양도성의 남동쪽 방향에 나 있는 성문이다. 남대문과 동대문 사이에 있어 남소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오늘날 장충단길 언덕 자리에 별도의 남소문이 있었기에 그렇게 불린 적은 없었고 대신 수구문(水口門)이란 별칭으로 불렸다. 남산에서 흘러내려온 계곡물이 이곳 가까운 곳으로 빠져나갔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광희문은 태조 5년(1396) 도성을 건설할 때 도성 사소문 중 하나로 세워졌는데, 광희문(光熙門)이라는 이름은 '광명(光明)의 문' 을 뜻했다. 한편 세종 4년(1422) 도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할 때 이 문을 수리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석성(石城)으로 개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와중에 크게 훼손되어 한동안 방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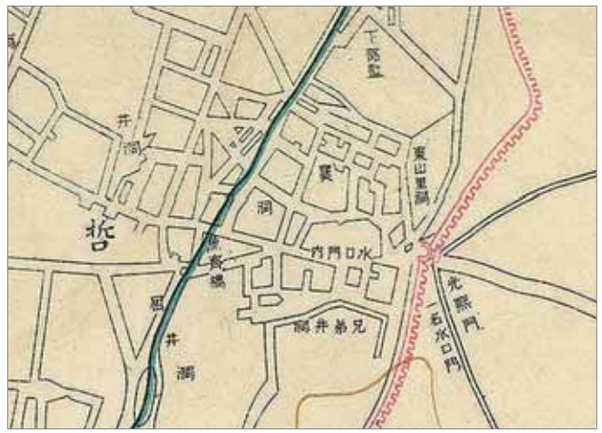
그러다가 숙종 37년(1711) 민진후(閔鎭厚)의 건의에 따라 금위영(禁衛營)으로 하여금 수구문을 개축하게 하고, 문루는 목재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후일에 개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숙종 45년(1719) 민진후가 수구문은 예전에 광희문이라 했으니 금위영으로 하여금 문루를 짓게 하고 현판을 걸게 하자고 건의하였는데, 이를 보면 광희문은 숙종 37년 도성을 개축할 때 새로 홍예를 건축하고 다시 8년 후인 숙종 45년에 문루를 건축한 후 '광희문(光熙門)' 이란 현판을 걸었음을 알 수 있다.[1)]

광희문과 남소문은 별개의 문이었다. 남소문은 장충동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버티고개 입구에 있던 문이었다. 조선 초에 남쪽지방에서 한강나루(한남동)를 통해

1900년경의 광희문과 현재의 광희문. 광희문은 '광명의 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동여도』 중 「도성도」(19세기 중엽)에 나타난 광희문 주변.



「최신경성전도」(1907년)에 나타난 광희문 주변.

도성으로 들어오려면 광희문을 이용해야 했는데, 한강을 건너 바로 버티고개를 넘지 않고 동쪽으로 산등성이가 높고 낮은 길을 돌아서 광희문으로 오게 되는 것이 불편하다 하여 세조 3년(1457)에 남소문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남소문은 건립된 지 12년 만인 예종 원년(1469)에 폐쇄되었다. 그것은 이 문이 실용성이 없고, 서울의 동남쪽을 개방하면 나라에 화가 미칠 것이라는 풍수지리상의 이유와 함께 남소문 일대에 도적떼가 출몰한 사실 등이 폐쇄 이유가 되었다. 이후 남소문은 명종 · 숙종 · 영조 때에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행을 보지 못하고 계속 폐쇄되었다.

따라서 광희문은 한양의 남동쪽 교통로로서 그 역할이 중시되어, 조선시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는 주요 도로 중 하나로 이용되었다. 즉 동대문 또는 광희문을 지나 광나루를 거쳐 광주(廣州)로 가거나 살곶이 다리를 건너 송파를 거쳐 광주로 가기도 하였고, 또 하나는 광희문에서 한강진으로 빠져 압구정동 · 말죽거리를 지나 광주 · 용인으로 갈 수 있었다.

한편 광희문은 일본 사신의 도성 출입문이기도 하였다. 외국 사신들은 도성 사대문과 사소문 가운데 조선 정부에서 지정해준 문으로만 출입하도록 제한받았다. 남대문 즉, 숭례문(崇禮門)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신은 중국 사신뿐이었고, 여진족 사신은 동소문 즉, 혜화문만을 이용하였으며, 일본 사신은 두뭇개나루(豆毛浦)로 한강을 건너 이곳 광희문을 통해서만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2)]

수구문과 시구문이란 별칭

광희문은 '시체가 나가는 문'이라는 뜻으로 시구문(屍口門)으로도 불렸다. 서울 토박이들이 '수'를 '시'로 발음하면서 시구문으로 불렸다는 설도 있지만, 실제로 광희문은 시구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도성 안에서 죽은 시신을 내다놓는 장소로 유명했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살해된 양민, 조선 후기 순교를 당한 천주교도, 1886년 콜레라로 죽어간 사람들, 1907년 군대가 해산될 때 일제와 싸워 전사한 군인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곳에 버려졌다. 일제강점기 광희문 밖 신당동 일대에는 주거단지로 개발되기 전까지 공동묘지와 화장터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돌림병이 유행하면 면역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무더기로 죽어갔다. 우리 조상들은 집 안에서 사람이 병으로 죽으면 그 병귀가 다시 집안 사람에게 옮아 붙는다고 믿고 죽기 전에 피막(避幕) 또는 병막(病幕)이라고 해서 성문 밖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 곳에 환자를 옮겨 놓는 풍습이 있었다. 당시 콜레라를 호열자라 했는

1890년대 중반의 광희문.

데, 호열자가 유행하면 도성 내 서민들은 죽어가는 아이를 둘러업고 광희문 밖에 내다버리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러기에 돌림병이 유행할 때면 광희문 밖에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수십 수백 명의 어린이들로 생지옥을 이루었다 한다.

1886년에 선교사인 스크랜튼 부인이 서울에 와서 이화학당을 세우고 나서 광희문 밖에 나가 다 죽어가는 소녀를 데려다가 치료해서 생명을 건지게 하고 이화학당 최초의 학생으로 교육시켰던 일은 유명한 이야기이다.[3)]

이처럼 광희문은 시구문이란 별칭을 가질 만큼 왕이 다닐 만한 품격에는 어울리지 못했는데, 인조는 병자호란 때 이곳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다. 애초 강화도로 피신하기 위해 숭례문으로 향했지만, 청나라 군대가 한양 인근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한산성으로 다급히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왕의 품위를 가릴 형편이 아니어서 광희문을 통과해 나갔던 것이다.

실상 광희문은 '광명의 문'이란 이름에 담긴 뜻과 달리 '이름값을 못했던 성문'이었다. 수많은 상여가 통과했고 주인 없는 시신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버려졌으므로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선시대 때 지방 사람들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수구문 돌담의 돌가루를 긁어오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는 수구문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의 지독한 병에 성돌이 강하게 단련되었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수구문 돌가루가 만병통치약으로 통했기 때문이라고 한다.[4)]

프랑스 신문에 실린 1907년 8월 군대 해산 당시 한국군과 일본군의 전투 장면.

군대 해산에 저항해 일본군과 싸우다가 숨진 한국 병사들의 시신이 광희문 밖에 방치되어 있다.

하도감과 군대해산

한편 동대문과 광희문 사이에는 조선시대 군대가 주둔하였던 군영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날 을지로7가에 있던 하도감(下都監)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 후기 오군영(五軍營)의 하나인 훈련도감에 속했던 하도감은 훈련원(訓鍊院) 동쪽인 오늘날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규모는 3백 90칸 정도였다고 전한다. 훈련도감 중 최대 규모의 병영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別技軍)의 훈련장이 바로 이 하도감에 있었다. 별기군은 1881년 5월(고종 18년) 오군영으로부터 신체가 튼튼한 80명의 지원자를 뽑아 창설한 신식 군대였다. 그러나 구식 군대에 대한 홀대로 발생한 임오군란을 계기로 군사제도가 다시 옛 군영체제로 바뀌면서 별기군은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광희문에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슬픈 역사가 깃들어 있다. 1907년 8월 1일 일제의 강압에 의해 한국군 해산의 칙서가 내려졌는데, 이에 불복한 한국군 2개 대대 병사 1,200여 명이 남대문과 서소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약 120명의 한국군 병사가 전사했는데, 시체들을 광희문 밖에다 운

광희문 복원공사 준공식(1975년 11월) 모습과 현재의 광희문.

반하여 늘어놓고 가족들에게 시체를 찾아가 묻도록 공고하였다. 이때 광희문 안팎은 수십일 동안 군인가족들의 비명과 통곡으로 날이 새고 저물었다 한다.[5)]

광희문의 수난과 복원

광희문의 수난은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면서부터 본격화하였다. 일제는 도로를 넓히고 전차를 개통시킨다는 명목으로 한양도성 곳곳의 성벽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동대문 밖에서부터 광희문 사이의 성벽 역시 헐리고 만다. 일제강점기 광희문은 혜화문과 함께 1928년에 문루가 헐려 이후 오랫동안 홍예만 남아 있었다.

해방 후에도 광희문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1975년 11월 17일 서울시가 도성 복원 공사의 일환으로 홍예만 남아 있던 광희문의 석문을 수리하고 문루 12평을 재건하면서 우리의 품에 되돌아왔다. 홍예석문은 원래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15미터 이전한 것으로, 그 위에 무너져 내린 문루 12평과 성곽의 여장(女墻) 30미터를 복원하였고 주위 200여 평을 녹지대로 만들었다. 이후 광희문 남쪽 성곽의 여장 25.6미터를 복원하고 배수로 60미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1977년 2월 28일 완공하였다.

2013년 현재 광희문은 성문 지붕 보수, 탐방로 신설, 차도 포장, 가로수 식재, 벤치를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등 지역 명소로 재탄생하기 위한 광희문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2. 남산 자락을 굽어도는 광희문 도성길

수구문길

광희문 옆으로 새롭게 정비된 성곽은 100미터 정도 이어지고, 성곽이 끝나는 지점에 수구문길이 뻗어 있다. 이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면 좌우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장수길'을 만나 작은 삼거리를 이루는데, 실제로 수구문길 끝자락과 이 길의 방향을 그대로 연장한 장수길 건너편에서 주택의 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곽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장수길 건너편에서 보이는 성곽의 흔적은 걸어왔던 수구문길 방향을 따라 그대로 연장해서 지나갔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곳부터는 길이 놓여 있지 않아 성곽을 따라 걸을 수 없어 다른 길로 우회해야 한다.

성당길

수구문길에서 장수길과 만나 그곳에서 왼쪽으로 꺾어 잠시 걷다가 오른쪽 모퉁이에 '장충가든빌라'가 보이면 그곳을 끼고 오른쪽 '성당길'로 접어든다. 이 길에서 성곽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길을 걷다가 오른쪽으로 놓인 막다른 골목길이 있으면 그 길을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첫 번째 골목길로 들어서면 주차장 공터가 나오고, 이곳을 가로질러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서면 끝에 자리 잡은 주택 옆 계단에서 좁은 길 안으로 성돌이 보인다. 그리고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짧아 보이지 않는 성곽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다시 성당길로 나와 걸으면 명진빌 왼쪽과 오른쪽 골목에서도 주택 너머 성곽이 보이고, 그 다음 장충아트빌라 골목 끝에서도 성곽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 구간에서 관찰되는 성곽 흔

광희문 왼쪽으로 이어진 성곽의 안쪽과 바깥쪽.

한양도성 따라 걷는 낭만의 산책길.

적은 숙종과 세종 때 축성된 것들로, 성곽이 이어진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

장충아트빌라에서 성당길 언덕을 따라 걸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2시 방향으로 길이 휘어지는데, 이 지점부터 오른쪽으로 고급 주택들이 길을 따라 이어지고 장충동 부자촌으로 알려진 곳이 나온다. 한양도성은 이 부자촌 정원을 뚫고 지나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곽길 따라 걷는 낭만의 산책길

성당길을 빠져나오면 동호로와 만나고, 이 도로를 건너면 왼쪽 언덕 위로 온전한 모습이 성곽이 나타난다. 이곳부터는 도성 밖에서 성곽을 따라 걸을 수 있는데,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어 성곽을 따라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오랜 세월의 때가 묻은 성돌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다. 도성 안에는 신라호텔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성벽은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자연스레 호텔의 담장이 되었다.

성곽을 따라 계속 오르면 암문을 만나게 되고, 신라호텔의 담장 역할을 하는 성벽은 바로 이 암문에서 끝난다. 호텔 끝자락인 이 암문을 지나면 도성 안에는 서울클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센터 등이 성곽길을 따라 차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온전한 성벽을 바라보며 꾸준히 걷다 보면 성곽은 갑자기 끊긴다. 성곽이 끊긴 지점에는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성곽은 이곳을 가로지른다. 골프연습장 옆으로 나무 데크로 만든 길을 따라 걸으면 '반얀트리클럽&스파' 부지로 이어지는데, 본래 이곳은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해서 유명했던 '타워호텔' 소유지였다. 반얀트리클럽&스파 구간의 성곽은 1960년대에 타워호텔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그렇다면 이 무수한 성돌은 어디로 갔을까? 이 호텔 정문을 나서면 장충단길과 만나는데, 이 길을 따라 동대입구역 방면으로 내려가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자유센터 정문이 있고 이곳에서 200여 미터 더 내려가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문이 나온다. 이 정문까지 이어진 담장의 돌은 성돌을 쌓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돌들이 옛 타워호텔을 지을 당시 없어진 그 성돌이다.[6)]

3. 주변 유적 및 볼거리

한양도성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각자 성석.

각자(刻字) 성돌에 새겨진 선인들의 숨결

성곽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문까지 걸으면 글자가 새겨진 성돌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 걷는 재미를 더한다. 이 구간에서 볼 수 있는 각자들을 걷는 방향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자문이 새겨진 성돌은 生字六百尺(생자육백척), 水字六百尺(수자육백척), 崑字六百尺(곤자육백척), 崗字六百尺(강자육백척), 劍字六百尺(검자육백척) 등이 있다. 이들 각자의 규칙은 천자문 글자 다음에 자육백척(字六百尺)이라 적혀 있는 점인데, 이는 각자에 적힌 천자문 글자의 해당 구간 600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生字六百尺(생자육백척)이란 천자문의 42번째 글자가 되는 '날 생(生)'자 구간 600척을 말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각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해독하면 된다. 물 수(水), 산이름 곤(崑), 칼 검(劍), 언덕 강(崗)은 천자문에서 각각 44번째, 47번째, 48번째, 49번째 글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성돌에 천자문은 왜 새겨진 것일까?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한양도성을 축성할 때 전체 5만 9500척을 600척씩 모두 97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구간별로 군현을 지정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성을 쌓도록 했고, 이들 구간 성돌에 천자문 순서대로 글자를 새겨 넣도록 했다. 북악산 정상에서 '하늘 천(天)' 자로 시작하여 낙산, 남산, 인왕산을 지나 마지막에는 천자문의 97번째 되는 '조상할 조(弔)' 로 끝이 난다.

성곽길에서는 천자문의 글자뿐만 아니라 공사를 맡았던 군현의 이름이 직접 새겨진 각자들도 보인다. 걷는 방향의 순서대로, 해진시면(海珍始面), 함안시면(咸安始面), 의령시면(宜寧始面), 경산시면(慶山始面), 연일시면(延日始面), 흥해시면(興海始面), 순흥시면(順興始面), 하양시면(河陽始面), 기장시면(己長始面), 울산시면(蔚山始面), 예천시면(禮泉始面), 성주시면(星州始面), 선산시면(善山始面), 경주시(慶州始)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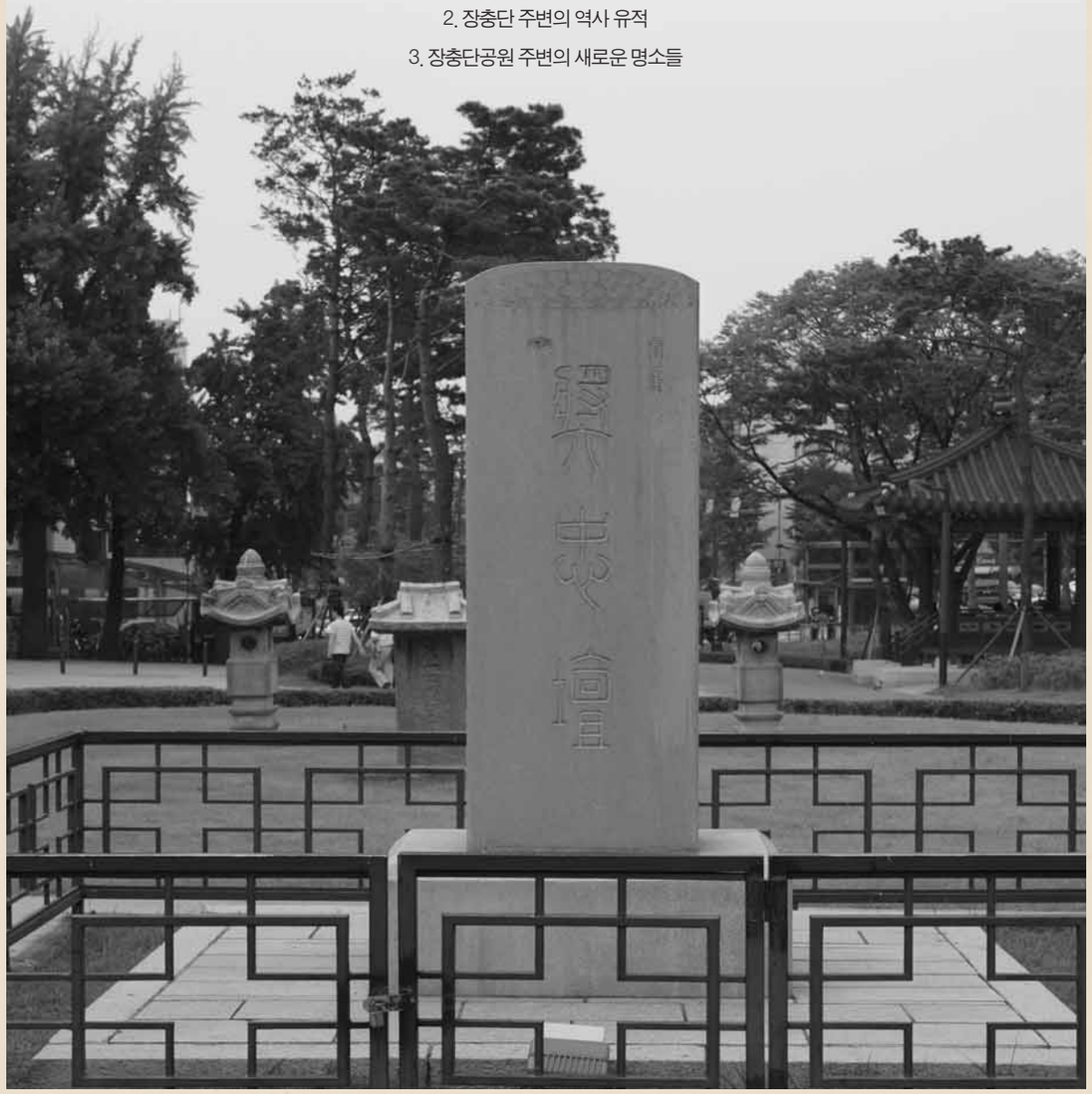
이들 각자에는 군현의 이름 다음에 '시면' 또는 '시'라 적혀 있는 규칙성이 발견되는데, 이를 해석하면 각자에 적힌 군현이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해진시면이란 당시 전라도 해진현이 시작되는 지점을 말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각자도 같은 방법으로 풀이하면 된다.

각자에 나타난 군현의 이름을 오늘날의 지명과 비교하면 해진은 전남 해남군 · 진도군, 의령은 경남 의령군, 경산은 경북 경산시, 연일을 경북 포항시 연일읍, 흥해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순흥은 경북 영주시 순흥면, 하양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기장은 부산 기장군, 울산은 울산광역시, 예천은 경북 예천군, 성주는 경북 성주군, 선산은 경북 선산군, 경주는 경북 경주시를 가리킨다.[7)]

제11장

장충단,
역사의 아픔을 아로새기다

1. 한국 근대사와 장충단
2. 장충단 주변의 역사 유적
3. 장충단공원 주변의 새로운 명소들



장충단제는 1895년 10월 8일 명성왕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때 일제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충신열사들을 기리는 제사로 1900년 9월 장충단을 세우고 추모제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1901년에는 개항 이후 순국한 영령들을 추가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맥이 끊어진 장충단 제향을 1988년부터 중구청에서 매년 10월 8일 추모제향을 올리다가 현재는 중구문화원 주최로 장충단 추모제 제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올리고 있다.

1. 한국 근대사와 장충단

장충단공원이 품은 슬픈 역사

장충단공원은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96번지에 위치한 공원이다. 남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면적 약 54만 6000㎡에 광장과 테니스장, 놀이터, 분수대 등을 갖추고 있다.

사명대사(四溟大師)의 동상을 비롯하여 석호정(石虎亭), 장충단(奬忠壇) 비석 등이 있는 이 공원은 본래 을미사변(乙未事變) 때 일제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稙)과 연대장 홍계훈(洪啓薰) 등 호위 장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 있던 곳이다.

일제의 조선 침탈이 본격화하던 1900년경 일본인들은 진고개 일대에 만족하지 않고 남산의 동쪽으로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고종은 11월 10일 이를 견제하고자 지금의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에 있던 어영청(御營廳)의 분영인 남소영(南小營) 터에 사당을 세웠다.

고종은 제단 1동과 부속 건물 2채를 짓게 하고 해마다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입구에는 소나무로 홍여문(虹如門)을 세우고 큰 나무에 대한국기를 걸어 사방에 세웠으며, 제단 위쪽부터 홍계훈, 이경직을 비롯해 명성황후를 보위하다 생을 마감한 무인들의 위패를 배치하였다.[1)]

고종황제가 세운 장충단

고종은 장충단에 대한제국 제일의 추모 공간의 위상을 부여하였고, 1908년(순종 2)까지 해마다 봄, 가을에 위령제를 지냈다. 위령제를 지낼 때는 군악을 연주하고 조총(弔銃)을 쏘면서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당시의 모습을 보여 주는 민요로 "남산 밑에 장충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일세"라는 가사의 노래가 전한다.

불법적인 한일외교권위탁조약(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제의 침략이 더욱 거세지자 장충단에서 받드는 제사가 일반 민중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일제의 횡포와 만행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장충단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이 더욱 높아졌던 것이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전후하여 널리 애창된 「한양가(漢陽歌)」의 한 구절 또한 이러한 일면을 잘 보여 준다.

> 남산 밑에 지어진 장충단 저 집 나라 위해 몸 바친 신령(神靈) 뫼시네.
> 태산 같은 의리에 목숨 보기를 터럭같이 하도다. 장한 그분네.

장충단공원 전경.

일제강점기의 장충단공원.

이를 잘 알고 있던 일제는 1908년 대일 감정 악화를 이유로 장충단 제사를 금지시켰다가,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병합 직후 폐사시키고 말았다. 이후 1920년대에는 장충단 일대에 벚꽃 수천 그루를 심고 연못과 놀이터, 산책로를 설치하여 공원화하였다. 일제의 장충단 무력화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32년 장충단 동편에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를 세웠던 것이다.[2)]

일제가 세운 박문사

일제강점기에는 장충단공원 맞은편, 현재 신라호텔이 자리하고 있는 언덕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호인 '춘무(春畝)'를 따서 '춘무산(春畝山)'이라 불렀다. 이 언덕의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에 이토를 기리는 절인 '박문사(博文寺)'가 세워졌다. 이토를 기리는 절을 세우자고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제2차 사이토 마코토 총독 시절 정무총감을 지낸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였다. 이들은 일본과 조선의 독지가들이 출연한 기금과 지역별 할당으로 모은 성금으로 1932년 4월 23일 기공식을 하여, 이토의 23주기 기일인 10월 26일 낙성식을 올렸다.

박문사 건립에는 친일파 이광수, 박영효, 윤덕영 같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1939년에는 안중근 의사의 아들인 안준생이 만선시찰단(滿鮮視察團)의 일원으로 박문사를 방문하여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사죄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박문사의 본전과 서원(西院)은 본래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던 경복궁 선원전과 그 부속 건물을 이전하여 세운 것이었다. 정문 또한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興化門)을 옮겨다 놓았다. 담은 조선총독부 청사를 신축하면서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 북쪽으로 옮겨진 광화문 옆 담장을 헐어다가 쌓았다. 남별궁 석고단을 덮고 있던 석고각(石鼓閣)을 해체해 박문사의 종 덮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박문사의 건설 자체가 궁궐 파괴와 병행하여 진행된 것이다.

후일 일제는 태평양전쟁 말기 폭격에 대비하여 통조림을 비롯한 막대한 군수 물자를 비축하기 위한 장소로 박문사의 지하 창고를 이용하였다. 해방 후 잠시 이곳에는 안중근 의사의 위패가 모셔지기도 하였다가, 한국전쟁 후 국군전몰장병합동위령

경성 박문사.

소가 설치되었다.[3)]

박문사의 가람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이 자리에 국빈을 위한 영빈관을 짓기 시작하여,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7년에 완공되었기 때문이다. 정문으로 쓰였던 홍화문도 1988년 경희궁을 복원하면서 옮겨 가, 지금은 홍화문을 본떠 만든 새 정문이 손님을 맞고 있다.

해방이후의 장충단

장충단에는 본래 제단과 사전(祀殿) · 부속 건물 등이 있었고, 그 앞에 '장충단'이라고 새긴 석비가 세워져 있었다. 이 건물들은 한국전쟁 때 모두 파괴되었고 지금은 장충단비만이 홀로 남아 있다. 앞면에 전서체로 쓴 '장충단'이란 세 글자는 순종의 친필이고, 뒷면에 새겨진 글은 충정공 민영환이 지은 것이다. 장충단비는 1969년에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에서 장충단공원 입구로 옮겨졌다.

현재 장충단공원은 일제 침략의 잔재들은 모두 철거되고, 을미사변 당시 순국한

장충단비와 수표교.

서울시 중구문화원에서는 매년 10월 8일 장충단 추모제를 올리고 있다.

장병들, 일제의 침탈에 맞섰던 이한응 선생과 이준 열사, 그리고 국제 사회에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였던 유림 세력 등 일본에 맞서 민족의 자존을 지키려 했던 영령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장소로 꾸며져 있다. 한편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 때 철거된 수표교가 1965년에 장충단공원에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원래 자리로 다시 옮겨놓으려고 했으나, 복원된 청계천의 폭과 수표교의 길이가 맞지 않아 옮겨지지는 못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옛 수표교를 본딴 새로운 다리가 놓여 있다.

1973년 10월 17일에는 장충단공원 남쪽 기슭에 국립극장 ·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세워졌으며, 1984년 9월 22일에 건설부에서 장충단공원을 남산공원의 일부로 흡수 병합하였다.

장충단 추모제와 사당 복원 운동

장충단제는 1895년 10월 8일 명성왕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때 일제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충신열사들을 기리는 제사로 1900년 9월 장충단을 세우고 추모제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1901년에는 개항 이후 순국한 영령들을 추가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장충단이 설치된 지 불과 5년 뒤인 1905년 11월 18일 일본 제국주의가 강요한 이른바 을사조약이 맺어진 후 망국의 슬픔이 한 맺힌 가운데 1908년 8월 일제에 의해 장충단은 폐사되었다.

이후 맥이 끊어진 장충단 제향을 1988년부터 중구청에서 매년 10월 8일 추모제향을 올리다가 현재는 중구문화원 주최로 장충단 추모제 제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올리고 있다. 성균관의 고증을 거쳐 재현되는 추모제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선조들의 우국충정과 희생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시위대장 홍계훈과 영관 염도희, 이경호를 주신으로 제향하고, 대관 김홍제, 이학승, 이종구 등 장병들을 배향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 후 백성기 육군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을미사변 때 순국한 궁내부 대신 이경직, 시종 임최수, 참령 이도철을 비롯한 문무열사들을 추가로 장충단제 제향 신위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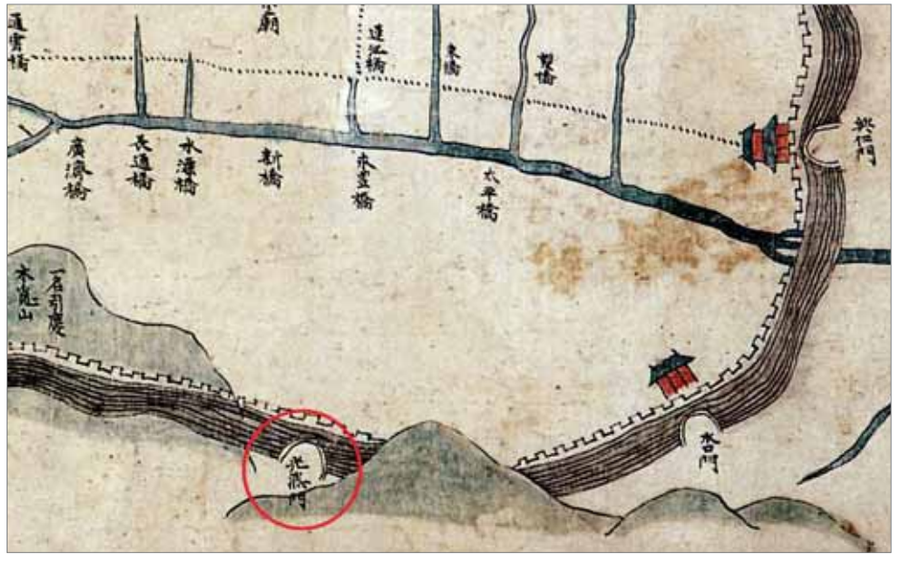
장충단은 오늘날의 국립현충원과 비슷한 위상을 지닌 곳으로서 장충(奬忠)이란 충성을 장려한다는 의미이며 현충(顯忠)은 충성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의미를 되살려 일제에 의해 폐사된 사당을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4)]

2. 장충단 주변의 역사 유적

남소문터

남소문(南小門)은 도성 건설 때부터 있던 문이 아닌 1457년(세조 3)에 새로 만들어진 문이었다. 이 문을 설치하게 된 것은 한강 나루를 통하여 남쪽으로 가려면 광희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멀고 불편하므로 한강 나루터를 도성에서 곧바로 통과하여 나갈 수 있는 문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세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한다.

오늘날 장충단길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가 남소문이 있던 자리다. 이 언덕을 버



17세기 「도성도」에 그려진 남소문. 남소문을 광희문으로 표기하고 있어 당대에도 두 문을 혼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국대학교 법당으로 쓰이고 있는 숭정전.

티고개라 부르는데, 오늘날 약수역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다산로의 언덕도 버티고개라 한다. 따라서 버티고개는 어느 특정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당동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언덕을 통틀어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버티고개의 원래 이름은 부어치(扶於峙)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어'는 '버'가 되고, 언덕 '치(峙)'는 언덕의 우리말인 '티'로 변해 '버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조 때 새로 설치된 남소문은 도적떼가 출몰하고 풍수지리상의 논란 등이 일어 곧 폐쇄되고 말았다. 따라서 성문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한 기간은 12년 남짓에 불과하다. 도성의 성문으로서 오랫동안 유명무실했던 남소문은 1913년 일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철거되었다고 전한다.[5)]

숭정전

동국대학교 정각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숭정전(崇政殿)은 본래 경희궁의 정전이었다. 경희궁 자리는 원래 인조(仁祖)의 생부인 정원군(定遠君)의 사저였는데, 여기에 왕기(王氣)가 서렸다고 하여 광해군(光海君)이 빼앗아 궁궐을 지었다고 한다. 1910년

동악선생시단.

일제가 경희궁을 철폐하고 일본인 자제들을 위한 학교인 경성중학교를 설립할 때도 숭정전은 남아 있었는데, 그 후 1926년에 필동 남산 기슭에 있던 조계사의 본전으로 사용되기 위해 옮겨졌다. 광복 후 그 자리에 동국대학교가 세워지면서 1976년 9월 현재 위치로 옮겨져 학교의 법당인 정각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숭정전은 경희궁을 창건할 때 지어진 건물로서 창경궁 명정전과 함께 조선 중기의 목조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현재 경희궁 터 일곽에 원래의 숭정전 건물을 그대로 모방한 새 숭정전이 건립되고 그 일곽 건물도 복원되었다.[6)]

동악시단(東岳詩壇) 터

동악시단은 조선 중기의 이안눌(李安訥)을 주축으로 당대의 명사들과 시모임을 가지던 장소 혹은 시회(詩會)를 말한다.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동국학교 경내에 위치한다.

『한경지략』에는 "동악시단이 남산 기슭 먹절골에 있다. 옛날 동악 이안눌이 집 동산 기슭에 단을 쌓고 여러 선비들과 더불어 시를 읊으며 매우 성황을 이루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동악시단이라며 화제로 삼는다. 단 옆에는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홍매화나무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까지도 동국대학교 정문 안 왼쪽 언덕배기 바위에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이라 새긴 암각 글자가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이안눌의 현손인 이주진이 영조 연간에 새긴 것이라 한다. 이 동악선생시단 바위는 1984년 동국대학교에서 고시학관을 지을 때 학생회관 옆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심한 풍화로 쪼개져버려 그 조각을 모아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동악시단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당대 문인들의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시사(韓國詩史) 연구에 의미가 있다.[7)]

3. 장충단공원 주변의 새로운 명소들

국립극장

중구 장충단로 59번지에 위치한 국립극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서, 1950년 민족 무대 예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극장이다. 같은 해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국립극장도 남쪽으로 이전하여 1953년 2월 대구에서 재개관하였다가, 1957년 6월에는 서울 명동의 시공관으로 옮기면서 전속 극단을 정비했으며, 1962년 국립극장이 공보부로 이관되면서 재출발했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국립극장 청소년하늘극장의 공연 모습.

현재의 국립극장은 1973년 10월 개관했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와 함께해온 국립극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공연의 대들보로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특히 국립극장의 전속 단체인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각기 특성을 살려 한국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수준 높은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국립창극단의 「청」, 국립무용단의 「춤, 춘향」,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네 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립극장에는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그리고 KB국민은행 청소년하늘극장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해오름극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극장으로,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종합 무대 공간이다.

남산의 생태계와 어우러진 조경과 차음 · 차양 및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는 국립극장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맑은 공기와 숲이 어우러져 계절마다

색다른 정취와 운치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의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훌륭한 쉼터가 되어준다.[8)]

한국현대문학관

국내 최초의 한국 근 · 현대문학 전문 박물관으로 1997년에 설립되었다. 중구 장충동 2가 파라다이스 빌딩 별관에 위치한 이 문학관은 명칭 그대로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원래는 경기도 의왕시 계원조형예술대학 내에 '동서문학관' 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가 2007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개칭되었다. 수필가 고 전숙희 선생이 설립한 한국현대문학관에는 걸작 문학 작품들의 초판본과 육필 원고 등이 소장 · 전시되어 있다.

한국현대문학관의 주요 소장품으로는 시인 윤동주의 시 「돌아와 보는 밤」, 이광수의 수필 「설산과 나」 등 근대 작가로부터 박완서, 이청준에 이르는 현대 작가들의 친필 원고와,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시집인 김억의 『오뇌의 무도』(1923), 최남선의 『백팔번뇌』(1926), 김영랑의 『영랑시집』(1935),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등 대표 시인들의 시집 초판본 600여 권이 있다.

또한 한국 최초의 현대 장편 소설인 이광수의 『무정』(1917), 염상섭의 『만세전』(1924), 김동인의 『감자』(1935)를 비롯하여 김동리, 황순원을 거쳐 이범선, 선우휘, 오영수 등 전후 작가들의 주요 소설집 초판본 500여 권, 이광수의 『금강산유기』(1924), 최남선의 『심춘순례』(1926), 홍명희의 『학창산화』(1929), 김억의 『사상산필』(1931) 등 수필집 400여 권, 이광수와 방정환, 임학 수 등이 번역한 번역 소설 200여 권도 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운몽』, 『운영전』 등 고전소설을 나무판이나 금속판에 찍어서 인쇄하던 방각본에서부터 개화기 이후 활판 인쇄가 가능해지고 대중의 구미에 맞게 소설이 개작되면서 선보인 딱지본 200여 점, 청록파 시인을 문단에 등장시킨 『문장』(1940) 7월호와 박목월과 조지훈의 편집으로 간행된 『시문학』(1946) 등의 창간호는 물론 현재에도 발행 중인 잡지들까지 망라하여 30여 종 잡지의 창간호와 500여 종의 문학잡지 등도 소장하고 있다.

한국현대문학관 전시관.

이외에도 모윤숙, 조병화 등 주요 문학인들이 손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도자기들과, 문학인 사진 자료 500여 점도 소장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은 종합전시관과 중앙전시관, 주요 시인 전시관에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한편 한국현대문학관은 주요 소장 자료들을 주제별로 묶어 다양한 기획전시도 꾸준히 열고 있다.[9)]

이해랑예술극장

이해랑예술극장은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내에 위치한 공연예술 전문 극장이다. 배우이자 연출가로서 한국 연극의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친 고 이해랑(1916~1989) 선생의 이름을 걸고 이해랑연극재단으로부터 발전 기금을 기부받아 한국 연극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8년 개관하였다.

동국대학교 연극학과 창설자이기도 한 이해랑 선생은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공연 연습 도중 작고할 정도로 연극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랑 선생의 정신을 잇는 이해랑예술극장은 학생들에게 전문 공연장에서 현장의 생동감을 경험하게 하고 내실 있는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산학 연계의

이해랑예술극장 전경.

시발점이라는 의미도 띠고 있다.

이해랑예술극장은 총 302석 규모의 중극장으로서 최첨단 조명 및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극장 내에 이해랑 기념홀에서는 이해랑 선생의 집필 원고와 사진 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10)]

장충동 족발골목

지하철 동대입구역 2, 3번 출구 일대에는 10여 곳의 족발집이 영업 중인 일명 '장충동 족발골목'이 있다. 이 골목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장충동은 6·25전쟁 때 북쪽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터를 잡고 살던 곳 중 하나였다. 그들은 생활을 위해 지금의 족발골목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식당을 열었는데, 두 족발집이 1년 터울로 문을 열면서 장충동 족발골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중 먼저 문을 연 식당에서 처음부터 족발을 팔았던 것은 아니고 빈대떡과 만두 등을 주 메뉴로 식사와 술을 팔았는데, 손님들이 저렴하면서도 푸짐한 안주를 찾자 주인아주머니가 족발을 안주로 올리기 시작하였다. 아주머니는 평안북도 출신이

저렴하면서도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 장충동 족발골목.

었는데, 옛날에 고향에서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 겨울에 돼지를 통째로 잡아서 걸어 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썰어서 먹던 기억을 떠올려 그 음식을 식당에 내놓게 되었던 것이다. 부드럽고 담백한 맛의 족발은 금세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특히 근처의 장충체육관에서 프로레슬링이나 농구 경기가 열릴 때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족발 맛은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이렇게 족발이 인기를 얻자,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주변에 한 집 두 집 족발집이 생겨나 지금과 같은 족발골목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 골목의 족발집들은 30~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족발을 삶는 데 들어가는 재료와 삶는 방법에 따라 족발 맛은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족발골목에는 24시간 문을 여는 집도 있고 자정이나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집도 있다. 중국에 '오향장족'이 있고 독일에 '슈바이네학세'가 있다면 우리에겐 '족발'이 있다고 할 정도로, 족발은 이제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 관광객들까지 즐겨 찾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민 음식 중 하나이자 별미가 되었다.

족발은 돼지의 앞다리 또는 뒷다리로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힘을 많이 주는 앞다리 쪽에는 근육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고기의 씹히는 맛을 즐긴다면 앞다리를, 부드러운 맛을 좋아한다면 뒷다리를 먹는 것이 좋다. 또 족발을 새우젓에 찍어 먹는 것은 맛도 맛이지만 새우젓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에 돼지고기의 주성분

종이나라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인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새우젓이 천연 소화제를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충동 족발골목에서는 주 메뉴인 족발과 함께 녹두전, 파전 등의 부침개류와 동치미 등도 차려져 입맛을 돋운다.[11)]

종이나라 박물관

중구 장충동1가 종이나라빌딩 내에 위치한 종이나라 박물관은 한국의 우수한 종이문화 유물과 현대의 다채롭고 창의적인 종이문화 예술작품을 망라하여 5,000여 점을 소장 ·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제지기술이 발달하여 일상생활에서 종이를 다양하게 이용해왔다.

종이는 산 자와 죽은 자, 인간과 신 사이의 매개체이자, 문필의 용도로 중요하게 쓰였으며, 건축 및 공예에서도 요긴하게 쓰여왔다. 따라서 종이예술에는 한국인의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 종이나라 박물관은 이처럼 우리 전통문화의 중심에 존재해온 종이문화의 가치에 주목하는 수준 높은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종이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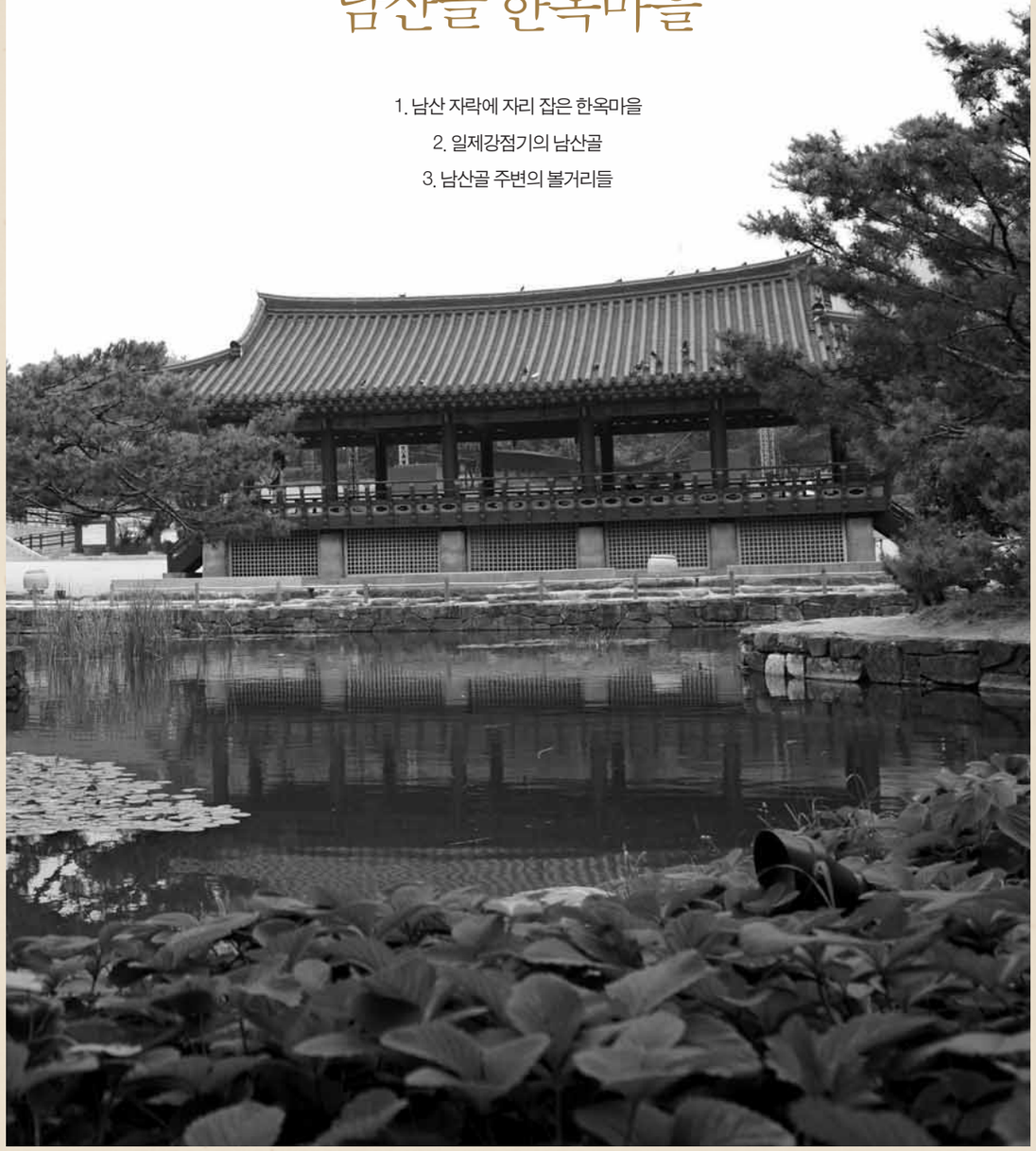
상설전시관인 제1전시관에서는 전통 지(紙)공예 유물에서 현대 미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종이작품을 전시하여 종이문화의 발전사를 보여주며, 제2전시관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종이 접기, 클레이아트 등 종이조형 작품들을 전시하고 종이공작활동을 통해 영재성, 창의성을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1층에 자리한 특별전시실에서는 종이접기 영재 지도사, 종이문화 영역 지도사들의 작품 발표 및 기획전 등이 열려 획일화된 종이조형 작품에서 벗어난 다양한 종이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종이나라 박물관에서는 매년 '종이문화예술작품 공모대전'을 개최하는데, 종이문화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종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모전이다. 또한 연령 및 대상에 따라 종이 접기 영재교실, 한지 공예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12)]

제12장

남산이 품은 명당, 남산골 한옥마을

1. 남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
2. 일제강점기의 남산골
3. 남산골 주변의 볼거리들



오늘날 남산 한옥마을이 들어서 있는 필동 지역은 조선시대에도 맑은 계곡과 운치 있는 정자로 유명하였다. 청학이 노닐었다고 하여 청학동(靑鶴洞)으로도 불린 이 지역은 성내에서 경치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지역이었다. 신선이 사는 곳으로 불릴 만큼 경관이 아름다워 한양에서 가장 경치 좋은 삼청동, 인왕동, 쌍계동, 백운동과 더불어 한양 5동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1. 남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

청학이 노니는 마을 청학동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남산은 자연 경치가 아름답고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이다. 우리 선조들도 일찍부터 남산 골짜기마다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곤 하였다. 조선시대부터 남산은 각종 놀이와 여가생활을 위하여 수려한 경관을 찾는 선남선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목멱상화(木覓賞花)니 남산 팔영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남산에서 즐길 수 있는 경관과 볼거리였다.

오늘날 남산 한옥마을이 들어서 있는 필동 지역은 그중에서도 맑은 계곡과 운치 있는 정자로 유명하였다. 청학이 노닐었다고 하여 청학동(靑鶴洞)으로도 불린 이 지역은 성내에서 경치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지역이었다. 신선이 사는 곳으로 불릴 만큼 경관이 아름다워 한양에서 가장 경치 좋은 삼청동, 인왕동, 쌍계동, 백운동과 더불어 한양 5동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조선 성종 때 문신이었던 성현(成俔)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 "서울 성내에 경치 좋은 곳이 많지 않으나 그런 중에 놀만한 곳으로는 삼청동이 제일이고, 다음이 인왕동이며, 쌍계동 · 백운동 · 청학동이 그다음이다. 청학동은 남학(南學)의 남쪽 동네로 골이 깊고 물이 맑아 찾을 만하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규경(李圭景)은 남산 청학동에 대하여 "도성의 남촌 필동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가운데로 한 줄기 산골물이 흐르니 곧 남산의 산록이다.

한옥마을의 설경과 민속놀이 공연.

「도성대지도」(18세기 후반)에 표시된 남산의 북쪽 기슭. 남학과 남별영, 필동과 묵사동 등이 표시되어 있다.

곁에는 금어영 화약고가 있다"고 적었다.[1)]

이렇듯 남산의 북쪽 기슭 남학동 아래에 자리 잡은 청학동은 골짜기가 깊고 맑은 냇물이 흐르며 시원한 샘물이 솟아 한양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이행(李荇)은 청학동에 살면서 남곤(南袞)을 비롯한 시우(詩友)들과 왕래하며 시회(詩會)를 열기도 하였고, 영조 때 문신인 조현명(趙顯命)은 묵사동(필동2가)에 귀록정(歸鹿亭)이란 정자를 짓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기도 하였다.

한편 세조 2년(1456)의 실록 기사에는 "세조가 청학동에 거동했다"는 내용이 전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국여지비고』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권람의 집이 목멱산 기슭 비서감 동편에 있었는데 그곳은 일찍이 무학대사가 잡아 준 바위 위의 집터였다. 세조 임금이 행차하여 그 서쪽에 있는 벼랑바위 샘물을 마신 후로 어수우물(御井)이라 불려 왔다. 그 집터 위에 소조당(素凋堂) 유적이 있어 후에 후조당(後凋堂)이라 했다가 지금은 녹천정(鹿川亭)이 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녹천정은 지금의 남산동3가 34-2번지 일대에 있었는데 후일 일제 통감관저가 들어선 곳이다.[2)]

녹천정 터에서 동쪽 방향으로 필동 골짜기 서쪽 둔덕에는 바위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곳에 바로 이행의 집이 있었다.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인 이행은 문장이 뛰어나고 글씨와 그림에도 능하였는데, 이곳 청학동에 공부방을 꾸미고 스스로를 청학도인(青鶴道人)이라 칭했던 사람이다. 그는 우의정과 대제학 등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한가한 촌로처럼 길가에 소나무 · 회나무 · 복숭아 · 버들 등을 심고, 퇴궐 후에는 망건에 무명옷 차림으로 동산을 거닐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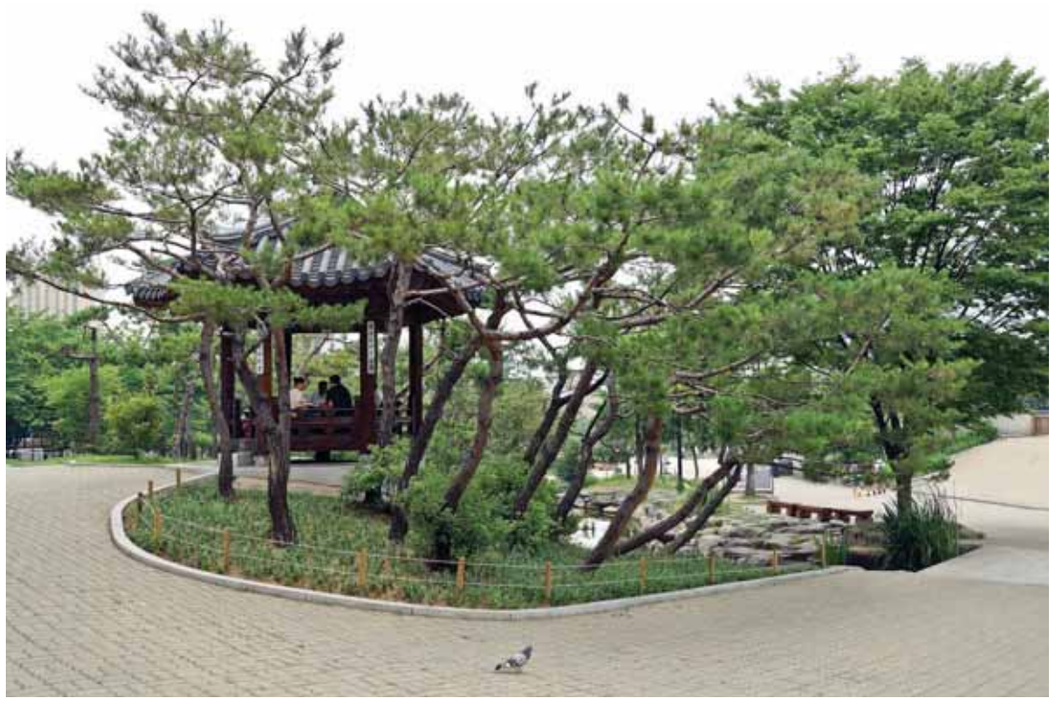
김윤겸이 그린 18세기 중엽의 천우각

이처럼 남산의 북쪽 기슭은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이루어 많은 사대부들이 저택과 정자를 지었으며 수많은 관료와 학자, 문인들이 남산에 살거나 남산을 찾아 풍취를 즐기고 남산을 노래한 시문을 남겼다.

한편 필동에서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자락의 계곡에 걸쳐 천우각(泉雨閣)이 있었다. 천우각은 금위영(禁衛營)의 분영인 남별영(南別營) 소속 관청의 건물로 흐르는 개울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 여름철 피서지로 이름이 높았는데, 그 근방 바위벽에 '계(溪)'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어 이곳이 오래전부터 이름난 곳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8세기 중엽 활약했던 화가 김윤겸(金允謙)은 바로 이 천우각과 소나무 숲을 이룬 남산을 장대하게 묘사하여 당시의 풍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3)]

전통정원과 한옥마을

현재 이곳은 남산골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옛 정취를 되살려 골짜기를 만들고 물길을 내었으며, 정자를 짓고 나무를 심어 전통정원을 조성하였다. 전통정원 내에는 그 동안 훼손되었던 지형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남산의 자연 식생인 전통 수종을 심었으며, 계곡을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였고, 또한 정자 · 연못 등을



한옥마을의 천우각과 전통 정원.

서울 정도 600년 기념 타임캡슐 광장과 망북루.

복원하여 전통 양식의 정원으로 꾸몄다. 정원의 서쪽에는 물길을 내어 예스럽게 계곡을 흐르도록 하였고, 주변에는 고풍스런 정자를 지어 선조들이 유유자적하였던 남산 기슭의 옛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통정원 남쪽에는 서울 정도(定都) 600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을 1994년 11월 29일 지하 15미터 지점에 매설하였다. 보신각종 모형의 타임캡슐 안에는 서울의 현재 모습, 시민생활과 사회문화를 대표하는 각종 문물 600점을 수장함으로써 현시대의 사회상이 400년 이후인 2394년 11월 29일에 후손들에게 공개될 것이다.[4)]

정원의 북동쪽 7,934㎡ 대지에는 시내에 산재해 있던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5채를 이전, 복원하고 이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 성격에 걸맞은 가구 등을 배치하여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하였다. 조선조 마지막 왕비인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尹)씨 친가는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가옥을 그대로 본떠 복원했고, 그의 부친인 해풍부원군(海豊府院君) 윤택영댁 재실(서울민속자료 24)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던 것을 이전했다.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서울민속자료 18)은 종로구 관훈동에 있던 것을, 오위장 김춘영 가옥(서울민속자료 8)은 종로구 삼청동에 있던 걸 이전 복원했다.

경복궁 중건시 도편수였던 이승업 가옥(서울민속자료 20)은 이승업이 1860년에 지은 집으로 중구 삼각동에 있던 것을 이전 복원했다. 전통공예관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들의 작품과 관광상품을 항상 전시 · 판매하고 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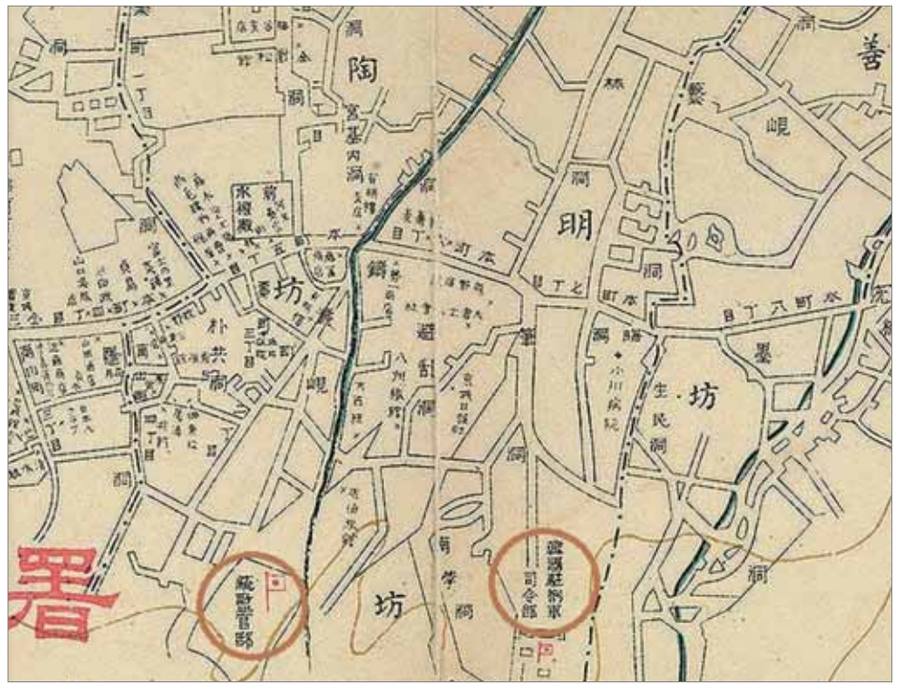
2. 일제강점기의 남산골

조선헌병대사령부 터

일제강점기에 청학동은 일제의 식민 지배 기구들이 밀집해 있는 핵심 구역이었다. 1904부터 1908년까지 이곳에는 한국주차군사령부가 있었다. 러일전쟁 당시 바로 이곳에서 한국의 무력 점령, 치안 확보, 방비 등이 획책되었다. 이후 한국주차군사령부는 조선헌병대사령부로 바뀌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1910년부터 1919년까지 헌병경찰제도에 의한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헌병경찰제도는 헌병이 군사경찰뿐 아니라 일반 민사 업무나 행정 업무까지 담당한 제도였다. 따라서 조선헌병대사령부 터는 경무총감부 터이기도 하다.

일본군 헌병의 한국 주차는 1896년(고종 33) 1월부터 시작되었다. 1895년 발생한 을미의병의 공격으로부터 군용 전선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임시 헌병에서 출발하였다가, 러일전쟁을 앞둔 1903년 12월 한국주차헌병대가 본격 편성되면서 체제를 갖추었다. 이후 1906년 10월 증원 및 편제 개편에 따라 제14헌병대로 개칭되면서 본래 임무인 군사경찰 업무보다 치안경찰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제14헌병대는 1907년 10월에 한국주차헌병대로 개칭되었고, 1910년 강점 후에는 조선헌병대로 개편되었다.

한국주차군사령부와 일본군 보초병.



「최신경성지도」(1907년)에 표시된 통감관저와 한국주차군사령부.

헌병경찰제가 폐지된 것은 1919년 삼일운동 이후 보통경찰제가 실시되면서였다. 헌병은 본래의 군사경찰 임무로 되돌아갔으나 그 대신에 전국 각처에는 경찰서와 파출소가 빽빽하게 배치되어 거미줄 같은 지배망이 구축되었다. 소위 문화정치는 이러한 강력한 치안 유지망을 바탕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조선헌병대사령부의 옛터에는 해방 후 수도경비사령부가 자리 잡았다.[6)]

한국통감부 터

지하철 4호선 명동역 1번 출구에서 5분가량 걸어가면 서울애니메이션센터와 리라초등학교가 나온다. 지금은 별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 두 곳은 모두 '중구 예장동 8번지'라는 하나의 지번에 묶여 있는 단일 구역이었다. 일제강점기 이곳은 식민 통치의 핵심인 한국통감부가 있던 '왜성대정(倭城臺町) 8번지'였다.

남산 자락에 있던 조선총독부.

이곳에 한국통감부가 있었다는 것은 도로변에 놓여 있는 '김익상(金益相) 의사 의거 터'와 '통감부 터'라는 표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05년(고종 42) 11월 17일 '한일외교권위탁조약(을사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일본 공사관과 영사관은 철폐되었다. 대신 한국통감부와 이사청(理事廳)이 이듬해 2월 1일 설치되었는데, 통감부의 새 건물을 마련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였다. 더구나 초대 통감으로 임명된 이토 히로부미의 부임도 지연되었다.

이에 우선 급한 대로 한국주차일본군사령관이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임시 통감대리로 임명하고 그의 주관 아래 한국 정부의 외부(外部) 청사를 빌려 통감부를 개청하였다. 광화문 앞에 있던 외부 청사가 통감부로 전환된 것은 외교권의 박탈로 이 공간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1906년 3월 2일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하였고, 3월 28일 원유회(園遊會)를 겸하여 통감부 개부식(開府式)을 다시 개최하였다. 이후 통감부는 현 중구 예장동 8번지로 옮겨졌다. 통감부는 이렇다 할 고층 건물이 없던 시절 경성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얻었다.[7)]

한편 1910년(순종 4) 한일병합조약으로 '한국통감부'가 '조선총독부'로 바뀌면서 집무 공간이 크게 부족하게 되어 연말까지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1차 증축 공사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 문제는 여전했으므로, 1911년 기존 건물과 별도로 2차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부속 건물들이 들어선 자리는 옛 통감부 청사 남쪽이자 경성신사 북쪽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서, 현재 리라초등학교가 자리한 곳과 거의 일치한다. 이후에도 총독부의 건물 확충은 계속 이어졌으나, 남산 왜성대 쪽에는 더 이상의 여유 공간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새로운 증축 공사는 크게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대신 정동과 서소문동 일대에 총독부 분실을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무 공간의 확충을 꾀하였다.

총독부의 남산 시대는 1926년 1월로 끝이 난다. 1916년 6월 25일 경복궁 흥례문 자리에서 지진제(地鎭祭)를 올리고 지지부진하게 신축 공사를 벌여오던 신청사가 1925년 1월 대공사를 마치고 완성되었던 것이다. 총독부가 옮겨진 후 옛 청사는 은사과학관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일대는 관사가(官舍街)를 이루게 되었다.

남산의 조선총독부 건물은 한국전쟁 때 포격으로 불탔다. 1957년 12월 10일 이 자리에 '서울중앙방송국(현 KBS)' 신청사가 들어섰다. 1976년 11월 2일 한국방송국이 여의도로 이전하고 난 뒤 이 건물은 '국토통일원'과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을 거쳐 지금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사용되고 있다.[8)]

조선사편찬위원회 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바로 옆에는 '만화의 집'과 서울사회복지교육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서울시 중구 예장동 8-20번지로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있던 곳이다. 삼일운동 이후 일제는 물리적인 탄압보다는 사상 · 이념적인 선전으로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 담당할 기구로 1922년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25년에는 조선사편수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설치는 1921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의 발의로 계획

되었다. 이때 계획된 『조선사』는 1921~1926년 5년간에 걸쳐 완성할 예정이었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제반 조사도 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계획안은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나이토 코우지로(內藤虎次郎) 등 일본 사학자들과의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수정 · 변경되었다.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회'라는 기구 속에 각 위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체제였다. 즉 '위원회'를 최고 기구로 하고 위원 중에서 선임된 간사와 편찬주임 등이 편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경제국대학 교수인 구로이타 가쓰미가 편찬 계획을 주도하였고,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실무 책임자로서 편찬주임과 간사를 겸하는 등 소수의 일본인들이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있었다.

『조선사』를 간행한 이후의 조선사편수회는 연구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이는 중일전쟁 · 태평양전쟁 등으로 인하여 자료 수집과 같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보다 전쟁 수행에 유익한 연구를 통한 소위 '연구보국(硏究報國)'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사편수회는 1946년 5월 31일 해산되었다.[9)]

통감관저터

소방방재본부에서 서울유스호스텔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중구 예장동 2-1번지)에는 '다목적 광장'이라 불리는 공터가 있다. 이곳에는 본래 1910년 8월 29일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통감과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이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장소인 '통감관저'가 있었다.

본래 이 자리에는 갑신정변의 결과 1885년 체결된 한성조약에 따라 1885년부터 일본 공사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을사조약에 따라 1906년 2월 1일 한국통감부가 설치되면서 공사관은 폐지되고 '통감관저'가 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총독관저'가 되었다가 1939년 경무대 총독관저가 신축된 이후 시정기념관으로 쓰였다. 1926년 출간된 『경성의 광화(京城の光華)』라는 책에는 총독관저에 수령 500년이 된 은행나무가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목적 광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이 은행나무가 아직까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통감관저.

조선 총독의 지위와 권한은 식민지 조선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히 절대적이었다. 총독은 군사를 통수하고 식민지 조선에 관한 제반 정무를 통괄하는 제반 행정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입법권과 사법권 또한 장악했다. 또 이왕직 · 이왕세비 · 조선 귀족 감독권을 행사했다.

조선 총독은 일제 군부, 그중에서도 당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중심으로 한 육군이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전부 9대 8명의 조선 총독 중 7명이 육군 출신이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10)]

3. 남산골 주변의 볼거리들

서울남산국악당

남산골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서울남산국악당은 그야말로 국악 감상에 최적화된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11월에 개관한 서울남산국악당은 그동안 일반 공연장이나 서양식 공연장에서 우리 전통 국악을 감상해야 했던 아쉬움을 씻어낼 수 있도록 육성과 순수한 악기 소리로만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국내 최고 수준의 전통 국악 공연장이다. 이곳에서는 품격 있는 전통 한옥에서 소리의 중심을 전통 국악에 맞춘 최적의 음향 시설로 우리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서울남산국악당은 지하 2층과 지상 1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연장은 지하 1층에 자리한다. 하지만 지하라고 해서 답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멋진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반지하에 복도가 통유리라서 채광과 환기가 자유롭고, 무대는 서양식 액자형 구조와 우리 마당의 장점을 살린 돌출형으로 설계되었다. 내부 마감재로 소리를 흡수하지 않는 특수 원목을 사용해 총 330석의 좌석 어디에 앉아도 스피커 없이 가야금의 미세한 울림까지 자연 음향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한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살린 건축 양식 역시 눈길을 끌며, 야외정원이 공연장 로비와 연결되어 서울타워의 아름다운 정경이 한눈에 들어올 뿐 아니라 남산 소나무 숲의 향기가 가득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곳곳에 전시된 도자기와 붓글씨를 이용한 인테리어도 전통의 멋을 한껏 살려준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바탕으로 요일마다 각기 다른 레퍼토리를 운영 중이며, 봄과 가을 그리고 송년 축제 기간에는 창작 작품 공모전을 통해

서울남산국악당과 한옥마을에서 펼쳐진 전통 무용 공연.

한국의 집 전경.

새로운 작품도 발굴하고 있다. 또한 공연이 없는 낮 시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좌와 여러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11)]

한국의 집

'한국의 집'은 중구 필동에 위치한 종합 전통문화 체험공간이다. 본래 한국의 집이 위치한 곳은 조선시대 집현전 학자인 박팽년의 사저가 있던 곳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가 경복궁의 자경전을 본떠서 건축하여 1981년 개장했다. 이곳은 우리 전통문화의 멋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 가옥과 궁중음식, 전통 공연 및 혼례, 전통 문화상품 등 한국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모아놓았다.

주요 시설로는 우선 본관 격인 해린관(海隣館)이 자리하고 있는데, '세계 사람이 친교하는 집'이란 뜻이다. 해린관 안으로는 한식당인 소화당(韶華堂)과 공연장인 민속극장이 있다. 소화당은 누각 형태의 환벽루(環碧樓)가 이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조선시대 궁중음식을 기본으로 한 전통 음식이 나오는 이곳에서는 문헌에 실린 식사 의례와 기법, 조리기구, 상차림 구성법, 음식의 이름을 토대로 전통의 깊은 맛을 재현

전통혼례 모습(한국의 집 해린관).

한다. 해린관을 지나면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을 지닌 안채 격의 가락당(嘉樂堂)이 나온다.

행랑채 북쪽에는 156석 규모의 민속극장이 자리하는데, 오고무 · 아리랑협주곡 · 진주교방굿거리춤 · 설장고 · 비천 · 사랑가춤 · 부채춤 · 한량무와 풍물놀이 등 8가지의 각각 색다르고 다양한 공연을 한 시간 동안 관람할 수 있다.

후원에는 별채 격인 문향루(聞香樓)와 녹음정(綠吟亭), 청우정(聽雨亭)이 한적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 외에 현대식 건물인 취선관은 각종 연회 및 전시, 세미나 등 다목적 행사를 치를 수 있고 층별로 문화상품관, 전통문화 컨벤션, 궁중 수라간이 구성되어 있는 전통문화 복합체험관이다. 그리고 문화상품관에서는 전통 수공예품을 판매하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 보유자들의 작품과 관광 기념상품 등이 주를 이룬다. 밖에서는 구하기 힘든 희소가치가 있는 상품들로 공예품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눈과 입으로 즐기는 것 이외에 직접 전통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김치 만들기, 꽃산병 만들기, 한지 공예, 매듭, 탈 만들기, 사물놀이와 무용, 택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 운이 좋으면 전통혼례 의식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집에서는 재현이 아닌 실제 혼례가 치러지므로 좀처럼 접하기 힘든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극동빌딩 앞 화단에 설치된 주자소 터 표석.

이처럼 한국의 집은 외국인 친구나 귀빈들에게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줄 수 있는 공간일 뿐 아니라, 즐거운 하루 나들이를 통해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우리 조상들의 멋과 흥을 느껴볼 수 있는 훌륭한 오감 체험의 장이다.[12)]

주자소 터

중구 주자동 4~7번지 일대에 있었던 주자소(鑄字所)는 조선시대에 활자를 주조하여 책을 인쇄하던 관아였다. 이에 따라 주자동(鑄字洞)이란 동명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조선시대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있던 주자소는 오늘날 충무로역 5번 출구로 나와 두 블록을 지나면 만나는 극동빌딩 앞에 있었다. 현재는 화단 한쪽에 표지석을 세워 놓았는데, '주자소 터, 이곳 주자동은 조선 태종3년(1403)부터 정조 24년(1800)까지 금속활자를 부어 만들던 곳' 이라고 적혀 있다.

금속활자를 만드는 주자(鑄字) 기술은 조선이 남긴 최고의 기술 가운데 하나였다. 힘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꿈꾼 조선은 활자 주조와 인쇄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런 국가적 사업에서 가장 핵심인 활자 주조 임무를 담당하던 기관이 바로 주자소였다.

다양한 활자가 있어야 인쇄하기 쉬웠기에 조선은 여러 종류의 활자를 만들었는데, 태조 때의 계미자(癸未字), 태종 때의 경자자(庚子字), 세종 때의 갑인자(甲寅字)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만든 활자가 큰 것 19만 개, 작은 것 14만여 개에 이르렀고, 이는 훗날 다양한 책자를 인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지금도 충무로에 인쇄 골목이 형성되어 많은 인쇄, 출판 관련 산업이 성업 중인 것도 이런 역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13)]

주(註)

들어가는 말

1) 최기수, 1994, 『서울의 경과 곡』,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65쪽.
2)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참조.
3) 최기수, 1994, 『서울의 경과 곡』,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73~75쪽.

서론 : 역사 속의 서울, 그리고 중구

1) 이우태, 1997, 「서울의 자연과 역사」, 『서울의 문화유산탐방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7~14쪽 참조.
2)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4~25쪽.
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일제 침략 아래서의 서울(1910~1945)』 참조.
4)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6~28쪽.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출발(1945~1961)』 참조.

제1장 국보 제1호 숭례문과 남대문시장

1) 이상해, 1992, 「한양도성 경관의 원형」, 『대한건축학회지』, 36, 36~38쪽.
2) 이상해, 1992, 「한양도성 경관의 원형」, 『대한건축학회지』, 36, 38~39쪽.
3) 문동석, 2011,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개정판), 상상박물관, 20~22쪽.
4)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4~25쪽.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서울의 성곽』,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김도형, 2010, 『순성(巡城)의 즐거움: 서울성곽 600년을 걷다』, 효형출판 참조.
6) 김도형, 2010, 『순성의 즐거움: 서울성곽 600년을 걷다』, 효형출판, 32~38쪽.
7) 문동석, 2011,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개정판), 상상박물관, 21~23쪽.
8) 김도형, 2010, 『순성의 즐거움: 서울성곽 600년을 걷다』, 효형출판, 41~48쪽.
9) 문화재청,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숭례문」 참조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98&contents_id=26250).
10) 구본현, 2012, 「한시문에 나타난 한양성문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 47, 48~50쪽.
1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7, 『서울의 시장』,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83~97쪽.
12) 최완기, 1994,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66~103쪽.
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상공업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429~438쪽.
14) 남대문시장 홈페이지 참조. http://www.namdaemunmarket.co.kr/
15)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http://tour.junggu.seoul.kr/tour/h03_zone/h31_md_01.jsp
16)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참조. http://museum.bok.or.kr/index.do

제2장 남산, 서울 600년 역사를 굽어보다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7, 『서울의 산』,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16쪽.
2)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134~135쪽.
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7, 『서울의 산』,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17~118쪽.
4) 중구문화원, 『남산의 역사와 문화』,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32~38쪽

5)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87쪽.
6)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89~291쪽.
7)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95~296쪽.
8) 중구문화원, 『남산의 역사와 문화』,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149~151쪽
9)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82~285쪽.
10) N서울타워 홈페이지 참조. http://www.nseoultower.com/global/intro.asp
11) 서울역사박물관, 2009, 『남산 봉수대지 발굴조사 보고서』 참조.
12) 중구문화원, 『남산의 역사와 문화』,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140쪽
13) 안중근의사기념관 홈페이지 참조. http://ahnjunggeun.or.kr/?page_id=1308

제3장 청계천, 역사와 함께 흐르다

1)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22~23쪽.
2)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56~66쪽.
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서울 역사 2000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63~165쪽.
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상공업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11~218쪽, 294~296쪽.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서울 역사 2000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1~197쪽.
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5, 『중구지 하권』, 서울특별시중구, 354~366쪽.
7) 국립고궁박물관, 2010,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그라픽네트, 327~328쪽.
8)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5, 『중구지 하권』, 서울특별시중구, 377~380쪽.
9)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170~176쪽.
10)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206~207쪽.
11)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350~367쪽.
12)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281~287쪽.
13) 한형주, 2002,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2~48쪽.
14)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23~224쪽.
15) 서울시공식관광정보사이트 참조. http://www.visitseoul.net/kr/index.do?_method=main

제4장 덕수궁과 근대문화유산 1번지 정동

1) 김순일, 1991, 『덕수궁』, 대원사, 11~14쪽.
2)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188~189쪽.
3) 이순우, 2012, 『정동과 각국 공사관』, 하늘재, 120~128쪽.
4)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192쪽.
5) 김정동, 2002, 「근대 이후 서울의 '정동동역' 변천사 연구」, 『서울학연구』, 19권, 161~226쪽.
6)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193쪽.
7) 안창모, 2009, 『덕수궁』, 동녘, 59~62쪽.
8)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196~197쪽.
9) 안창모, 2009, 『덕수궁』, 동녘, 249~253쪽.
10) 김순일, 1991, 『덕수궁』, 대원사, 88~95쪽.
11)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00~204쪽.
12) 안창모, 2009, 『덕수궁』, 동녘, 134~140쪽.
13)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

물관, 210~213쪽.
14) 안창모, 2009, 『덕수궁』, 동녘, 209~213쪽.
15) 서울시공식관광정보사이트 참조. http://www.visitseoul.net/kr/index.do?_method=main
16) 이순우, 2012, 『정동과 각국 공사관』, 하늘재, 184~195쪽.
17) 이순우, 2012, 『손탁호텔』, 하늘재, 143~152쪽.
18)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19) 서울시공식관광정보사이트 참조. http://www.visitseoul.net/kr/index.do?_method=main

제5장 약현성당과 서소문역사공원

1)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1985,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참조.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http://encykorea.aks.ac.kr/
3) 두산백과 참조. http://www.doopedia.co.kr/
4)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1985,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참조.
5) 서울시공식관광정보사이트 참조. http://www.visitseoul.net/kr/index.do?_method=main
6) 중림동약현성당 홈페이지 참조. http://www.yakhyeon.or.kr/app/intro/information.html
7) 중림동약현성당 홈페이지 참조. http://www.yakhyeon.or.kr/app/intro/information.html
8) 서울시 중구청 '서소문공원 시민아이디어 공모' 참조. http://seosomun.junggu.seoul.kr/sub/intro0101.php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http://encykorea.aks.ac.kr/
10) 손기정기념관 홈페이지 참조. http://www.sonkeechung.com/
11) 두산백과 참조. http://www.doopedia.co.kr/
12) 중림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http://www.jlcwc.or.kr/

제6장 수도 서울의 관문 서울역

1) 코사카 사다오, 「외국인이 본 조선외교비화」(193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사진으로 보는 서울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재인용.
2) 박천홍, 2003,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 철도로 돌아본 근대의 풍경』, 산처럼, 245~252쪽.
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5, 『중구지 하권』, 서울특별시중구, 108~119쪽.
4) 『매천야록(국역)』, 제3권, 광무7년 계유(1903년)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참조. http://db.history.go.kr/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6) 가와무라 미나토 , 2004, 『한양 경성 서울을 걷다』, 요시카와 나기 옮김, 다인아트, 88~91쪽.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8) 문화역서울 284 홈페이지 참조. http://seoul284.org/new/main/main.php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1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참조. http://db.history.go.kr/url.jsp?ID=tc_ct_1968_02_25_0030

제7장 글로벌 쇼핑거리 명동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동명연혁고-중구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356쪽.
2)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참조.
3) 명동성당 홈페이지 참조. http://www.mdsd.or.kr/parish/md_history.asp
4)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참조.
5) 명동성당 홈페이지 참조. http://www.mdsd.or.kr/parish/md_history.asp

6) 서울역사박물관, 2011,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4~27쪽.
7) 서울역사박물관, 2011,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8~33쪽.
8) 중구문화원, 2009,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116~117쪽.
9) 서울역사박물관, 2011,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38~40쪽.
10) 명동성당 홈페이지 참조. http://www.mdsd.or.kr/parish/md_history.asp
11)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http://tour.junggu.seoul.kr/tour/h03_zone/h31_md_01.jsp

제8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DDP

1) 문동석, 2011,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개정판), 상상박물관, 20~22쪽.
2) 이상해, 1992, 「한양도성 경관의 원형」, 『대한건축학회지』, 36권, 36~39쪽.
3)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92~95쪽.
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상공업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401~418쪽.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7, 『서울의 시장』,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47~251쪽.
6)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193쪽.
7) 안창모, 2009, 『덕수궁』, 동녘, 59~62쪽.
8)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196~197쪽.
9)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design.or.kr/plaza2/summary.jsp
10)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http://tour.junggu.seoul.kr/tour/h02_culture/h21_top_09.jsp
11) 서울시공식관광정보사이트 참조. http://www.visitseoul.net/kr/index.do?_method=main
1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7, 『서울의 시장』,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47~251쪽.
13)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http://tour.junggu.seoul.kr/tour/index.jsp
14) 구지선, 2009, 『Enjoy 서울』, 넥서스북스, 200쪽.

제9장 충무아트홀과 황학동 풍물거리

1)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http://tour.junggu.seoul.kr/tour/index.jsp
2) 플레이DB 홈페이지 참조. http://www.playdb.co.kr/artistdb/detail.asp?ManNo=4785
3) 충무아트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mah.or.kr/
4) 충무아트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mah.or.kr/
5) 충무아트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mah.or.kr/
6) 충무아트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mah.or.kr/
7) 충무아트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mah.or.kr/
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7, 『서울의 시장』,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79~284쪽.
9)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http://tour.junggu.seoul.kr/tour/h04_infor/h43_special_04.jsp
10)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http://tour.junggu.seoul.kr/tour/h04_infor/h43_special_08.jsp

제10장 광희문 지나 한양도성 따라 걷다

1)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5, 『중구지 상권』, 서울특별시중구, 134~140쪽.
3)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318~321쪽.
4)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318~321쪽.
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5, 『중구지 상권』, 서울특별시중구, 357~359쪽.
6) 김도형, 2010, 『순성의 즐거움: 서울성곽 600년을 걷다』, 효형출판, 254~259쪽.

7) 김도형, 2010, 『순성의 즐거움: 서울성곽 600년을 걷다』, 효형출판, 272~274쪽.

제11장 장충단, 역사의 아픔을 아로새기다

1) 중구문화원, 1999, 『서울 중구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170쪽.
2)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97~299쪽.
3)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92~294쪽.
4) 중구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http://junggucc.or.kr/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http://culture.seoul.go.kr/sggDic/sggDic.do) 참조.
6)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309~310쪽.
7) 국립극장 홈페이지 참조. www.ntok.go.kr
8)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http://tour.junggu.seoul.kr/tour/index.jsp
9) 이해랑예술극장 홈페이지 참조. http://www.이해랑예술극장.com/
10)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http://tour.junggu.seoul.kr/tour/index.jsp
11) 종이나라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www.papermuseum.or.kr

제12장 남산이 품은 명당, 남산골 한옥마을

1) 최원석, 2009,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 - 청학동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4권 제6호, 752쪽.
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7, 『서울의 산』,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28~132쪽.
3) 최열, 2012, 『옛 그림 따라 걷는 서울길 : 풍경, 그림, 시 그리고 사람 이야기』, 서해문집, 52~56쪽.
4)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http://tour.junggu.seoul.kr/tour/index.jsp
5) 중구문화원, 1999, 『서울 중구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30쪽.
6)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79~281쪽.
7) 이순우, 2010,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재, 12~15쪽.
8)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76~278쪽.
9)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집부역, 1986,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 시인사, 9~12쪽.
10) 이순우, 2010,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재, 12~15쪽.
11) 서울남산국악당 홈페이지 참조. http://sngad.sejongpac.or.kr/main/main.asp
12) 한국의집 홈페이지 참조. www.koreahouse.or.kr
13)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271~273쪽.

참고문헌

가와무라 미나토, 2004, 『한양 경성 서울을 걷다』, 요시카와 나기 옮김, 다인아트
강명관, 2003,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고석규 · 고영진, 1996, 『역사 속의 역사 일기3』, 풀빛
구본현, 2012, 「한시문에 나타난 한양성문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 47권, 37-62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권기봉, 2008,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 가는 역사를 만나다』, 알마
김당택, 2012, 『(이성계와 조준 · 정도전의) 조선왕조개창』, 전남대학교출판부
김도형, 2010, 『순성(巡城)의 즐거움: 서울성곽 600년을 걷다』, 효형출판
김문식 외, 2011,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김순일, 1991, 『덕수궁』, 대원사
김정동, 2002, 「근대 이후 서울의 '정동동역' 변천사 연구」, 『서울학연구』, 19권
김태경, 1998, 「조선시대 사묘 공간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9권
김한종 외, 2003, 『고등학교 한국근 · 현대사』, 금성출판사
목수현, 2010, 「대한제국기의 국가 상징 제정과 경운궁」, 『서울학연구』, 40권
문동석, 2011,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개정판), 상상박물관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문화공보실, 1991, 『자랑스런 중구』, 서울특별시중구청
박천홍, 2003,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 철도로 돌아본 근대의 풍경』, 산처럼
박희용, 2010,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 표상, 원구단」, 『서울학연구』, 40권
부산근대역사관, 2005, 『근대 외교의 발자취』, 부산근대역사관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03, 『엽서로 보는 근대이야기』,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5, 『중구지』,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역사박물관, 200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09, 『서울의 근대 건축』,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1997, 『서울의 산』,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0, 『한경지략(漢京識略)』,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개항 이후 서울의 근대화와 그 시련(1876~ 191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사진으로 보는 서울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일제 침략 아래서의 서울(1910~194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상공업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출발(1945~196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동명연혁고 – 중구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서울의 성곽』,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7, 『서울의 시장』,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83~97쪽.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서울 역사 2000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학연구소, 2003, 『서울 남촌: 시간, 장소, 사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사단법인세종대왕기념사업회
신명호, 1998, 『조선의 왕』, 가람기획
신명호, 2002,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 문화』, 돌베개
신범식, 1997, 「서울의 근대 건축물 탐방」, 『서울의 문화유산 탐방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안창모, 2009, 『덕수궁』, 동녘
유홍준, 2011,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6권, 창비
윤경로, 1999, 「서울 지역 개신교 교회 창립 경위와 교인의 신앙 양태 및 사회 · 경제적 성향」, 『서울학연구』, 12권
이덕일, 1997,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석필.
이상해, 1992, 「한양도성 경관의 원형」, 『대한건축학회지』, 36권, 36-45
이상해, 2004, 『궁궐 · 유교 건축』, 솔출판사
이순우, 2010,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재
이순우, 2012, 『손탁호텔』, 하늘재
이순우, 2012, 『정동과 각국 공사관』, 하늘재
이우태, 1997,「서울의 자연과 역사」, 『서울의 문화유산탐방기』, 서울시립대학교부설서울학연구소
이욱, 2003, 「대한제국기 환구제에 관한 연구」, 『종교 연구』, 30권
이윤상, 2010, 「황제의 궁궐 경운궁」, 『서울학연구』, 40권
이태진, 1994, 「한양천도와 풍수설의 패퇴」, 『한국사시민강좌』14, 일조각.
이현진, 2007, 「조선 왕실의 혼전」,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임민혁, 2006, 「조선 초기 예치 사회를 향한 수도 한성 건설 계획」, 『서울학연구』, 26권
임민혁, 2012, 『조선의 예치와 왕권』, 민속원
장규식, 2004, 『서울, 공간으로 본 역사』, 혜안
장영훈, 2000, 『왕릉 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미디어
장영훈, 2005, 『궁궐을 제대로 보려면 왕이 되어라』, 담디
장영훈, 2005, 『왕릉이야말로 조선의 산 역사다』, 담디
전우용, 2008, 『서울은 깊다』, 돌베개
정수인, 2006, 「대한제국시기 원구단의 원형복원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26권
정운현, 1995, 『서울 시내 일제유산 답사기』, 한울
정재정 · 염인호 · 장규식, 1998,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혜안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집부역, 1986,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 시인사
조재모, 2003,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중구문화원, 1996,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1997, 『중구사화(史話)』,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1998, 『남산의 역사와 문화』,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1999, 『서울 중구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2000,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2001, 『중구의 구전설화』,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2003, 『명동 변천사』,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2004, 『중구의 축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2005, 『영화의 메카 충무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2007, 『정동, 역사의 뒤안길』,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2007, 『중구의 세시와 풍속』,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2009,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2012,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원
최기수, 1994, 『서울의 景과 曲』, 서울시립대학교부설서울학연구소
최완기, 1994,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최원석, 2009,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청학동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4권 제6호
최종현, 2012, 『남경에서 서울까지』, 현실문화
최준식, 2003, 『新서울기행』, 열매출판사
최준식, 2009, 『서울 문화순례』, 소나무
친일문제연구회, 1996, 『조선총독 10인』, 가람기획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1985,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건축역사학회편, 2006, 『한국 건축답사 수첩』, 동녘
한국문화유산답사회, 2004, 『답사여행의 길잡이』, 제15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 돌베개
한형주 외, 2009, 『조선의 국가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주, 2002,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홍순민, 1999,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홍순민, 2010, 「광무 연간 전후 경운궁의 조영 경위와 공간 구조」, 『서울학연구』, 40권

지은이 문동석

1963년 생.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성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백제 정치사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교육대학교, 한성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고 한신대학교학술원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 분과장(2001~2002년), 『역사와 현실』 편집위원(2003~2006년)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한국고대사학회 편집위원 및 백제학회 편집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백제 지배세력 연구』, 『초등 역사교육』,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공저와 연구 논문을 저술하였다.

서울 중구 12경, 살아있는 전통을 만나다

중구향토사자료 제14집

발행처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발행인 | 중구문화원장 김장환
기획 | 중구문화원(사무국장 남점현, 과장 김동주, 직원 안경희)
집필 | 문동석, 상상박물관 편집부
발행일 | 2013년 12월 30일
제작 | 도서출판 상상박물관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비매품

100-2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전화 02)775-3001, 팩스 02)775-3068
홈페이지 www.junggucc.or.kr